

안성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누구에게나 있는 지혜
분별 벗어나야 볼 수 있어"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5월 25일) · 주간

제947호 2013년 7월 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아함경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화엄 · 무량 · 무소속

종책모임 통합… 조계종 선거 '신호탄'인가

오는 10월 10일 열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신호탄'이 올랐는가. 前 화엄회, 무량회와 무소속 중앙종회의원이 통합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5일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 개원에서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고 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은 前 화엄회, 무량회와 무소속의 통합이다. 이들 중앙종회의원 46명은 6월 25일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가칭)불교광장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열고 포럼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기인들은 7월 11일 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총회에서 고문과 회장,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사무처, 대변인을 구성하기로 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도위원단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보, 성직, 지홍 스님으로 구성된 임시의장단이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취지문도 발표됐다. 발기인 모임은 창립취지문에서 "(가칭)불교광장은 '종단의 안정과 종도들의 화합'을 기치로 대통합의 선두에 서서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불조의 혜명을 이어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불교광장' 모임이 7월 창립되면 중앙종회 80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최대 종책 모임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10월 총무원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前보림회 등 여타 종책 모임이 연대를 한다고 해도 종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칭)불교광장'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구성 주체인 화엄회와 무량회의 경우 교구 본사 연합 성격도 강해 이에 대한 대항마가 형성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가칭)불교광장'의 창립은 그간 폐해가 많았던 선거 대신 후보 추대로 안정적인 종권 이양이 이뤄 쇄신 종책의 연속성을 가지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 종권의 연장이라는 지적과 세력에 치중한 나머지 종책 선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25일 '불교광장' 발기인 모임
7월 11일 공식 창립 결의
해체 1년 만에 다시 모여
선거보다 추대로 종단 안정
"종책아닌 세력 우선" 비판도
자승 스님 "소임 마음비워"

이에 대해 '(가칭)불교광장'의 임시 사무처장을 맡은 덕문 스님은 "금권 등 선거의 폐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보다는 추대로 총무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종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도 통합의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해체한 뒤 꼭 1년만에 통합한 종책모임. 이들의 행보가 대통합의 선두일지 집권 연장의 시나리오일지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5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스님은 "소임에 대해 마음을 비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前화엄 · 무량 · 무소속 종회의원들은 같은 날 통합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출재가 결사모임인 '붓다로 살자'는 6월 22일 출범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다. 동참대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금 여기, 붓다로 살겠습니다"

출재가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22일 공식 출범

'만물이 부처'라는 불교의 중요한 명제를 돌이켜보고 실천하자는 사부대중 결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출재가의 결사 모임인 '붓다로 살자'는 6월 22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출범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천 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붓다로 사는 길은 가르치셨다. 2600년의 불교 역사에서 높은 스승들은 이 같은 삶은 사신 분"이라며 "21세기 한국 · 문명사회의 희망은 불교에 있다. 모두 삶의 현장에 굳건히 서서 모든 행복을 위해 지금 여기서 붓다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1일 남원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붓다로 살자'는 6차례의 월례모임과 전북, 부산 등에서 모임을 가지면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매번 모임마다 생명평화 100배와 대중공사를 통해 붓다로 살겠다는 각각의 발원과 서원을 되새겼고 출범 법회에서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붓다로 살자'의 첫 걸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사만

사부대중 300여 명 참가
'붓다처럼 살아가기' 서원
평화 기원 행진으로 마무리
100일 순례 · 범종 불사 계획

화가 박재동 화백과 김선우 시인도 동참해 자리를 축하했다.

또한 이날 동참자들은 서원문을 통해 매일 '붓다로 살자' 서원문을 읽을 것을 비롯해 △매일 1백원 이상 보시 △남의 말 경청하기 △소박한 밥상 차리기 △매주 하루 자가용 없이 다니기 △매주 동네 한바퀴를 돌며 공동체 살피기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향후 '붓다로 살자'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공존과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걷기 정진, 100일 순례, 평화의 종 건립 불사 등을 전개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참석대중들은 '남과 북 함께 삽시다', '남과 북 대화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한반도 평화 기원 행진을 진행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출범 법회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휴 스님 등 출가자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신행 포교단체장과 전북, 부산 거제의 지역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947호 INDEX

시방세계 5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6月 호국 사찰을 가다 12
제 5군단 호국 금강사

화엄만다라 16 · 17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팔공 · 쌍계 · 금정총림 방장 추대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에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이,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에 고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에 지유 스님이 각각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6일 속개한 194회 임시회에서 각 총림에서 추천된 방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새롭게 지정된 총림의 방장이 공식 추대됨에 따라 조계종은 8대 총림의 시대를 열게 됐다. 하지만, 백양사 방장은 공석이다.

총림은 선교율을 닦는 종합수행도량으로 조계종은 1946년 가야총림이 시작돼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난 뒤 이 같은 총림을 중심으로 종단의 수행가풍을 이어왔다. 신규 총림이 지정된 것은 1996년 고불총림 지정 이후 16년 만이다.

이와 함께 총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대된 방장 스님은 임기와 의무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 임기는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각종 법문과 화두간택, 점검 등 납자들을 제접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다.

신중일 기자

새 방장 스님 이력 2면

비구니 의원, 종회 불참 사태

194차 조계종 중앙종회서… 초심호계위원 진입 불발

비구 의원들 율장 위배 주장
"비구니가 더 불이익 줘" 폄하
불교여성단체들도 항의 성명

6월 2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퇴장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첫 안건인 종헌 개정안 축조 심의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놓고 비구, 비구니 의원 스님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부터. 현행 종헌 제12항 호계원 조항에서는 호계위원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3급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한 개정으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비구'를 '승려'로 열어뒀다. 또한 초심과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을 나눠 명시 했다.

하지만 비구 스님들은 "율장으로는 비구가 비구니에서 갈마를 받을 수 없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으로는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심리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폄하 발언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비구니 스님들은 한, 두명 씩 회의장을 나왔고, 이번 종회에는 10명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6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본회의장에서 비구니 승가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장하게 됐고, 이는 사전 계획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활동과 능력을 폄하하면서 경쟁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이부승가로서의 비구니 의원 역할을 존중해줄 것을 종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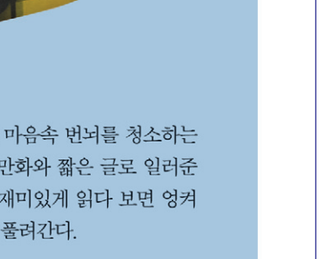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재가여성단체들도 이번 비구니 의원 스님 전원 불참 사태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가여성단체들은 "호계위원에 대한 개정안은 비구니스님이 초심호계위원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해 개정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번 중앙종회의 행태는 승가의 절반으로서 수행과 교화를 해 오신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기여를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가여성단체는 중앙종회의 사과와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만약 중앙종회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여성불자들은 차별적 종헌종법을 포함한 교단평등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종회 관련 기사 3면



여름,
마음에
쉼표
하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법정 스님의 수필과 함께 30년 넘게
불교계 최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선방일기

지허 스님 글 | 건동한 그림 | 116쪽 | 9,800원

팔만사천 경전에서 뽑아낸
가장 아름다운 말 185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이진영 엮음 | 정목, 무비, 원철 감수 | 296쪽 | 12,000원

도쿄대 출신의 신세대 스님이
들려주는 쓸데없는 고민 탈출 비법!



번뇌리셋

코이케 류노스케 글, 그림 | 이혜연 옮김 | 304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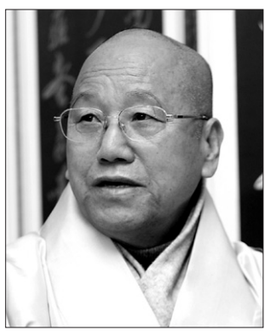
8대 총림시대 연 새 방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팔공 · 쌍계 · 금정총림 방장에 진제 · 고산 · 지유 스님이 각각 공식 추대됐다. 이로써 조계종은 8대 총림 시대를 열게 됐다. 신임 방장으로 추대된 스님들의 이력과 그간의 활동상을 정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선 세계 · 생활화 강조하는 선지식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성인 조계종 종정이기도 하다.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스님은 19세 되던 해인 1953년에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친척을 따라 동네서 10리 정도 떨어진 석우 스님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됐다. "출가는 범부(凡夫)가 위대한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라는 석우 스님의 일갈에 출가한 진제 스님은 1958년 통도사에서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1959년 향곡 선사 문하에 입실해 간화선 수행에 매진했다.

그로부터 8년인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어가게 된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간화선 생활화를 위해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행자들을 제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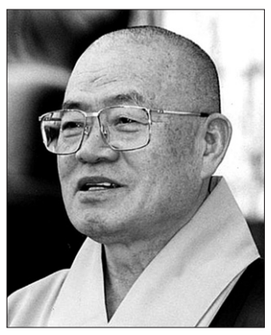
또한 선학원 이사장, 중앙선원 조실(1991),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1996~2011) 등을 역임하며 후학 수좌들을 이끄는 역할도 충실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와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2011년 세계적 신학자 폴니터 교수의 초청으로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교회 간화선 대법회를 열었고, 2012년에는UN 세계종교지도자 초청법회에 국제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법문을 설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올해 4월 24일 진제 스님이 간화선 중흥을 위한 법회에서 설한 입재 법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법이자 일체의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정신문화인 참선수행법을 세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율론 통달한 한국불교 대표 강백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경율론 삼장에 통달한 강백으로 유명하다. 특히 율사로서 스님은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한국불교 계단의 최고 어른이기도 하다.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고산 스님은 1945년 아버지의 권유로 범어사에 입산했다. 1948년 동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으며, 경율론 삼장에 출중해 고봉 스님에게서 간맥을, 석암 스님에게서 율맥을 이어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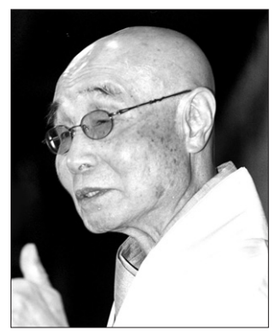
또한 선 수행자로서의 면모도 출중하다. 1954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58안거를 성만했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교일여도리(禪敎一如道理)'를 후학들에 알리고, 오로지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면서 걸림없이 살아온 이 시대 선지식이다. 실제 스님은 경남 하동에 있는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조실로 주석하면서도 부산과 경기도 부천, 통영의 연화도 등을 오가면서 법회와 법문을 거르지 않아왔다. 쌍계사를 차의 종가로 이끌어 낸 것도 스님의 원력이었다.

또한, 199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어지러워진 종단 사태를 수습했으며, 호계원장, 제2 · 4 · 5 · 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종단 발전에도 일임을 담당했다. 특히 총무원장 소임을 살 당시에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대중전 어간에서 좌정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07년 전강법회의 법문에서는 강백으로서의 스님의 면모가 드러난다. 당시 스님은 "만약에 현재 부처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맑히기를 저 허공과 같이 맑히라 했다"며 "부처님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망상이나 모든 잡생각을 다 멀리 여의는 것이 바로 성불한 사람의 경계"라고 강조했다.

장좌불와 수행 20년… 철저한 수행 납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금정총림 범어서 방장으로 추대된 지유 스님은 평생을 수행 납자로서의 삶에 충실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 · 부산 지역 신도들에게는 '법 높으신 스승' 이시기도 하다.

지유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인 19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67안거를 성만했으며 문경 봉암사,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방장 추대 전까지 범어사 조실로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를 오가며 제접해 선풍을 떨쳤다.

스님은 계행에도 철저하다. 오후불식을 평생동안 지키고 있다. 눕지 않고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20년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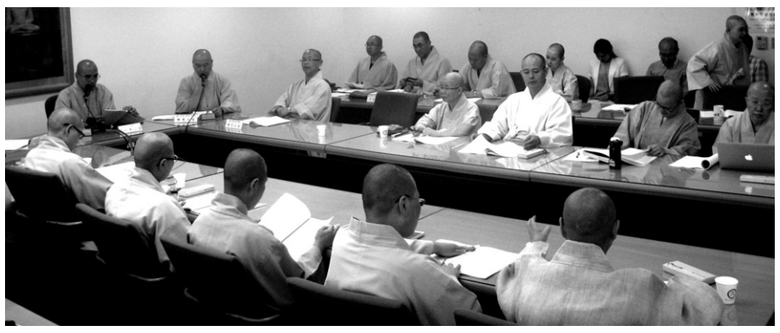
평소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의 본질을 찾으라고 설한다. 실제 신도들에게 "단순히 불상에 참배하고 복을 빌기 위해 절에 오는 것이라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하안거 결제 법문에서도 본질을 찾는 수행을 하라고 말했다. 스님은 "깨달음의 자리는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버리고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 물이라는 설명을 아무리 듣고 책을 보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의 참맛은 아니다. 물의 참맛은 몸이 물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맛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며 잡념에 끄달리다 보면 참다운 수행이 안된다"며 "자꾸 세월이 흘러가니 시간을 아껴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육식 · 음주 승단 위상 저해"

자현 스님, 교육원 교수아사리 1차 포럼서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2일 교수 아사리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육식은 조계종 위상을 저해하는 치명적 오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율과 윤리를 연구하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은 6월 22일 교수아사리 1차 포럼에서 자현 스님은 '대처육식의 문제와 승가의 위상' 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일반인들은 육식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불교를 바라본다"며 "사회와 결부되는 육식과 음주는 승단의 위상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스님의 금지식 문제는 사회인식과 관련된 승단 윤리에 있어 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자현 스님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음식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님은 "육식문제는 이번 청규에서 금지식으로 규정된만큼 조계종의 방향은 정해졌다"며 "현대의 식문화에서 육식과 채식 분별이 모호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도들에 대한 계몽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독신의 보살비구종단으로 대처승과의 변별력을 통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속원을 분명히 하는 단체복으로서 승복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자현 스님 발표에 앞서 선불교 분야 교수아사리 희철 스님은 "대중이 원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이며 수행자"라며 승가상을 재정의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원은 8월24일, 10월26일, 12월28일 등 교수 아사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해 처벌하라"

불교계 교수 · 사회단체 규탄, 시국선언 이어져

불교계단체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6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욕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했다"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는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식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으며, 동국대 교수 51명도 6월 28일 교내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6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사건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승가회 등 불교계 12개 단체는 7월 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정원의 헌법유린규탄 시국법회를 개최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시국선언 교수 51명과 동국대 45기 총학생회 및 동문회는 동국대 불상 앞에서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려왔습니다

본지 제946호 31면 발언대 중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 덕문 스님의 기술 중 '이연택 이사가 종관위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에서 추천돼 이사로 임명됐다' 고 동국대 총동창회가 알려왔습니다.

"미래부, 부처 내 선교회 논란 해명하라"

조계종 종평위 24일 공문 발송… 공식 대응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의 공격적 선교 전략이 공개된 가운데 불교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해당부처에 발송했다.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미래부의 공식입장 및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배포 범위 등을 공식 질의했다.

종평위는 "다종교 사회에서 과도한 선교나 전도활동은 종교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간 화합을 깨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는 법으로도 규정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제11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 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1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응모 부문(개인 혹은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개인 혹은 단체)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개인 혹은 단체)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

응모 부문(개인 혹은 단체)
① 스토리텔링 : 대본 내용 등 제출 [A4용지 최소 10매 이상 ~ 최대 30매 이내]
②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 DVD 혹은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③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 DVD 혹은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④ 오디오(작곡 등) : 3곡 이상(1곡 당 5분 내외)
⑤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⑥ 상기 관련 분야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함.

※ 시상 대상에 대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혹은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3년 9월 16일(월) ~ 9월 30일(월)

제출서류 : 제11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 운영도 의결도 '난국'

종헌 개정과 총림법 제개정 등 조계종 주요 쇄신 현안을 다루기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제194차 임시회가 회기를 단축해 6월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팔공 · 쌍계 · 금정총림 방장 추대와 청소년 · 단기출가 특별법 제정 등의 일부 성과를 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퇴장과 종헌 부결, 쟁점 빠진 총림법 제개정으로 '반쪽' 이라는 비판을 넘기가 어렵게 됐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놓고 벌어진 차별 발언과 이로 인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종회 퇴장과 불참이다.

25일 다뤄진 종헌 개정안에서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 에서 '승려' 로 개정해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자는 종헌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이를 항의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전원 퇴장해 종회 불참을 결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점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공양약속도 잡혀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이도 거부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는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가 채택한 '호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에도 담긴 내용이기도 했지만, 율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구 스님들은 '승려' 로의 문구 개정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 비구 의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심사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하 발언을 했지만 의장단이나 동료 비구 의원 스님들 중 누구도 제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헌 개정 부결과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불참으로 일부승가 회의가 된 이번 종회는 회의 운영에도 오점을 남겼다. 의사정족수인 41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 진행이 번번이 중단됐으며 급기야는 종회 사무처 직원과 일부 의원 스님들이 의결을 위해 의원 스님을 찾아다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종헌 개정 부결로 반쪽 입법
개정특위의원마저 법안 '판죽'
비구니 불참… 一部衆 종회
의사정족수 번번이 모자라
방장 추대 · 출가법 제정 '성과'


비구니 의원 스님들의 비어있는 좌석. 비구 의원 스님들의 차별적 발언과 호계위원 진입 무산을 이유로 비구니 스님들이 전원 퇴장이라는 강수를 뒀다. 사진= 박재완 기자

기대를 모았던 총림법은 종헌 개정안 부결 이후 총림 주지 선출 등의 쟁점들은 전부 빠진 채 개정됐다. 결국 총림법은 총림 방장의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방장 의무 조항 명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어진 법안 제개정에서도 청소년 및 단기출가특별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안에서 의원 간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번복됐다. 몇몇 종헌종법특위의원은 조율된 개정안에 대해 "회의 참석을 하지않아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종도들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 이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종헌종법특위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구체화 시킨 사례다. 실제 특위위원장인 법안 스님(중앙종회 부의장)은 26일 회의 말미 위원장직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동료 의원 스님들이 "11월 종회까지 특위를 이끌어달라"고 만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이번 종회는 비구니 의원 스님들에 대한 안정적 의정 활동 보장과 종헌종법특위 상정 법안의 본회의에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되짚어보게 했다.

이번 종회에 대해 종회 모니터링을 담당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종회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비구 스님의 폄하 발언에 비구니 스님들의 퇴장, 빈번한 의사정족수 부족 등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도를 대표하는 입법기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며 "진정한 입법기구를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상좌에 유산 상속은 관습법, 해방 후 민법 제정서 누락"

주호영 의원, 종회 강연서… 농지·재판 등 전반 제안 설명

스님의 입적 시 재산은 본래 관습법 상 사자상승해 사찰과 종단에 귀속됐지만, 해방 이후 개정된 민법에서 부주의로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6월 24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명사 초청 강연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불교와 법률에 관한 단상' 이라는 주제 강연을 진행한 주 의원은 이날 △재산과 상속 △개명 △농지취득 △재판 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날 관심을 모았던 것은 종단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승려 사후 재산 상속 부분이었다.

현재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 남겨진 유산은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된다. 이 같은 스님의 재산은 사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속가로 넘어가면 사찰은 큰 타격을 받게 돼 있다.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공증을 통한 유언장은 전 종도들에게 받고 있지만 속가 친척들의 유류 상속분까지는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 의원은 1912년 일제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관습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당시에는 승려 사후 재산을 관습법에 따라 상좌와 사찰에 상속됐고, 속가에는 전해지지 않았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습은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 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1960년 새 민법이 제정 · 시행되면서 이런 관습법을 성문화하지 못하면서 승려 사후 재산이 속가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스님의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으로 전해왔고, 법적으로까지 효력이 확인됐던 제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중앙종회의원 연수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종회의장 향적 스님 등 종회의원과 총무원 교역직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불교 등 3대 종교 기자회견

불교 기독교 천주교 3대 종단은 6월 26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3대 종단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종호 스님(조계종 노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목사(NCCK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훈 신부(한국천주교교주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불교에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회계조작과 (쌍용자동차 측의)부당해고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대 종단은 △박근혜 정부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 △사측의 협상테이블 마련 △모든 종교인과 국민들이 노동자의 죽음을 위해 기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한국 창의 · 인성교육 보급 담당한다

수도권 거점센터로 내년까지 4억여 원 지원
교육청 연계해 초중고 컨설팅 · 교수법 개발

동국대가 정부가 진행하는 창의 · 인성교육의 수도권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동국대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대전 등 7개 지역을 담당해 교육법 개발, 교사연수 등을 진행한다.

정부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6월 10일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의 · 인성교육의 확산 및 내실화를 선도하는 거점센터를 선정했다. 총 선정된 곳은 3곳으로 수도권은 동국대, 서남권은 광주교대, 동남권은 부경대가 맡는다.

창의 · 인성교육거점센터는 2011년부터 정부에서 진행 중인 창의 · 인성교육 강화가 일선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거점센터는 대학이 맡게 되며 각 시도 교육청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2014년 3월까지 교육부와 수도권 7개 교육청, 200여개 수도권 창의 · 인성 모델 초 · 중 · 고등학교, 1만여 수업연구회 교사들과 연계해 창의 · 인성교육 확산에 나선다. 단년 사업이지만 성과에 따라 연속 선정이 가능하다.

동국대는 먼저 △창의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 △교수학습법 연구개발 △교원연수 △학교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2년간 진행된 창의 · 인성교육 현장 실천도 및 효과분석, 권역별 거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첫 행사로는 8월 8~10일 동국대에서 수업연수회 회원 350여 교사들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동국대의 창의 · 인성교육 거점센터 선정은 그동안 사범대 중등교육연수원 운영 및 역량개발센터 운영 등의 학교 측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립대학으로서 자리잡힌 인성교육 시스템과 함께 '제2 건학' 을 목표로 창의성 기반 교양교육 강화 등이 진행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선정에서 "동국대가 그동안 최우수 교원양성 선도대학으로 꼽혔으며 심사에서 창의 · 인성교육거점센터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며 "대학 역량을 초 · 중 · 고등학교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우리나라 창의 · 인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창의 · 인성교육 거점센터장을 맡게 된 장환영 동국대 교수는 "학생 맞춤형 창의 · 인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사를 위한 수준별 교수법 연구, 창의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 공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참여의 대안적인 삶 마련"

국내 8개 재가단체 KNEB 결성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국내 8개 재가단체는 6월 27일 만해NGO센터에서 KNEB (Korea Network of Engaged Buddhism) 결성식을 갖고 미래사회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공통의 모색점을 찾을 것을 결의했다.

대불련총동문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위드아시아,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 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교연구원, 재한줌머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KNEB는 결성식 자리에서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수덕 대표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질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앞으로 불자들이 전세계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성식은 참여불교국제연대(INEB : Internationl Network of Engaged Buddhism)가 6월 27~29일까지 개최한 제2회 INEB 동아시아포럼 기간 중 열렸다. INEB 동아시아포럼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3국의 불자가 함께 불교와 교단의 미래,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공통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숙 기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8개 재가단체는 6월 27일 만해 NGO센터에서 KNEB 결성식을 가졌다.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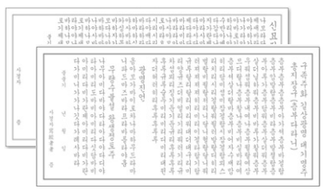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한지백팔사경 5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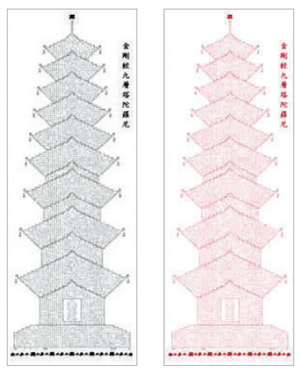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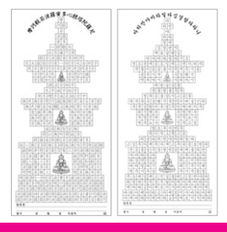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 사경지 ※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8,000원(20장 이상) 정 가 10,000원
• 종이 케이스포함 / 한지낱장
• 75cm×210cm (먹색,적색)
• 손으로 직접 뜬 전통 재래 한지


★반야심경 탑사경(한문 · 한글)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한지낱장 / 63.6㎝×31.3㎝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위패(대/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大30,000원 / 小27,000원 (100개)
할인가 大@270원 / 小@240원 (1000개이상)
※크기
• 대 6.5×24cm
• 소 5.3×18.3cm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크기
• 15.5×19cm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일 주 문



자애와 자비심의 캠프

한반도평화봉행위원회 상임위원장 수불 스님은 7월 26일 판문점 평화의 집과 DMZ 일대에서 DMZ순례 '자애와 자비심의 캠프'를 개최한다. (031)239-9391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5일 보원사 백제미소의길에서 공승법회 및 반결제 산행을 개최한다. (041)330-7700



팔공산 승시 참가 접수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7월 30일까지 팔동산 승시축제 참가신청을 받는다. (053)986-9575



제1회 양산통도사 사계 사진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9월 7일까지 제1회 양산 통도사 사계 전국사진전을 공모한다. (055)382-1442



사찰음식체험관 상량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20일 고운사 사찰음식체험관 상량식을 개최했다.



미륵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

전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미륵장육삼존불 개금불사를 모연한다. (063)548-4440



불자 자산관리 세미나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7월 16일과 19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불자자산관리 힐링세미나를 개최한다.(02)768-8580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입재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6월 30일 대불보전에서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BBS거룩한만남, 성금 전달

BBS 불교방송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진행자 대엽 스님은 6월 28일 다보원에서 청취자들이 보내온 성금 4400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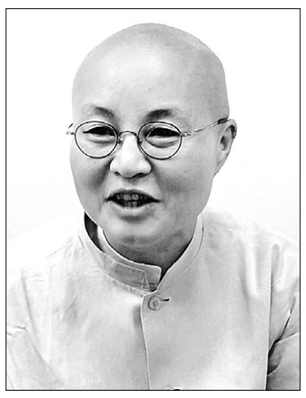


일주일 철야정진 입재

전근홍 보림선원선원장은 7월 27일~8월 2일까지 산청보림선원서 일주일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55)-972-9555

"깨달음 이끄는 빛의 문이 만다라"

해피만다라 개원 동휘 스님



만다라 강연 등 불교대학 운영
명상체험으로 진리 체험 지도
홍천에 만다라 성전 조성 발원

"21세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중심에 만다라가 있습니다. 빛나는 수행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피만다라 문화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만다라를 통해 대중들에게 행복한 만다라를 알려온 동휘 스님(홍천 여래자 주지)이 종로구 인사동에 해피만다라 문화원을 개원했다. 스님은 6월 25일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소식과 함께 만다라성전 등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난 6월 9일 문을 연 해피만다라문화원은 만다라법륜대학과 금강대법연무관 등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만다라법륜대학은 동휘 스님의 해피만다라이야기 법문강의와 지도, 만다라 수행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반야심경 등 불교경전 강의도 진행된다.

동휘 스님은 해피만다라 문화원이 작은 공간이지만 대중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빛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다라 그림 전시와 함께 불교대학을 통해 불교교리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또한 명상체험을 통해 스스로 불교적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강대법연무관을 통해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만다라 법륜 대학은 3개월 코스 주1회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수강생이 모집된 상태다.

또한 스님은 주지로 있는 홍천 여래사에 만다라 성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한다. 이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보나부르드 사원을 본 딴 것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님은 이 성전이 전세계 불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다라를 알면 자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빛나는 스위치를 누르면 곧 행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다라의 세계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우주의 중심이자 만다라의 중심인 '옴'자로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옴'이며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옴"이라며 "매주 금요일 문화원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이 글씨를 나누어주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동휘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으로 출가 이후 만다라를 직접 그리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국에 만다라를 수집해왔다.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에 해피만다라 문화원을 세우는 등 지금까지 만다라 대중화를 위한 해피 만다라운동을 펼쳐왔다. (02)736-01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NC다이노스, 대장경축전 성공 위해 나선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개최에 적극 나선다. 김이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배석현 NC다이노스 단장은 6월 26일 창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대장경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는 NC다이노스에 홍보비 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을 진행하며 NC다이노스는 축전 홍보와 입장권 구매에 협조한다.

NC다이노스는 1000만원 상당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를 구매해 NC다이노스 홈경기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 설치와 티켓 배포 등을 진행한다.

김이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NC다이노스와의 업무협약이 대장경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의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배석현 NC다이노스 단장은 "선물로 받은 대장경 경판을 독실한 불자인 김경문 다이노스 감독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문 감독은 동국대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이론 실천 하나된 것이 불교"

서광 스님, 증심사 초청법회서

"불교를 마음공부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공부인가"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6월 23일 미국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사진>을 법사로 명사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서광 스님은 마음공부의 방법으로 불교의 근본교설인 사성제, 삼학, 삼독과 삼법인, 바라밀, 오정심관, 십이연기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마음공부 방법을 제시했다.

서광 스님은 "불교 공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부와는 달리 이론과 실천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돼 가슴에서 만나는 것이 마음공부"라며 "붓다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인간 고통은 대부분 마음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의 근본 해결 또한 마음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증심사는 이날 서광 스님에 이어 7월 22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8월 30일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 9월 28일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10월 19일 방송인 김혜옥 씨, 11월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등을 초청해 명사법회를 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만해 한용운 선사 69주기 다례재

서울 흥천사(주지 정념)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은 6월 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제69주기 다례를 봉행했다. 심우장은 1933년 만해 스님이 지은 집으로 서울시 기념물이다. 남향이 아닌 북향으로, 남쪽을 향해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과 마주하는 북향을 선택했다고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부산진여원 제15회 호국영령위령재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21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에서 제15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 진여원 주지 무성 스님, 혜원사 주지 무원 스님, 능인사 주지 원각 스님, 황재관 북구청장, 유주봉 부산지방보훈청장 등 보훈유관 기관장들 및 유가족 5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희생한 호국선열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화합의 토대를 이루자"고 말했다.

박경수 지사장

동산 김재일 법사 5주기 추모식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상우)은 6월 23일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동산불교대학에서 김재일 법사 5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산 스님은 "동산불교대 법주인 무진장 스님과 김재일 법사는 아미타불의 대원력으로 이 땅에 정토사회를 이루고자 헌신했다"며 인연을 회고했다.

5주기 추모식에 이어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봉안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상우 동산불교대 이사장은 "진리의 법의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으로써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일"이라며 "동산불자들의 가슴에 부처님을 새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승가교육원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영남불교예술대학의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올바른 수행자의 자격을 구비하고자 출가자나 미수계자 또는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승려기본예절 및 기본의식과 체계적인 수행법등을 교육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조실 청강큰스님과 대 강백이신 자광큰스님을 증명 및 수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최고의 교수진구성으로 알찬 승가 제반 기초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월 기본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구 분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참), 불공편, 요령목탁법 • 불공편 관음시식 • 천수경강의 • 반야심경강의 • 발우공양작법	목	2시 ~ 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율의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발우공양(실습) • 자비도량참법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전문반 (기초학과 수료자에 한함)	• 예경편(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점안편, 대령, 관욕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2시 ~ 5시	00명

■ 개 원 일 시 : 불기 2557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부터 12주간
■ 회 향 기 도 : 13주차(화, 수, 목)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교육동참금 : 50만원(교재, 바루, 식대, 수계비포함)
■ 준 비 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 육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www.gounsa.net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초, 중·고생, 일반)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바로보기 행복 명상 (별솔 어린이 캠프) 초등학생 여름수련회



● 일 시 : 2013년 7월 26일 ~ 28일 (2박 3일)
● 참가비 : 오만원
●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新 붓다의 조건 (별솔 청소년 캠프) 중·고생 여름수련회



● 일 시 : 2013년 7월 30일 ~ 8월 1일 (2박 3일)
● 참가비 : 칠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솔바람 소리 찾아서....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 1차 수련회(8월 2일~ 4일)
2차 수련회(8월 5일~ 7일)
3차 수련회(8월 9일~11일)
● 참가비 : 일십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종무소 ☎ 054)833-6933. 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놀고 배우고 체험하고… 올 여름 사찰에서 보내요

여름방학 맞아 불교계 어린이 · 청소년 템플스테이, 캠프 다채

염천(炎天)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 학부모들의 고민은 자연스레 많아진다. 방학을 맞은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서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여름 산사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 여름 산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휴식과 학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 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다. 자연 체험학습과 놀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명상과 예절교육, 숲속 참선 등 산과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산사에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은 분명하다.

애들아 우리는 사찰에서 논다

우선, 레저활동을 접목한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끈다. 남해 바다의 섬들이 한 눈에 보이는 진해 대광사는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스님과 손잡고 뒹굴어 보아요'를 선보인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초등학교 저 · 고학년을 위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광사를 둘러 싼 편백나무 숲에서의 호흡 명상을 비롯해 요가, 다도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수행 체험과 해양레포츠를 함께하는 이색 템플스테이. 저학년 어린이들은 계곡에서의 물놀이를, 고학년들은 바다를 찾아 시원한 해풍에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부산 내원정사에서 선보이는 '자우림 템플스테이' 는 8월 한 달 간, 1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천연 비누, 두부 만들기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숲 체험을 만날 수 있다. 강화 전등사는 다도, 명상, 단청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삼랑성 역사길 포행, 내 모습을 만나는 페르소나 마스크 만들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전한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배우는 템플스테이는 그야말로 서방 극락정토다. 불일폭포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 을 준비했다. 사찰문화 체험과 한문학습을 비롯해 사찰음식 체험을 통한 '오감만족명상' , 야생화 탐방, 황토 숲길 걷기, 한 여름 밤의 콘서트 등 학습과 놀이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흥미를 더한다.

국내 한문학당 템플스테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산 부석사의 '충 · 효 · 예 한문학당' 은 올 여름에도 탄탄한 한문학습 과정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한다.

6박 7일간 스님과 함께 하는 집중적인 한문교육과 대장경판 인쇄 체험, 수덕사 탐방, 발우공양, 예절 배우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바다 물놀이, 도비산 등반 등 심신을 단련할 수 있다.

불가의 전통수행무술 선무도의 본산으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 화랑 템플스테이' 를 실시한다. 선요가, 호신술, 국궁수련 등 다양한 신나는 야외 활동과 명상, 다도, 화랑과 원효대사의 순례길을 따라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운다.

아이들도 힐링이 필요해요

어른들보다 바쁘다는 요즘 아이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강원도 월정사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어린이 · 청소년 템플스테이' 를 선보인다.

명상, 애니어 그램 통한 힐링부터 불교문화 · 생태 체험까지 다양해 한문 · 영어교육 등 '일석이조' 효과 해양 레포츠 · 선무도로 호연지기도

프로그램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습관을 살피는 에코명상, 숲속 걷기, 108배 등 다양한 모둠 명상 시간과 발우공양, 상원사 전통문화재 탐방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들의 꿈을 찾는 화엄사의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도 눈여겨 볼만하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나의 꿈 찾기 프로그램과 마음 거울 들여다보기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 고민을 풀어나간다.

화성 용주사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효 리더쉽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융건릉을 배경으로 정조 효토크, 숲길 명상, '나는 정조대왕이다' 등 부모님의 은혜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완도 신흥사는 청소년들의 분노를 다스리는 명상과 심성계발 프로그램, 바닷가 물놀이 등을 진행한다.

2013 여름방학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단체 여름캠프들도 다채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방학맞이 체험 · 수행 프로그램은 불교계 단체를 중심으로도 진행된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는 초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4G처러 간다' 를 주제로 여름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캠프는 (사)자비명상 대표인 마가 스님이 자신과 타인, 가족을 위한 긍정명상을 진행하며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연극과 놀이문화로 마련됐다.

캠프 기간 동안 이운 교수(동국대 평생교육원)의 '감정코칭 스트레스 해소 감정 대화법' , 진창호 청소년 지도사의 '남산 둘레길' '서원세우기'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 현일환 수원대 겸임교수 '키크기 아침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 · 중고생 각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초등학생은 7월 23~24일, 중 · 고등학생은 7월 25~26일 남산 대원정사에서 진행된다. (02)3666-0260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제7회 자우 스님의 영어담마캠프' 를 8월 8~13일 팔공산 은해사에서 개최한다.

'Mindfulness: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로운 아이 되기 프로젝트'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70명을 대상으로 솔숲명상, 별빛명상, 종소리명상, 물빛명상, 108배, 선무도, 소금만다라 명상 등 다양한 게임과 영어 퀴즈로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적 발달을 고려한 체계화된 심리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한다.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 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원어민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02)6012-1731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도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교를 준비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어린이 생태학교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동안 지리산 화엄사에서 '지리산 숲속 친구들아, 안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생태학교에서는 지리산 숲길걷기,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체험, 예불(108배 절명상), 공동체놀이, 기후변화 알기, 부모은중경 독송, 계곡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062)223-3623

신중일, · 이나은 기자



봉화 청량사에서 열린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전국 사찰은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인성함양과 문화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 · 불교 캠프

사찰명	제 목	프로그램	일 정
화운사	"꿈茶리"청소년 템플스테이	야단법석,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전통 놀이 등	8.1~8.4
	"놀아봐 꿈꿔봐!"	신나는 물놀이, 야단법석, 사찰 탐방 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 캠프파이어	(1차)8.8~8.10 / (2차) 8.13~15
도갑사	"얘들아~ 숲에서 놀자!"	어린이 웃음나무, 자연바람 솔솔~, 훼찬랜드, 숲에서 놀자~, 캠프파이어	(1차)7.30.~8.1 / (2차) 8.2~8.4
	아빠, 엄마 함께 놀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교육 놀이, 노는 게 제일 좋아!, 氣차게 놀자	8.7~8.9
대광사 (진해)	"스님과 손잡고 뒹굴어보아요"	숲속명상, 요가, 다도, 물놀이(저학년), 바다로 떠나는 마음 찾기 여행(고학년), 편백 숲 걷기	저학년-(1차)7.26~7.27/(2차)8.9~8.10 고학년-(1차)7.27~7.28일/(2차)8.10일~8.11
길상사	길상사 여름 선수련회	저녁예불, 참선, 체험학습, 장기자랑 및 문화 공연, 나를 깨우는 108배	저학년-7.26~7.27/고학년-7.29~7.31/ 청소년-8.5~8.7
백담사	fly in to the sky	사찰의 일상 체험, 자기주도적 학습력 코칭, 애니어그램 상담, 명상수련	7.20~8.11(3주간)
	부모 역량강화 템플스테이	자녀와의 소통법 코칭 상담 및 애니어그램 상담 프로그램 운영	8.10~8.11
금선사	금선사 청소년 여름학교	예불, 108배, 발우공양, 운력, 만다라 그리기, 촛불명상, 숲 명상	초등부- 7.30~7.31/중고등부- 7.26~7.27
부석사	충 · 효 · 예 한문학당	한문교육, 반야심경 대장경판 인쇄 체험, 단청그리기, 도비산 등반, 수덕사탐방, 바닷가 가기, 다도, 발우공양, 예절배우기, 부석사 탐방	7.28~8.3
월정사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월정사 어린이/청소년 여름 템플스테이'	어린이▶내 마음,우리들 마음의 컵(모둠명상), 마음명상108배, 숲길 걷기 명상,모둠 활동, 발우공양, 친구야 고마워! 청소년▶나를 되돌아보는 명상(자신의 행동, 언어습관 살피기),에코명상, 탑돌이, 상원사. 적멸보궁 참관.	초등부-7.29~7.31 중고등부-8.2~8.3
묘적사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동행	사찰습의, 부모은중경, 다도, 연꽃 만들기 체험, 소원 빌기, 폭포 수영	7.26~7.28
백련사(가평)	잣 숲 다람쥐와 이야기 해보렴!	잣 숲속 삼림욕, 계곡 물놀이, 다도, 예절배우기, 사찰음식 체험	7.30 ~8.1
선석사	you're 特存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숲속명상, 부채민화그리기, 단청체험, 물놀이, 부모님과 함께 떡 만들기	(1차) 7.26~7.28 / (2차) 8.9~8.11
화엄사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	나의 꿈찾기, 삼보일배, 발우공양, 응답하라, 나의희망!	7.25~7.27
관음사	"발맞춤 동행"	핸디 페인팅, 차 명상, 농촌테마파크 탐방, 부모님 세족식, 고려불화 체험	7.26~7.28
유마사	내 마음 색칠하기	사찰 돌아보기, 요가 및 건강 힐링 아카데미	7.31~8.2
골굴사	골굴사 선무도 화랑수련회	인성교육, 명상,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들의 영어수업	7.21~8.24
용주사	내 마음의 보물찾기 템플스테이	다도, 효런닝맨. 숲길명상, 용건릉 탐방,	7.26~7.28
	"효" 셀프 리더십 템플스테이	정조 효 토크, 숲길 명상, 나는 정조대왕이다	8.9~8.11
신흥사(완도)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감감감'	아동 ·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체험	7.13~7.14
내원정사	자우림 템플스테이	비누 만들기, 두부 만들기, 숲 체험 등	8월 주중(템플라이프)
쌍계사	여름 어린이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오감만족명상(사찰음식체험),야생화/황토 숲길걷기명상,한여름 밤의 콘서트	7.20~7.21
서광사	서광사 여름 템플스테이(5~7세)	오솔길 걷기, 예절배우기, 옛날 간식 체험, 캠프파이어, 촛불명상 등	7.12~7.13
전등사	2013 한여름 특별한 템플스테이	내 모습을 만나는 페르소나 마스크 만들기, 삼랑성 포행, 단청체험	초등부(4-6학년 7.23~7.26)/ 중고등부 7.30~8.2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	'우리는 지금 4G처러 간다' 여름 힐링캠프	감정코칭 스트레스 해소 감정 대화법, 남산 둘레길 걷기, 서원 세우기,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키크기 아침체조	초등학생 7월 23~24일 중 · 고등학생 7월 25~26일 장소: 남산 대원정사 문의: (02)3666-0260
비로자나 국제선원	'Mindfulness: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로운 아이 되기 프로젝트' 제7회 어린이 영어담마캠프	솔숲명상, 별빛명상, 종소리명상, 물빛명상, 108배, 선무도, 소금만다라 명상, 원어민 교사 영어교실 및 퀴즈	8월 8~13일, 장소: 은해사, 문의: (02)6012-1731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지리산 숲속 친구들아, 안녕' 제12회 어린이 생태캠프	지리산 숲길걷기,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체험, 예불(108배 절명상), 공동체놀이, 기후변화 알기, 부모은중경 독송, 계곡 물놀이	8월 2~4일, 장소: 화엄사, 문의: (062)223-3623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걷다' 제2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노고단서 이웃과 세상을 위한 108배, 계곡물놀이,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 알기, 공동체놀이, 영화 상영, 지리산 실상사 사찰순례	8월 9~11일, 장소: 지리산 달궁야영장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포교 · 신행 소식

불교와 심리학 어떤 관계가 있는가

풍경소리, 7월 무료특강 4일부터 매주 목요일

매월 한 가지 주제로 3회에 걸쳐 무료 특강을 여는 풍경소리(대표 혜자)가 7월의 '무료특강 삼세번'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 주제는 '송탁 스님의 담마 이야기'로 7월 4 · 11 · 1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송탁 스님은 인도 뿌나대학 철학 박사를 마치고 현재 소림사 아리담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다. 송탁 스님은 불교심리학적 관점에서 불교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 가지 주제로 월 3회 진행되는 것으로 1~3째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풍경소리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선착순 25명 풍경소리(www.pgsori.net)로 전화 신청 받는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UN공원서 추모행사



UN군 합동위령제에 무원 스님(가운데)과 정각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해 천주교, 원불교 등 지도자단체 2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무원)는 한국전쟁 63주년을 맞아 6월 24일 UN기념공원에서 'UN군 전몰장병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상임고문 정각 스님을 비롯해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무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찬란한 문화를 피우게 된 것은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정전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행사는 헌화, 추모사, 종단별추도식에 이어 UN기념묘지 참배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봉은사 장학회, 400만원 전달

2004년부터 매년 2회 지역 내 장애가족에 지원



봉은사 서산 · 사명장학회는 5월 28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봉은사 서산 · 사명장학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 장애인 및 장애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5월 28일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해 지역 내 장애가족 10명에게 40만원 씩 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2004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장애인 및 가족,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 2생들에게 40만원씩 매년 2회 연간 총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신규 대상자 2명이 포함됐으며 대상자 선정은 지역 유관기관의 추천, 복지관 내 추천을 통해 장학금 후보자를 정하고, 본관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나은 기자

봉녕사, 청춘남녀위한 템플스테이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7월 26~28일 봉녕사 우화궁에서 20~30대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봉녕사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팔관재계 수계식, 마음나누기, 발우공양, 다도, 걷기명상, '사브리나코칭(Design my best life)', 요가, 법문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7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를 참고하면 된다. (031)258-0715

이나은 기자

명상전문가, 힐링 필요한 학생 찾아간다

파라미타,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12월 까지 진행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참여한 의정부 광동고 학생들. 프로그램을 접한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일상의 언행을 돌아보게 되고 대인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등 효과를 보았다는 반응이다.

입시경쟁과 학교폭력 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바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올 12월까지 진행하는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파라미타는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사찰 등 80곳에 명상전문가를 파견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파라미타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잠깐의 일탈과 방황으로 일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소외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무관심과 외부의 강요로 살아온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적 성찰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학습이 부진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여유를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전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불교명상을 바탕으로 △오리엔테이션 △자아탐색 및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마무리 등 4단계 프로그램을 12~16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심화과정 수련회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10시간 동안 전국 권역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올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파라미타는 800명을 모집해 △명상체험(걷기명상, 먹기명상, 호흡에 기초한 명상 등) △내면의 참 나를 찾아서(자신의 언어습관 살펴보기, 마음 다스리기) 등 인성프로그램 기본과정을 복습하고 명상훈련에 집중한다.

현재까지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참여한 학교는 의정부 광동고, 서울공고를 비롯해 전북지역 중 · 고등학교 등 8군데 학교로, 총 400여 학생들이 참여 했다.

프로그램을 접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

전국 초·중·고 및 사찰 80곳에 파견

기본과정 이수자 심화과정 참여가능

명상지도자 추가 모집, 7월 초 워크샵

화를 조금씩 느낀다는 반응이다.

조한곤 파라미타 사무국장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일상의 언행을 돌아보게 되고 대인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의 광동고 교사는 "광동고 자체적으로 미술심리치료,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효과를 본 학생 본인이 직접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참여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현재 명상 · 상담지도 경험이 많은 10여 명의 명상전문가를 확보하고 4~5월, 7~8월 2회에 걸쳐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워크샵'도 진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다수의 명상 · 상담지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워크샵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을 중심으로 지도방안을 배우고 사례를 공유한다.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0명 내외 단위로 선착순 접수하며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조한곤 사무국장은 "참가신청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스트레스 치유 목적' 등 비슷한 목적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해 신청하면 전문강사들이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맞춤형 인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라미타는 명상전문지도자를 모집해 7월 초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워크샵'을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청소년 명상지도 경험 또는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제14회 산사워크샵

8월 17~18일 성림사서,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 초청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불교적 관점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법을 계발하는 '제14회 산사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상담개발원을 비롯해 불교심리치료학회, 불교상담학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8월 17~18일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 진행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데이비드 브레이져(David Brazier)박사를 초청해 '선 상담 치료 워크샵'을 주제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운명과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자비와 동료 감정의 기본적 정서가 심리치료자와 내담자의 만남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데이비드 브레이져 박사는 영국 아미다 트러스트(Amida Trust) 창립자로서 불교수행지도자이자 불교심리치료사 및 임상감독자, 타자중심치로의 공동창시자다. 국제 선치료 연구소(ITZI)를 설립해 영국, 스페인, 벨기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불교심리학에 뿌리를 둔 심리치료와 불교심리학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워크숍 참가자에게는 선치료 연구소(ITZI)와 아미다 아카데미의 기본교육과정과 선치료 · 불교심리학의 전문가 자격증(diploma) 프로그램을 위한 이수시간(2일 10시간) 제공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1차 접수 마감은 7월 19일, 2차 접수 마감은 9월 9일까지이며 참가비는 주최단체 회원 및 스님은 10만원, 일반인은 15만원이다. (02)334-6465

이나은 기자

간화선수행으로 참나를 찾는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2차 간화선 집중수행 실시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제2차 여름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8월 10~16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행된다. 수행 1일차인 10일에는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과 입제 및 화두법문을, 7일차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해제법문이 열린다.

이외의 시간은 자유 수행시간으로, 수행 기간 중 수불 스님의 소참(小參)법문과 점검이 있다.

간화선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선지식 스님의 지도하에 화두를 참구하여 본래 성품을 깨닫는 수행법이다. 간화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맑은 본성을 찾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와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은 20여 년 간 간화선 실참지도를 통해 간화선의 대중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안국선원에서 많은 재가자 및 스님들에게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 안국선원을 성공적인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정착시켰다. 수불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의 소임도 맡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불교정신의 세계적 확산 및 실천적 구현을 위해 2011년 8월 개원했다. 국제선센터는 간화선의 세계화를 목표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요람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해 제 43회(22년 전통)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선무도 명상 테라피」 학교폭력 예방 특별프로그램 ● 승마수련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캠프

▷언 제 : 2013년 7월 21일 ~ 8월 24일
▷모집인원 : 매주 일요일 10시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중학생 = 매주 100명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모자, 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게임기 휴대금지)
▷접수 및 문의 : 054)775-1689 / 054)77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5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교양수업 : 문화관광 (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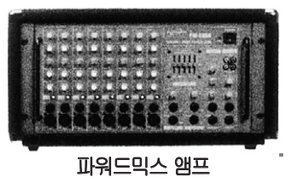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4만명(외국인 참가 7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 사관학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고성능 탁상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장애자녀양육, 불교계 복지관에 맡기세요

부모자조모임 · 가족야외활동 타악공연 · 댄스파티 등 다채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더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계 복지관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학교'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지적 ·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창작타악, 난타 등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특기를 개발시킨다.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관, 02-915-9200)은 '내 마음의 두드림' 프로그램을 실시, 장애청소년을 둔 학부모에게 부모역할기능 향상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자녀를 대상으로 창작 타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매주 월요일 복지관에서 △의사소통 교육을 통한 가족 이해(강명선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강사) △장애자녀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황윤의 성남방송고등학교 특수교사) △내 자녀의 성 이해 및 성교육 지도방법(탁틴내일 성교육 장소현 강사) △발달장애인지원법 교육(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노석원) △애니어그램 등을 활용한 부모집단상담(한국레크리에이션치료 강사 이범석) △장애수용과 생애주기별 부모의 역할(한국자폐인사랑협회 남영 이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는다. 강사진은 대부분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 마음의 두드림' 프로그램을 실시, 장애청소년을 둔 학부모에게 부모역할기능 향상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자녀를 대상으로 창작 타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자녀를 둔 김희진(48 · 성북구)씨는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다. 자녀 성교육 지도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은 몰랐던 아이의 성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장애자녀와 부모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 아쉬운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유익할 때가 많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적 장애자녀를 둔 주옥순(55 · 성북구)씨는 "교육 후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개인별 양육 법을 공유해 도움이 된다"며 "장애자녀양육으로 힘들어 하는 엄마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들이 모이는 동안 자녀들은 주2회 복지관에서 타악기와 음악치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스틱으로 북을 두드리고, 온몸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창작타악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세옥 사회복지사는 "장애청소년은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측면에서 소극적이면서 공격적인 관계유형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성북구 내 장애인복지관은 한 곳으로 장애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가운데 창작타악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사회복지사는 "부모교육과 같은 경우 지역 내 타 기관에서 단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모학교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 031-201-8300)은 매년 6월과 11월 장애청소년 학부모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장애청소년 학부모간담회'와 '사랑의 학교 학부모간담회'를 진행하며,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진화, 02-989-4215)은 연중으로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장애아동 부모아카데미', '부부의사소통증진 프로그램', '아버지 지원 프로그램', '가족댄스파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 형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아동의 초등학생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야외활동과 문화체험 및 집단상담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 02-421-6077)은 '한(一)'소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13~18세 지적 · 발달장애 청소년과 청소년 학부모 및 비장애 청소년이 타악공연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는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가족 파이팅'을 진행해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아동 가정의 가족들이 야외활동을 함으로써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정부 복지정책 사회통합 가능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일 불교사회복지포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지난 가운데, 현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고민 · 토론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경구(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그 해법을 찾다'를,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민연금과 국민행복연금의 과제, 그리고 미래를 묻다'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다문화가족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메일(woeks48@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양용은 골퍼 지인들 백만원 전달

화개사 주지 윤진 스님도 30만원 전달…동행 "6억원 모여"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가운데)과 박경구 무백회 회장(왼쪽)과 김광식 배우(오른쪽)은 6월 27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실에서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선포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국 스님과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모아 자비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양용은 프로골프 선수와 지인들의 모임인 무백회(회장 박경구)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실에서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에 써 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다.

무백회(舞白會)는 자승 스님이 양용은 골퍼에게 지어준 법명으로 양용은 골퍼의 지인 및 선후배 15명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무백회 회원이자 불자인 배우 김광식 씨는 "자장면 배달부이면서 기부를 통해 선행을 실천했던 故 김우수 씨의 생애를 담은 이야기 연극 '행복배달부 우수씨'에서 故김우수 역을 맡았다"며 "공연을 하면서 그의 일대기에 감동을 했고, 우수씨가 아동청소년들을 도왔던 것처럼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돕고자 불교계 대표 모금단체인 아름다운동행에 회원들과 의논해 모금액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박경구 무백회 회장은 "오는 10월 초 국내에서 양용은 선수와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십시일반 모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화 화개사 주지 윤진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들러 30만원을 기부했다. 윤진 스님은 "외부의 소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종단에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꾸준한 모금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약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며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셋트 5만원, 땅 한 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동참할 수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7-9595

이나은 기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홍보단 발족

어르신 30명 사진촬영, 홍보물 작성 법 배워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시니어 홍보단을 발족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복지관은 "5월 29일 시니어 홍보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니어 홍보단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 홍보단 '시니어.NET'은 중구 내에서 시니어 홍보단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 30명을 선정해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진촬영교육을 통해 사진을 찍는 방법과 사진기를 다루는 방법 등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 교육은 포토샵 등의 컴퓨터 전문교육을 통해 직접 홍보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홍보단 '시니어.NET'은 중구 내에서 시니어 홍보단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 30명을 선정해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니어 홍보단에서 홍보물 제작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심진흥(가명, 65) 어르신은 "요즘 포토샵을 배우면서 이것저것 활용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져 앞으로 교육을 다 이수한 후에는 중구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소식을 알리는 멋진 홍보단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출품작 공모

서울노인복지센터, 7월 31일까지 접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열리는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를 위한 출품작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7월 15~31일까지이며 자유주제 · 노인주제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자유주제 부문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연출한 15분 내외의 영화라면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응모 가능하다. 만 6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주제 부문은 노인 세대와 노인 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http://sisff.tistory.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대상 1편 300만 원, 우수상 1편 2백만 원, 장려상 2편 50만원으로 총 6편의 작품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제6회 서울 노인영화제 포스터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가 영화를 직접 제작하면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노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르신과 젊은 감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02)739-9501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2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지혜는 누구에게나…분별 벗어날 때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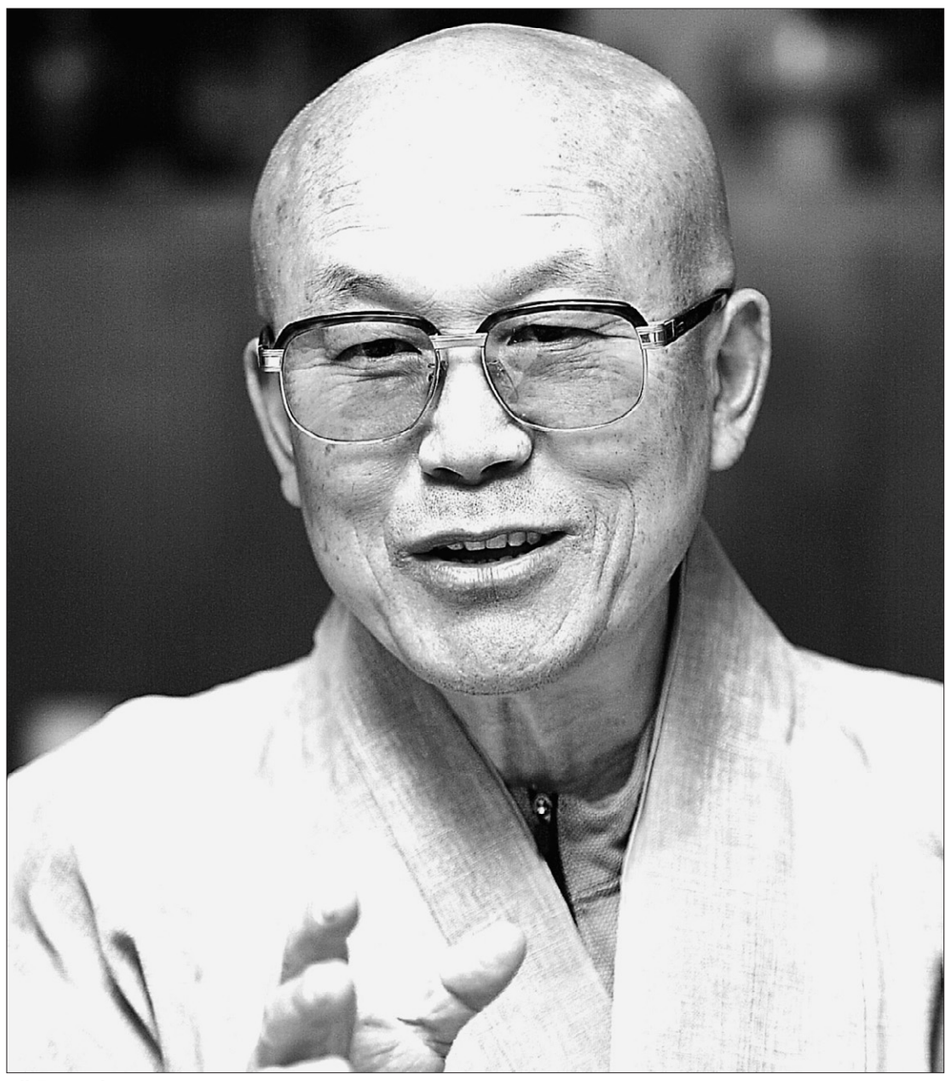
正見

길상사 일요 초청법문

대효 스님(안성 활인선원장)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지어낸다.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좋고 싫음’ 등.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객(主客)의 대립, 상대적 차별심, 그리고 무엇인가를 안다는 ‘분별의식’에서 벗어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는 안성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은 6월 23일 서울 길상사에서 초청법문을 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지혜는 있다. 그러나 ‘나’를 바로보고 ‘안다’ ‘모른다’를 넘어야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설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배현진 수습기자**



대효 스님은 … 1968년 문경 김용사에서 득도했다. 스님은 김룡사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76년 ‘선수련회’를 열기 시작한 대효 스님은 제주 원명선원에서 30여 년간 재가불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후 2008년 안성시 죽산면에 활인선원을 개원해 선회 수련회, 단기출가 등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하고 있다.

나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부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모를 보고 부처를 보지 말라, 소리를 듣고 부처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가치를 따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하면 밥이 나옵니까, 술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법회에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술이 나옵니까.

아마 이 말 속에는 밥과 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밥과 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잠시 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을 발효시키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술지게미’라고 하죠. 우린 무엇을 먹습니까. ‘술지게미’와 ‘술’ 중에서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술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잘못 보면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술을 선택하지 않고 찌꺼기를 선택하겠죠. 여러분은 술을 선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찌꺼기를 선택하는 쪽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술을 선택하는 쪽을 술파, 찌꺼기를 선택하는 쪽을 찌꺼기파라고 해봅시다.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처님을 음성으로 들으면 ‘찌꺼기파’일 것입니다. 우리는 ‘술파’로 가야합니다. 여러분은 술파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술파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찌꺼기 파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국에서는 불교의 가장 뛰어난 수행으로 참선을 손에 꼽습니다. 한국의 중심종단인 조계종은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선종(禪宗)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참선에는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최상승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선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안다면 찌꺼기 파에서 술파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불자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을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나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혹은 ‘이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불교는 나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났다’란 생각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얼굴을 가장 많이 바꾼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갖추어지면 스스로를 바꿀 필요도 못 느끼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신 자신에게 혹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껏 기도를 계속 해오셨을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보게 해 달라고 빌 수는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게 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삶을 바꿀 수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을 누린다는 것은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법회에서 ‘보는 것’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는 자신을 바로 보는데서 출발
참선 꾸준히 하면 찾을 수 있어
지혜는 행복할 수 있는 길 알려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만족 유무’에

“알 수 없음”이란 마음을 뛰어넘은 자리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불심천자(佛心天子)라 일컬어지는 황제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짐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것, 이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무엇이냐”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그 말뜻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전, 당시 양무제는 재정이 기울정도로 사찰을 세우고 도제양성을 하면서 불교에다 국가재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이렇게 많은 공덕을 베풀었는데 그 공덕이 어떻습니까”라고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공덕을 베풀었다는 것, 여기에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베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공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십시오. 30~40년 같이 사니까 속된 말로 창자 속까지 모든 것이 다 보이나요. 이게 좋게 보인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좋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양무제는 “짐이 누구냐”하고 물었고, 달마대사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는데, 달마대사는 지혜가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알 수 없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말한 ‘알 수 없음’은 ‘안다’ ‘모른다’의 상대성이 아니라 마음을 뛰어 넘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창자 속까지 다 보인다고 했죠. 그럼 이것은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보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창자 속은 늘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같이 살아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무제의 공덕과 같습니다. 정성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신랑이 월급날이 되니 월급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너무 얇았습니다. 그럴 때면 매일 차리는 밥상도 차리기 싫어지고 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에도 변화가 옵니다. 밥상을 차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한테 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아니죠? 왜냐. 나는 그 사람에게 바친 것이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정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무엇에 좌우되느냐. 부처님에 좌우된다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신에 좌우된다고 해서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보는 데 좌우될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가,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지혜고, 지혜는 보는 것 [正見]

사람들은 “나는 지혜가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볼 줄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니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면 지혜를 바로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높고 낮다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혜가 낮은 것입니다.

‘불법(佛法) 안에서 죄업이 없다’고 하는데 죄업은 있습니다. 옥의 티만큼 말이죠. 옥의 티,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가 옥의 티도 되지 않을 만큼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십시오. 보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르는 것이 상위개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지혜가 높은 것입니다.

옆 사람 창자까지 보인 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본다는 것, 지혜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지혜고, 지혜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보는 것입니다.

법문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글을 읽더라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지혜와 덧붙여서 법문을 봐야 합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서산·의승군 제향 국가차원에서 기려야"

국회에서 열린 대흥사 · 불교사회硏 세미나서 대중 목소리

"임진왜란 당시 국토를 수호했던 서산대사와 의승군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호국 의승군의 날(가칭)'을 지정해야 한다."

국난의 위기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던진 의승군에 대한 국가차원 기념일 지정 등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산대재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등에 국가제향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을 주관했다"며 "이러한 국가제향의 전통을 복원하려면 국가기념일 지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남북공동 제향 및 기념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하고 이를 위해 북한 불교계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인선 순천대 교수도 "임진왜란 때 전사한 약 5000명의 의승군을 추모하기 위한 '호국 의승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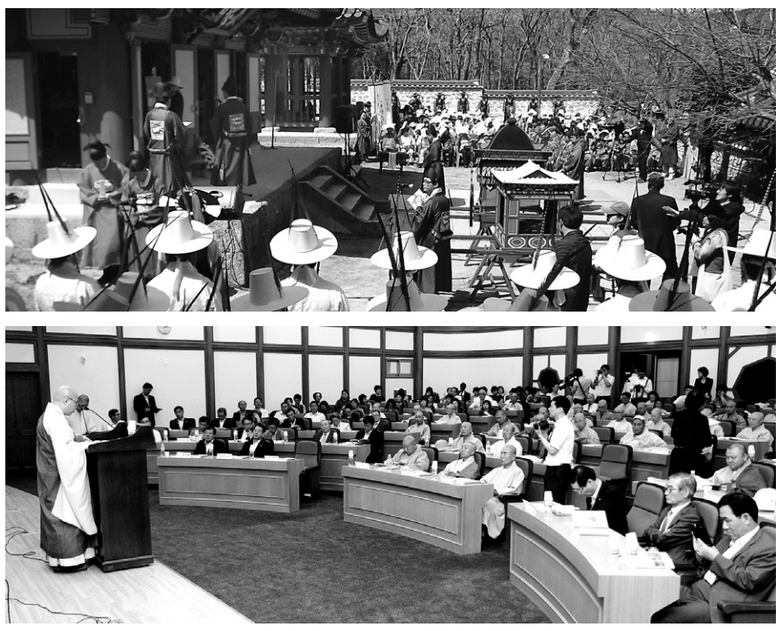
최 교수는 "조선은 '서산대사가 궐기한 것은 나라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에서 스님을 받드는 것은 충성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호조판서의 설명을 통해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을 주관했다"며 "이런 국가제향의 전통을 복원하려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의승이 궐기한 7월에 맞춰 의승 전체를 포괄하는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합동 제향을 열 것도 제안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표충사 춘추 제향 설행의 역사와 의의'에서 "현행 교과서 6종 중 의승군 관련 내용이 빈약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별 의승장 명칭을 표기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前성균관대 교수도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에서 "임진왜란에서 실질적으로 왜군을 격퇴한 주력이 바로 의승군"이라며 "전란 이후 축성과 둔전 등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를 기리는 국가제향은 19세기 이후 중단됐다"고 말했다.

19세기 제향 끊겨, 교과서 기술 누락
국가제향 봉행 및 의승군의날 지정
국회의원 앞에서 필요성 역설



2012년 열린 서산대사 탄신 429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재(위)와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산대재 세미나.

불교계, "국가제향 복원 시급"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한국불교는 그 면면에 호국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한국불교가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가와 민족 공동체 수호에 참여한 것은 세계사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호국불교 기념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향적 스님도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선 서산대재의 국가제향 복원 및 의승병의 날 지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호국대성사인 서산대사의 제향이 국가 제향으로 온전히 복원되길 기대한다"며 "북측 묘향산 수충사에서의 제향도 봉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산대사가 입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올 하반기에 서산대사 제향을 거행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윤 정각회장과 前민주당 대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 김장실, 송광호, 추미애, 주호영, 최재천, 송호창, 임수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국가제향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박철환 해남군수 외에도 박희재 군의회 의장과 7명의 군의원 등 지역계에서도 참석해 했다. 또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 등 스님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대중화 이룬 남북조 연구에 힘모으자"

6월 22~24일 한·중·일, 중국서 불교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일본 동양대, 중국 인민대와 공동으로 6월 22~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에서 '제2회 한중일 3국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 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2012년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3개 대학이 10년 장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첫해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의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남북조 시대에는 왕실 · 상층부 불교가 민중으로 전파됐다"며 "불교의 사회 · 사상적 변화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특히 석각(石刻)자료 등 문헌 연구에 3국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의 '법상 〈십지론의소〉「가분」석의 삼종진에 대해서', 김성철 HK교수의 '종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 하유진 HK연구교수의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 본 열반사의 불성의'가 발표됐다.

또 중국 장쉬에송(張雪松) 교수의 '군주가 곧 현재의 여래의 숨은 뜻 해명', 쉬엔광(宣方) 교수의 '거울 속의 꽃 〈구나발마〉전 재검토', 일본 오쿠노 미츠요시(奧野光賢) 교수의 '길장 교학과 진제삼장', 칸노 히로시(管野博史) 교수의 '광택사 법운의 법화경관', 쿠라모코 쇼오토쿠(倉本尚德) 교수의 '용문 북조소당 조상명문에 보이는 정토신앙의 변용',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교수의 '정영사 혜원의 삼불성과 이종성'이 발표됐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세미나에서 한중일 3국의 남북조불교연구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 성과물을 2014년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중 불서 올해도 3종

2012년부터 급격히 줄어… 종교 8종 중 전무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27일 최종 선정한 2013년도 '우수학술도서' 221종 가운데 불서가 단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8종, 2009년 8종, 2010년 6종, 2011년 9종에서 2012년 3종으로 크게 준데 이은 것이다.

특히 종교분야 우수학술 8종 중 불교주제는 단 한 것도 없었다. 불교 주제 학술서로는 철학분야의 △불교와 무의 근대(김영진, 그린비), 역사분야의 △고려후기의 불교(윤기엽, 일조각 - 역사) △한국의 석등(박경식, 학연문화사 - 역사) 등 3종이다.

선정분야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아동청소년 등 11개 분야로 총 4089종을 심사해 386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도서를 1200만원 상당 구입해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10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미얀마 바간유적에 장비 지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3일 미얀마 국립 바간고고학박물관에서 장비 기증식을 열고 한국 장비를 활용한 바간 유적 보존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미얀마 문화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된 장비는 미얀마 측에서 요청한 유압식 고소작업대, 환경모니터링 장비, 세척기 등 바간 유적 보존 · 복원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미얀마 문화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간 유적의 보존 ·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바간(Bagan)은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에 하나로, 2500여 개의 탑과 사원이 존재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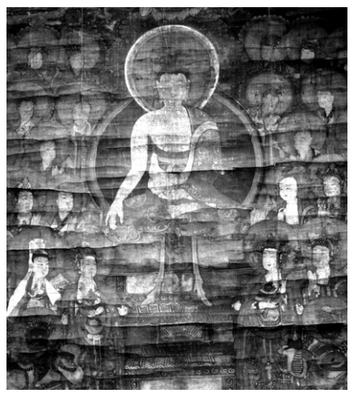
'석가영산회도' 8억 3000만원에 경매

서울옥션, 6월 26일 미술품 경매서

임진왜란 때 약탈됐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전기 불화 '석가영산회도'가 6월 26일 서울옥션 경매에서 8억 3000만원에 낙찰됐다.

석가영산회도는 1592년 장호원 석남사에서 조성된 불화로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에 조성된 것으로 왕실 상궁이 발원한 작품이다.

석가영산회도는 일본 교토 한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주승진 '고미술연구소 무유헌' 대표가 매입해 한국에 들여온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지난 5월 국내로 들어온 석남사 석가영산회도

한국불교학회 월정사와 공동 워크숍 개최

8월 19~20일, 〈한국불교학〉 66집 7월 5일까지 모집

한국불교학회가 월정사와 공동으로 8월 19~20일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2013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70명 선착순 마감이다.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여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제1차 학술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7월 5일까지 〈한국불교학〉 제66집에 게재할 원고 모집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불자외국인 위한 노래한마당 열린다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 7월 10일 쉼터 마련을 위한 음악회

불자 외국인근로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7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어라'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BBS방송진행자 정목 스님을 비롯해 가수 안치환, 천음실내악단 등이 나서 쉼터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탠다. 또한 이번 음악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다 최근 입적한 범능 스님의 노래 영상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행사를 준비 중인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 공연은 이주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용 쉼터 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불교적 보살핌을 받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쉼터 공간을 통해 스님들과의 상담, 신앙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저녁 7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사회로 범능 스님의 유작앨범인 '나 없어라' 영상음악이 상영된다. 이어 정목 스님 이야기와 동요, 가수 안치환 공연, 천음실내악단 연주 등이 진행된다. 정목스님은 이야기와 동요를 통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치유의 명상음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목 스님 · 안치환 등 나서
쉼터서 법률 · 신행상담 진행
다문화 자녀 교육도 병행


광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연등초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작은 쉼터 개념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주거공간과 휴식처다.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운동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 각국 전통문화 활동으로 고국 친구들과 소통하는 장소도 제공된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곳은 공단과 도시, 농촌의 접경지역으로 향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정서 인성교육과 부모교육, 취업상담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2006년 10월에 광산구 비아동에 개설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법률상담(이직, 폭력, 임금체불, 의료)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미술교실, 만들기, 학습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현재 센터에는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몰골 등의 다양한 이주여성 600여명의 외국인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광사,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신광사가 호국영령을 천도재를 개최했다.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는 6월 21일 경내 대웅전에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전홍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시지부(회장 염연자) 회원 80여명,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천도재'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신광사는 2001년 11월 광주지방보훈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6월마다 추모천도재를 지내오고 있다.

경주 스님은 "영령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탑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는 참 생명을 찾아가는 종교로, 애국지사가 남을 위해 희생한 것 또한 참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위령제는 오늘날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정전 60주기를 맞아 이번 천도재가 국민들에게는 보훈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포교사단, 예비포교사 교육 진행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6월 2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예비포교사 포교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김진수 전문포교사와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포교활동의 이해, 불교교리실천(복지) 이해, 스피치 이론, 불교의식(목탁) 습의, 분야별 현장포교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총 35명의 예비 포교사를 배출한 전북지역단은 예비포교사들에게 월 1회 이상의 사회봉사활동과 사찰봉사활동, 염불봉사활동, 자체의식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과정을 거친 예비포교사들은 9월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는다.

한편 전북지역단 군 포교팀(총괄팀장 이성강 포교사)은 전북 임실의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에서 부대안전기원 및 호국영령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성강 포교사는 "부대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법회를 마련했다" 며 "전 장병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선왕조 실록 지킨 희묵 대사 기리며

내장사, 6월 22일 희묵대사 · 충의사 추모다례재 봉행


정읍 내장사에는 200여 명이 모여 희묵 스님과 의승군을 추모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 경기전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내장산으로 이안하고 수호한 승병장 희묵 스님과 안의 · 손홍록 등 충의사들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재가 6월 22일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선운사 회주 법현 스님, 벽련암 대우 스님, 진공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과 김생기 정읍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익규 정읍시 부의장, 이석문 정읍교육장, 안의 · 손홍록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상단불공과 영산작법, 희묵대사와 충의사 행장소개, 헌다, 헌향, 봉행사, 추모사 등이 진행됐다.

지선 스님은 봉행사에서 "충의사 후손들과 협의하여 당시의 정읍 선비들과 희묵 스님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이 수호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 17만 2000여 가지의 일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으로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있다. 실록은 전란 중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소실됐지만 전주사고 실록이 남아 왜란 후 다시 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심으로 노래하며 함께 소통해요"

백양사,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열린법회 화제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도 음악회에 참여해 노래와 함께 따스한 말을 전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른 봄 돋아나는 푸르른 잎파리는 겨우내 머금은 눈물이었구나"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의 글에 인디언수니가 곡을 붙여 만든 '그랬구나' 노래가 6줄의 기타 선율에 맞춰 백양사 안마당에 흐른다. 콘서트 장의 장면이 아닌 백양사 우화루에서 열린 일요열린법회의 모습이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 일요열린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야기음악법회로 수안 스님과 광주에서 활동 중인 가수 인디어수니가 음악과 불교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날 법회에서 수안 스님은 자신이 만든 노래와 노래에 얽힌 불교이야기를 90분에 걸쳐 풀어냈다.

수안 스님은 노래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으며, 도리어 내 자신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라고 강조하며,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서로 어울리며, 이야기하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자 음악법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의미를 설명했다. 법회가 열리는 우화루는 200여 평의 공간에 불교문화 갤러리, 전통차 시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전주 금산사(주지 원행)는 6월 28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7년 계사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금산사 부주지)은 92명의 동참 스님들에게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는 보제루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산중총회 개최, 전주연꽃촬영대회 개최, 연꽃축제 봉행, 어린이 여름수련대회 개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차기 주지선출을 위한 금산사 산중총회는 8월 22일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기불교문화원, 왓붓다랑시 서울법당 개원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은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국불교 세계화 단체인 왓 붓다랑시 한국지부 서울법당 개원식을 개최한다. 경기불교문화원과 호주 왓붓다랑시는 4월 8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개원식에서는 태국 스님 40여명을 비롯한 태국 불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031)298-9998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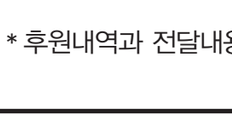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국제포교로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어느덧 150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포교만큼이나 국내 외국인 포교활동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시기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언어소통능력과 불교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포교사들의 몫이다.

지난 6월 16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경내에는 천연염색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주변으로 분주한 한국봉사자들도 눈에 띈다. 이들이 바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불자들로 구성된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회원들이다.

홍법사의 제178차 외국인문화알리기 행사는 어느덧 한 가족 같고 고향 같은 평화롭고 웃음꽃 가득한 모습이었다.

캐나다에서 와서 현재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스테파니 씨는 "부모님과 떨어진 지 오래지만, 홍법사가 어느덧 고향 같고 가족 같은 곳이 됐다. 매번 한국과 한국문화를 친절하게 안내 해 준 국제포교사 분들께 감사하다"며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 템플스테이를 신청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들의 안내로 처음 참석하게 된 멜로니(미국 뉴멕시코)씨는 "천연염색 과정은 너무 어려웠지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들은 매우 흥미로워 한국의 색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됐다"며 "많은 분들과 친구가 되었다. 또 흥미로운 문화체험을 하게 돼 행복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이 모임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는 6월 16일 부산 홍법사 경내에서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주최했다. 참여 외국인들과 국제포교사회 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있다.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는 "고향을 떠나보면 누구나 힘들고 외롭듯이 말조차 통하지 않는 먼 이국에서의 생활은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내민 손은 어쩜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불교를 전파하기 위함 보다 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벗과 교류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전통문화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항상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체험 등 행사 다채
외국어 가능 '봉사 요청 쇄도'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는 2010년 1월 창립하여 현재 40명의 국제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가능해야 하기에 회원수에 비해 봉사의 범위와 불교계의 요청이 쇄도해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매월 정기행사인 홍법사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문화알리기 행사를 비롯, 외국인 템플스테이, 어린이 영어법회, 불교영어법회, 부산연등축제와 팔관회 등 각종 외국인 초청 행사에 통·번역 및 안내,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사찰 안내판 번역, 국제포교사 양성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두석 회장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시대에 부응하는 많은 국제포교사들의 양성이 간절한 시기"라며 "뜻 있는 분들의 참여와 도전과 발심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한반도평화대법회 성공기원 백일기도 입재

6월 25일 통도사 설법전서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법회의 성공기원을 위한 백일기도입재식이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6월 25일 한국전쟁기념일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 한반도평화대법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법회의 성공기원을 위한 백일기도입재식이 6월 2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지원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첫째, 전쟁의 공포를 불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둘째,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장병들 추모, 셋째, 세계빈곤 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 국론을 통일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헌다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봉행사, 기조연설, 대회사, 기원문 낭독, 통일발원문,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지사장**

달구벌 관등놀이 시민들 '만족'

대불총 평가회 · 결산


대불총 평가회

대구불교총연합회(이하 대불총)는 6월 21일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평가회'를 갖고 행사를 결산했다. 이 자리에는 각 종단 대표자 소임 스님과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총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만 13세 이상 관람객 593명을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조사한 행사 종합 만족도는 72.6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조계종 수계법회…석불사서

총신도회장 보현행 임명


원조계종 수계법회

대한불교 원조계종 총무원(종정 일선 동암)은 경남 고성읍 석불사(주지 정률)에서 6월 27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갈마 아사리 법철 스님, 교수 아사리 일공 스님, 정례 대화상 자강 스님, 유나 정수 스님, 인례 명승, 법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신도회장으로는 대구 동구에 보현사(주지 보광스님, 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보현행(신명순)보살이 임명됐다.

법철 스님은 "전통수계의식과 함께 받은 사미 십계명을 평생 스승으로 받들고 인생을 살면서 수행정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에서 지나친 노출은?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적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주된 원인이 된다.

여름이 되면 산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락공간으로 변한다. 사찰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신앙활동을 위해 사찰에 온 불자들에게는 휴가를 목적으로 사찰주변의 자연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된다. 행락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 혼잡,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사찰의 주차장,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사찰주변의 산과 계곡, 유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은 여름철 사찰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찰주변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찰구경은 중요한 문화향유에 해당된다. 이들은 홀로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찰을 찾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여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이다.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에 소매가 없는 셔츠를 입은 것도 모자라 슬리퍼를 질질 끌고 일주문을 들어선다. 사찰이 엄연히 스님들과 불자들의 수행환경이고 성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사찰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 눈에는 사찰이 또 하나의 행락공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은 반바지나 짧은 치마같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사람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태국의 에메랄드사원이나 미얀마의 쉐다곤파고다 역시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에게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 법, 승 삼보를 모신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왜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사찰을 찾게 될 경우 사찰이 함유하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훼손되며,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는 커다란 실례가 된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문화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한없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부디 이번 여름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많은 이들의 수행공간인 산사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과도한 노출은 수행환경에 해가 된다. 특히 참배객들이 노출 심한 옷차림으로 사찰을 찾게 될 경우 수행자들에게 큰 무례를 범하게 된다. 서울시 ㅈ사찰의 참배객 모습

(주)예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미륵고개·관음산이 포화의 아픈 흔적 달랜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 ④ 포천 호국 금강사


관음사 자락에 금강역사와 같이 우뚝서있는 호국 금강사. 군법당으로는 대형사찰에 속한다. 북한 자극 문제로 6월에 열려온 위령대재는 10년만에 6월 25일 열려 의미를 더했다.

한국전쟁 종전 60년과 5군단 창설 60년을 맞은 6월 25일 포천의 한 사찰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5군단 군단 군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열리는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30주년을 맞았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남과 북이 함께 치유하고 화합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이날의 행사와 호국 금강사를 둘러보았다.

포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25 호국 영령 위령대재 30년
16개국 150만명 고혼 천도
영단에 북한·소련·중공군 위패도

한국전쟁의 총성은 멎었지만 접경지역에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짙은 아픔이 흐르고 있다. 전쟁의 포화가 빗발쳤던 흔적이 남아있는 포천 지역은 한국전쟁 직전만 해도 남과 북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전쟁 이전 북측에서 닦았다는 여우고갯길 등 그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생생히 분단의 아픔을 전한다.

이런 포천 지역에는 미륵고개 관음산 약사동 용화동 등 불교 명호(名號)와 연관된 곳들로 둘러싸여 있는 뜻깊은 공간이 있다. 바로 호국 금강사다.

왜 불교 명호가 호국 금강사 인근에 많을까. 바로 호국 금강사가 위치한 곳이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선열이 잠든 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증거다.

계속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다는 오뚜기 부대(8사단)가 지키는 포천 일동을 지나면 호국 금강사의 일주문이 외로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는다. 호국 금강사에는 별다른 전각이 없다. 많은 군장병들과 군수차량을 수용 가능한 앞뜰과 대웅전과 3층 석탑이 전부다. 하지만 금강역사와 같이 우뚝 솟아 있어 그 어느 사찰보다 사찰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강건하다.

불자 정동호 장군 발원으로 창건

1984년 창건된 호국 금강사는 당시 5군단장을 지낸 故정동호 장군이 산파역할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내고 1984년 5군단장으로 부임한 故정동호 장군은 독실한 불자였다.

정 장군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실현하고 6·25참전 16개국을 포함한 전몰장병 150만 명의 고혼을 천도하자"는 취지로 부임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호국위령재를 준비한다.

그 해 11월 28일 현재 호국 금강사가 위치한 자리에서 첫 번째 호국영령 위령재가 열렸다.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됐던 1980년대 최전방 지역에서 열린 첫 호국영령 위령재에 불교계의 관심은 컸다. 위령재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참여했으며 1만여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세버스만 400여대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다. 1985년 6월 6일에는 밀운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 호국 금강사 3층 석탑에 봉안해 의미를 더했다.

호국 금강사에서 열린 위령재가 다른 위령재와 다른 점은 북한·소련·중공 등 우리 산하에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까지 극락왕생을 발원했다는 것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은 불교의 자비는 이런 행사를 가능케 했다.

호국 금강사 영단(靈壇)에는 지금도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전몰영가의 위패와 함께 북한군과 소련군, 중공군 등 적으로 참전했던 국가의 전몰영가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본래 호국금강사 법당은 1970년 12월 부대 영내에 지어졌다. 하지만 그야말로 구식 내무반을 개조한 것이어서 법당이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1985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 35주년을 맞아, 위령재가 열린 자리에 호국 금강사 신축법당이 준공됐다. 호국금강사의 발전에는 여러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호국 금강사 법당 내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불사 시주자 명단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스님들을 시작으로 한진그룹 쌍용그룹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육군참모차장을 끝으로 전역했지만 故정동호 장군은 호국 금강사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전역 후에도 위령대재 봉행위원장을 맡고 중창 불사 등에도 앞장섰다.

정 장군의 작고 후에는 '군포교 대부'로 불리는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아 호국 금강사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다. 현성 스님은 1984년 경6사단 호국 청원사 불사를 추진하며 정 장군과 인연이 닿아 호국 금강사 창건에도 기여했다.


외로이 군장병을 반기는 금강사 일주문.



호국 금강사에 모셔진 참전국 영정위패.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사진 왼쪽)이 금강사 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국 금강사의 선연은 대를 잇고 있다. 부처님오신날마다 장병들의 먹거리를 지원한 포천 마태사 보현 스님이 입적하자 상좌인 재화 스님이 현재도 호국 금강사를 돕고 있다.

군종특별교구와 포천사암연합회(회장 법해, 왕산사 주지), 가평사암연합회(회장 승원, 백련사 주지)도 틈틈이 힘을 보탠다. 법당 개보수 불사는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과 이천 영월암 주지 보문 스님이 기여했다. 역대 군승들의 기여도 컸다. 수많은 역대 군법사들이 진행한 중창불사로 현재 사격을 지니게됐다. 현재는 27대 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가 법당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호국 금강사 위령대재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함께 하는 종단 차원의 행사였다. 호국 금강사를 찾은 불자들의 발길도 잦았다.

하지만 2000년부터 매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봉행되는 호국영령 천도법회가 자리를 잡으며 위령재의 규모가 축소됐으며 자연스럽게 여러 행사도 줄었다. DJ정부를 거치며 북한 측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위령대재는 6월 25일에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주변보기

▲**찾아가는 길:**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동 방면→47번 국도→베어스 타운 방면 진입→수입교차로에서 신철원, 운천 방면→삼팔교사거리에서 운천, 이동 방면 우회전→372번 지방도로→낭유교에서 산정호수 방면 좌회전→노곡리



▲**볼거리:** 포천에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특히 산정호수 근처에는 억새밭 체험장, 호수보트 등이 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031-535-6494, 성인 입장료 6000원), 포천아트밸리(031-538-348, 모노레일 체험 가능 4500원), 포천 한탄강 래프팅(031-540-3131,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 평강식물원은 관람객의 연령에 따라 '녹색수업'을 운영한다. (031-531-7751, 입장료 8000원).

▲**먹거리:** 포천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동갈비와 일동막걸리이지만 산채정식도 특별하다.

산정호수 인근에는 300명까지 수용가능한 대우식당(031-532-6148)이 있다. 산채정식 및 비빔밥 전문이다. 갈비는 김미자할머니 갈비집이 가장 유명하다.(031-531-4459), 산정호수 주변에는 송어회도 맛볼 수 있다. 우리송어양식장 횟집(031-531-6606)



▲**숙박:** 인근 산정호수에 괜찮은 숙박시설이 많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는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했다(1588-2299), 다양한 펜션과 함께 최근 각광받는 캠핑 또한 체험할 수 있다. 포천 캠핑라운지(010-4761-1145), 포천 일동 메가오토캠핑장(070-7500-4510)

청담 ART 십이지상 천연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本人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연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양띠

말띠

本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스마트폰으로 QR Cord를 찍으시면 회사소개와 황옥에 관한 많은 정보 및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ongdamartworld.com
상담문의 : 031-912-7114
名黃家玉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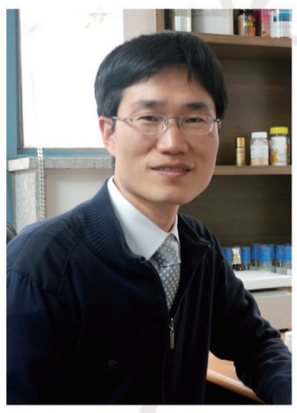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산삼배양근, 장뇌삼 등은 산삼 흉내일 뿐
산삼과 100% 동일한 효능은'산삼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 일치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 '셀원'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 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하지만 이는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산삼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유전적, 후생 유전적변이 발생으로 인해 최종 산물변이 발생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삼의 잔뿌리만 배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호사를 누려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산삼의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
- ☑ 새로운 활력을 원하시는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실시!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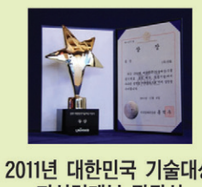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혈당조절 위·간 보호 등에 탁월!

'셀원'의 기술력!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셀원' 에 담긴 원천기술은 2010년 10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 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학계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일의 식물줄기세포 원천기술로서 국내·외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그 기술적 성과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증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문의전화 080-810-8100

자신이 깨달은 것 모두에게 주고 싶어한 선지식



方山老의 無影樹 〈19〉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검찰청 부산 · 대전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역임

동국대 입학이 인연의 시작
스님 강의듣고 '불교' 제대로 알게돼
연수원교수시절 모임 '다르마' 권유
'인재양성' 스님께 받은 가르침
'탄허 장학금' 제정되었으면…

-총장님도 탄허 스님과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우선 불교인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고향이 경북 청도의 매전면입니다. 부모님이 불자라서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금천초등학교에 다닐 적에는 인근에 있는 고찰인 운문사와 대비사에 소풍을 가서, 어린 시절부터 절에 대한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총장님은 1968년 동국대에 수석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허 스님의 인연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제가 1968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그해 5월인가 그랬는데, 탄허 스님이 동국대 중강당에서 하였던 금강경 대강연을 들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두 시간 정도 열여섯 번인가를 강의하였는데 제가 그 강의를 다 들었어요. 금강경이 32품인데, 하루에 두 품씩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주로 대학교수, 교직원, 서울에 사는 신도들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에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선배들도 안 들었는데, 저 혼자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스님은 동국대 대학선원장이었습니다. 대학선원은 지금의 제일병원 자리, 명성여고가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죠. 저는 그때 교재로 나누어 준 금강경 책을 아직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탄허 스님의 강의를 들은 소감이 어땠는가요?

스님의 강의를 들으니깐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스님은 강의를 하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시고, 충격을 주어서 생각을 깊게 하고, 불교 이외의 것도 생각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중강당의 반이 찰 정도로 청중이 많이 왔어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스님의 강의를 듣고, 불교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의 본질에 대하여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선을 하면서 오는 느낌처럼,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경전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게 되었지요. 그때에 보니까 스님은 분필을 갖고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불교에 대한 어떤 내용도 막히는 것이 없으시더라구요. 불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책을 보지 않으시고, 거의 외워서 하셨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해 주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까, 에너지 같은 것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스님의 그런 인상이 남아 있지요. 하여간에 저는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교에 대한 상식, 이해는 모두 스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의 이후에 탄허 스님을 대학선원으로 찾아뵙지는 않았는가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승, 큰스님이면서 대학선원장이셨고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기에 감히 찾아갈 생각은 못하였지요.

-탄허 스님은 동국대 이외에도 여러 절에 계셨는데, 학교 밖에서 만나시지는 않았는가요?

학교 밖에서 만나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1976년에 사법고시에 붙어서 검사가 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상원사 보궁을 가서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스님의 거처인 월정사 법당 뒤에 있는 방산굴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검찰청에 지청장으로 있을 때에는 스님 생각이 간절해서 스님이 계셨다는 유성의 자광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총장님이 학교를 다닐 적에는 대불련 활동이 본격화될 때인데, 참여하셨는가요?

저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권유는 받았지만 저는 대학 2학년부터는 제 전공인 법공부에 주력하였기에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였어요.

-총장님은 197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였는데, 그때 사찰에서 공부하시지는 않았나요?

했지요.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해인사 홍제암, 청계사, 회암사, 인휴사 등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1970년대 중반,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요?

그거야 스님의 근황, 대담이 보도되면 주의 깊게 그 기사를 읽었지요. 그리고 스님에게서 불교 공부를 하던 때도 생각하게 되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지요.

-탄허 스님은 도의적 인재양성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인재양성을 해서, 그런 인재가 사회로 진출하여 우리 민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지요. 제가 보기에 총장님도 탄허 스님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합니다.

저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 수석 입학을 하였다고 해서, 입학 직후에 동대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때에 저는 법과이기에, 우선은 법공부를 해서 즉 고시공부를 해서 사회로 진출하겠지만 언제인가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법 분야의 교수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학교 관리 책임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우연히 들은 것도 사실은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들은 것이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하였지만, 제가 유성 자광사에 자주 간 것도 스님이 그리워서 간 것입니다. 그 무렵에 갑사도 여러 번 갔습니다.

-탄허 스님 이외에 다른 큰스님과의 인연이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지요.

대학 1학년 때 청담 스님이 풍전상가에서 하였던 삼보법회에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토요법회였는데, 청담 스님이 하신 강의를 30회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에 봉은사에 서돈각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 불교대 교수님들과 함께 가서 판전에서 공양도 같이 하고 그랬지요. 그때 법정 스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무렵 30대 후반이었는데 동국대 역경원에서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제가 입학시험에서 톱을 하였다고 하니깐, 저에게 "톱은 나무를 잘 잘라야 한다"는 그런 격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깐 저는 그 시절에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고, 배우게 된 것이 복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불교와 관련된 일은 없으셨는가요?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간 있었습니다. 1995년 무렵, 부장판사를 하다가 연수원에를 가 보니, 기독교 · 천주교의 종교 모임은 있는데 불교모임은 없더라구요. 그 이전에 있었는데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수생의 자료를 보고서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지도교수를 해줄 터이니 종교 모임을 만들라고 권유했죠. 그래서 연수생들이 종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서 무진장 스님에게 법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다르마법회였는데, 그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은 반야심경을 배우겠다고 해서, 정토회 법당이 연수원과 가까워서 법륜 스님을 초청해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 모임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그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공직에 있다가, 2년 전부터는 동국대 총장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총장님은 탄허 스님이 고대하시던 인재가 되었고, 이제는 인재를 길러내실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학교의 책임을 맡아 동국대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인재양성을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도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인재양성을 잘 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2 건학운동을 하는 것이 동국대를 중흥시키고, 동국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국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학교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1년간은 여러 문제를 점검하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인재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인재 동국PROJECT라는 사업을 수립했어요. 우선 이번 2학기부터 가동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입학 전부터, 그리고 입학해서 졸업 후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재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공동체이니까 이런 틀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가동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허 스님이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10년이나 하셨는데, 대학선원을 계승한 정각원에서는 그런 역사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탄허 스님과 연고 있는 월정사, 탄허재단, 그리고 탄허 스님을 존경하는 불자들이 뜻을 모아서 저희 동국대에 가칭 탄허장학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허 스님의 정신, 사상이 동국대에서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뜻이 문도 스님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은 탄허 스님을 어떤 스님으로 보시나요?

탄허 스님을 종교 외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확실한 교육자이고, 지도자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 불교 내적으로 본다면 스님은 학문과 삶이 탄탄무애하시고, 거침이 없었다고 봅니다. 스님은 자신이 느끼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재양성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총장님의 삶에서 탄허 스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싶군요.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저의 불교는 소박하고, 단순하고,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녀서 배운 정도였죠. 그러나 스님에게서 금강경을 배운 것은 엄청난 것이었고, 제대로 된 불교를 배웠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제대로 된 불자로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탄허 스님 탄신 100년 기념 책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뵌다는 말을 들었던 소감은 어떠하였는가요?

저는 스님의 탄생이 100년밖에 안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올해가 성철 스님이 탄신 100년인데, 연락을 받고서야 성철 스님보다 1년 늦게 태어나신 것을 알았지요. 저는 탄허 스님이 더 오래된 고승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스님은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미 유명하셨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저는 스님의 가까이서 지도를 받은 것을 큰 복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저는 스님의 장자 남화경이라든가 스님의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탄허 스님처럼 사는 것도 멋진 삶이라고 봅니다. 저는 탄허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불교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집무실에는 저의 불교 좌우명인 수처작주(隨處作主)도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았고, 또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는 아직까지도 살아 계신 대구의 화산 스님에게서 받은 유묵 2점도 액자로 하여 걸어 두고 있습니다. 이 유묵은 한암 스님의 글씨인데 하나는 중국 중봉선사의 법어이고, 다른 하나는 한암 스님이 후배 스님들을 경책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화산스님은 제가 자주 찾아뵙는 큰스님이신데, 화산 스님은 한암 스님의 기일 날 상원사에서 이 유묵을 놓고 탄허 스님, 한암 스님의 선 수제자인 보문스님과 함께 통곡을 하였다는 비사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과의 인연,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님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에게 배운 것을 잘 회향하기 위해서 저는 동국대에서 좋은 인재를 길러낼 작정입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사)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암으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총무부장 정무(부산 해운대구 청운암)
재무부장 무여(부산 금정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부산 진구 수도암)
교육부장 묘향(부산 수영 반야라마)
감사부장 청타(부산 수영 관음사)
문화부장 청오(대구 달서구 홍주암)

총무원장 유 심

원 로 원 장 대웅(부산 진구 봉주암)
무진(경주 횡용 용수암)
비구니회장 혜명(부산 진구 백광사)
비구니총무 무여(011-9509-1560)
불교전통문화원장 소현 무향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포 교 단 장 덕인
포교단 총무 법광(무량정사)

종회의장 일봉(경주 강동 관음사)
포교원장 운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부산 강서구 약수사)
교육원장 봉덕(거창읍 봉덕암)
호법원장 법산(011-3011-0853)
종회사무처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종회의원 일월(경주 안강 상원사)
도경. 수경. 범주. 진여. 진설. 덕행. 해광

종단고문변호사 허종범(부산) **종단사무장** 박몬비 010-4566-4504

전국 각 교구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교구) 051-468-5657
서울교구원장 법안(강북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017-551-5143)
거창교구원장 봉덕(봉덕암 010-8582-1309)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의광(대구 서구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사천 향촌동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부산 금정구 천왕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010-2531-1961)
포항교구원장 수연(포항 해도동 천왕사 010-8988-9672)
양산교구원장 무천(양산 중부동 천궁사 010-2445-0160)
오산교구원장 변파(오산 오산동 정인사 010-3011-0853)
경기교구원장 민정(오산 오산동 정인사 010-7163-5154)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공동 봉행위원장 혜명. 수연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관음정사 (부산역) 총무국 : 051)468-5657 / 사무장 010-4566-4504 총무원 051)442-5658 인터넷주소 httpz://jogyejong.kr 팩스 051)442-5659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육조혜능 "마음에는 본래 때 묻힐 자리 없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6〉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때 묻었으면 털고 닦아야"
신수게송은 유위법 입장
무위법 육조게송과는
'쏲을 소화 했나 못했나' 차이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마을에 살더라도
안목 열렸으면 출가자 같다

육조 "선도 악도 생각말고
부모가 낳기전 본래 면목
나에게 가져와라"
도명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육조께서 조사가 되다

배휴가 또 물었다.

"육조께서는 경전도 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좌께서는 오백 대중의 수좌로서 교수사(敎授師)의 임무를 맡아 32부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신수스님에게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위법(有爲法)으로서,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촉하신 것이다. 당시 육조는 다만 묵묵히 계합하여, 여래께서 은밀히 전하신 깊은 뜻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분께 법을 전했던 것이다.**

'때가 묻었으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한다.'는 신수스님의 게송은, 마음이 모양 있는 것이라고 본 유위법의 입장이었다. 반면에 '마음에는 본래 때 묻힐 자리가 없어서, 털고 닦을 것도 없다.'는 육조스님의 게송은 모양을 여읜 무위법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둘은 공(空)을 '소화 못하고, 하고'의 차이여서, 전자의 신수스님은 조사 법의를 전해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육조스님도 오조스님 회상에서 8개월간 방아를 찧으면서 스스로 돌이킬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방아를 찧기는 다 찧었으나, 키질만 남았습니다.'는 육조스님의 말을 듣고, 이제 전법의 때가 이르렀음을 안 오조스님이 밤중에 불러 《금강경》을 설해주었다. 육조스님은 그 자리에서 확철대오 하고,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고 고했던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따로 법이랄 것이 없어, 법 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이제 법 없는 법을 부촉하니, 법이니 아니니 하는 것들이 어찌 참다운 법일까 보냐?" 이 뜻을 알아야 출가자라 할 수 있고, 비로소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라고 해서, 계를 받아 승단의 일원이 된 출가자에게 귀의할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선의 입장에서는, 눈을 떠야 비로소 출가자라 할 수 있다. 설령 머리를 깎지 않고 마을에서 살더라도, 안목이 열렸으면 출가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자리에서는 법이 있고 없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계를 받고 말고에 상관하겠는가. 그렇지만 깨달음에 집착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몸을 지니고 쓰는 입장에서 인과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道明) 상좌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는가.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을 구하는가?" 하니, 도명 상좌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자, 도명 상좌가 말씀을 받들었다.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전, 도명 상좌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라."고 하셨다.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묵연히 계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씀 올리기를, "마치 물을 마셔 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스님의 문하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육조께서 "그렇다."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고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도명 상좌의 본래 이름은 혜명(慧明)이다. 깨달은 이후 육조 혜능스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스승의 '혜'자를 피해 도명(道明)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도명은 원래 5품 장군 출신으로, 오조스님의 의발이 없어지자 남보다 한발 앞서서 육조스님을 쫓아왔다. 육조스님은 이를 보고 가사와 발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몸을 숨겼다. 도명은 가사와 발우를 가져가려다가 한 생각 돌이키고는 가르침을 구한 것이다. 법은 말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다. 비록 도명이 처음부터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육조스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기연을 놓치지 않고 법을 청했다. 마침 스승이 한마디 이르는데 바로 계합하여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이다.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아난이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란가사 말고 달리 전하신 법이 있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매우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었지만, 다문지혜(多聞智慧)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천일 동안 배운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도를 닦느니만 못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도를 닦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리라.

가섭은 아난이 "세존께서 전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대해, 이런 저런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문 앞의 찰간을 꺾어 버려라!"고 했다. 아난존자는 30년간이나 부처님 시자로 지내면서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끝내 깨치지 못했다.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야 사형인 가섭에게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2대 조사가 되었다. 배휴도 황벽스님을 인연해서 깨달았고, 그 돈오한 힘을 바탕으로 이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돈오는 진실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배휴는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직 걸리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황벽스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묻고 기록해두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이미 공부를 맛보았지만, 아직도 미진한 게 남아있는 입장에 있는 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⑯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린 것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이다.

〈법화경〉

언어의 비극

언어의 의미는 사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사전이 다 담을 수 없는, 또 다른 뉘앙스를 언어는 띄게 된다. 현실의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라도, 현실의 사건으로부터 오염된 후로는 그 사용을 기피하게 된다. '유신'이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지 모르겠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러한 비극의 언어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사판(事判)'이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최대사건인 '정화'를 겪으면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화'는 '취처=사판 vs 비구=이판'이라는 구도 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도는 자연스럽게 '사판=열등, 이판=우등'이라는 계급성을 띄게 된다. 이후로 '사판'이라는 말은 천시되고, 현실에서의 사판들은 당당한 자기정체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이판'을 의식하면서, '사판'은 스스로의 일에 당당함을 내세우지 못하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현상은 '취처=사판 vs 비구=이판'이라는 등식에서 각기 '취처'와 '비구'를 약분(約分)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사판 〈 이판'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언어의 타락을 가져온 그 현실을 괄호 속에 넣고서,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복원(復元)의 길일 터이다. 과연 사판은 이판보다 열등한가? 그렇지 않다.

이판과 사판은 공존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판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일조차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화엄의 세계가 그렇다. 이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궁극적인 '사사(事事)' 무애의 경지에서는 '이'라는 말은 사라진다. '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 향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판'의 복권

우리에게 비극적 언어인 '사판'을 복권시키라는 명령은 "법화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화성유품(化城喩品)'에서이다. 대통지승여래라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을 때의 일이다. 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기 위하여 오백만억의 국토로부터 범천왕(梵天王)들이 총출동한다.

가히, 대통지승여래가 출현하셨다는 소식에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그들이 '하던 일'은 '깊은 선정'을 즐기는 일이었다. '왕'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 세계(梵天)의 왕들이므로 깊이 선정을 즐기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또 있었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깊은 선정을 즐기는 것은 '이판'을 의미한다. 그런 '이판'을 내팽개치고 달려가야 할 만큼, 그 보다 더욱 소중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이다.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은, 바로 '사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은 이판이고, 일을 하는 것은 사판이다.



그림 · 박구원

공부, 그것은 왜 하는 것일까? 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공부에 힘쓰는 것(이판)은 아직은 과정일 뿐이지,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하던 공부를 놓아두고서라도 달려가야 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일이다. 이판이 아니라 사판이다. 이판은, 언젠가는 다시 사판으로 나와야 한다. 물론, 사판 역시 이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판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정의(定義)야말로, 사건으로부터 오염되기 전의 본래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래 의미를 다시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타락한 언어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동안 현실 안에서 불교의 역할이 미미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가치의 전도(顚倒)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사판'의 복권은 우리 불교의 현실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전다삼매' 체득의 예 보여줘

초의가 제주를 떠난 후에도 코와 입이 풍화로 고통을 당했던 추사였다. 1844년 3월 20일, 본가에 보낸 그의 편지에는 "나는 혀가 헐고 코에 난 혹으로 여전히 고생하면서 (이 병은) 5~6개월을 끌고 있다. 설령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어찌 이처럼 지루하게 고통을 견뎌야한단 말인가(吾瘡鼻癌 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係醫藥之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耶)"라 한 것으로 보아 병마로 힘들었던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체념한 듯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초의에게 산이화를 부탁한 것에서 드러난다. 1844년 5월 15일, 초의가 보낸 편지와 산이화를 받고, 그 감동을 숨기지 않았던 추사의 편지는 《벽해타운첩》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벽해타운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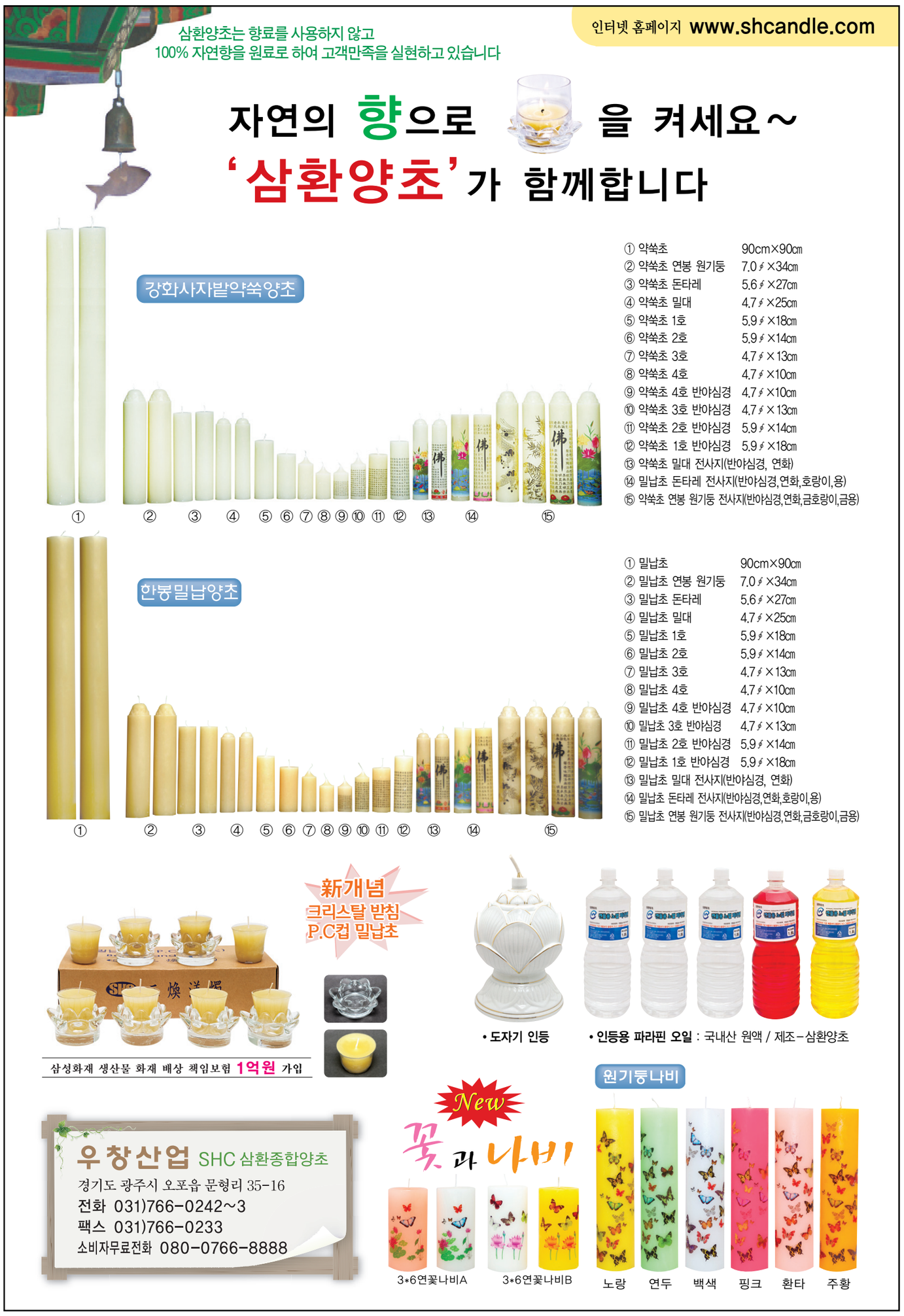
"그대와 차 달이던 때 회상 눈 앞에 속진이 사라진 듯" 추사의 고백…두 벗의 지향점 시사

겨우 헌 스님의 수행력을 알게 되었는데, 노가 돌아간다 하니 서글픈 마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을 판관에게 그대의 편지와 함께 산이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바라던 것이라 설령 적다하더라도 그런대로 쓸 만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그대의 자비심이 여기까지 미친 것 또한 간절한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그대의 형편은 길함이 이어져 등나무 아래에서의 수행도 편안하시니 세간의 번뇌나 흔탁, 나쁜 것도 없겠지요. 지난 해 이 무렵 그대와 함께 (그대의)글을 살펴보고, 물을 평하여 차를 다리던 때를 회상해보니 눈앞의 속진이 사라진 듯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특별하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편안하여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나의 입과 코의 풍화 병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그대로 둘 뿐입니다. 백장이나 되는 열기와 냉기로 사람을 죽이는 독한 기운도 이와 같을 것에 불과하니 말겨 둘 뿐입니다. 차를 만드는 시기도 이미 지났는데,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차의 색향은 부족함이 없는지요. 축축하고 더운 곳으로 (차를)보내주시는 것은 끝내 마음에 소홀함이 없겠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살피심이 어떻겠습니까. 허 소치는 근래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도록 막연히 소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만휴 등은 무탈한가요. 나대신 소식을 전해주세요. 나머지는 이만 1844년 5월 15일 나산(纔聞軒衲之見格 盧歸不勝惋歎 即從州判獲見梵函 副以辛夷 此是日以懸望者 雖少尙得需之 目下何等幸甚 慈悲所及 亦切感誦 更惟 禪況連吉 安禪藤架之下 無世間熱惱濁惡歟 回憶去年此時 並榻看偈 煮茗品水 忽忽若前塵 此樂殊不易得 寧不悒悒 賤疾口鼻風火 終不除滅 今且半年餘矣 一以任之 百丈之寒煞熱煞 亦不過如是 任之而已 茶候已過 製得幾銙 色香無欠 瘴天寄來 終有慮損 必須暈裁 如何如何 許癡近在何處 漠然無聞可菟 万休輩能無恙 爲我問訊也 留續具 不宣 甲辰 五月十五日 那山)

《벽해타운첩》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 편지는 본가의 편지보다 2달 뒤에 보낸 것으로, 당시의 정황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그가 초의와 함께 지냈던 "지난 해 이 무렵 그대와 함께 (그대의)글을 살펴보고, 물을 평하여 차를 다리던 때를 회상해보니 눈앞의 속진이 사라진 듯합니다"라고 한 내용은 이들의 제주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지난 해 이 무렵(1843년 5월)", 뜻 맞는 두 벗의 의기투합의 실체, 시도 짓고, 찻 물을 골라 차를 다린 정황은 "전다삼매(煎茶三昧)"의 체득을 보인 예라 하겠다. 이런 일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의 속진이 사라진 듯하다"는 추사의 고백은 그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적거지의 타의적인 은일(隱逸)도 은일이다. 난세에 자신을 수양하는 처세법, 은일은 동아시아 지성인들의 이상향이었다. 비록 추사의 은일은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향유했던 그의 멋은 일탈(逸脫)의 극치(極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물관엔 과거와 함께 문화의 미래가 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 前 삼성출판사 회장)

"문화란 인류만이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말하는 것이며, 문화유산이란 그 가치들의 결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온 선학의 지난날과 앞으로의 기대를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고, 또 앞으로의 일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74). 서울 정동의 중명전(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문화계 대부'로 불리는 자신과 자신이 결집해 온 '문화'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다. 중명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는 늘 문화유산 속에서 살고 있었다. '문화계 대부'로 불리는 그런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6월 26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서점집 아들의 꿈

그는 서점집 아들이었다. 전남 목포의 작은 동네에 자리한 대양서점. 살림집에 딸린 서점이었다. 그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책 속에서 살았다.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의 이름 뒤를 따라다니는 '문화'는 작은 서점 한 쪽에서 움튼 것이다. 다양한 책 속에서 접한 새로운 '세계'가 그를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훗날 최고 작가 반열에 오르는 윤청광을 만나게 된다. 당시는 모두 사는 게 어려웠다. 역시 고등학생이었던 윤청광도 마찬가지였다. 책을 살 형편은 되지 못했고 책은 읽고 싶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숨어서 책을 읽고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아들은 숨어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친구를 불렀다. 그리고 미안해하는 그 친구에게 보던 책을 포장해주며 가져가서 읽으라고 말한다. 그때부터 문학청년 윤청광은 서점 아들의 배려로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두 살 정도 어렸던 윤청광과 형제처럼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한다. "너는 문학을 좋아하니 훗날 최고의 작가가 되어라. 나는 책을 파는 집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를 만들겠다." 그의 꿈은 '출판사 대표'였다. 그리고 그 꿈은 '문화계의 대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그는 결국 출판사의 대표가 된다. 삼성출판사. 형님이 세운 출판사다. 그는 부산 지사장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리고 회장직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출판사를 이끌었다.

수집가를 수집한 '수집가'

1990년 그는 삼성출판박물관을 연다. 출판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국보 265호 〈초조대방광불화엄경〉과 보물 758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보물 745호 〈월인석보〉, 보물 877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고려 불경과 금속활자 인쇄 전적 등 40여 만점이 전시되어 있다.

출판사의 꿈을 이룬 그는 청년기에 서점에서 꿈꾸던 '문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문화의 원천은 무엇일까. "기업과 개인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어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원천입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 문화의 탄생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박물관을 세우기로 했고, 탄생한 것이 삼성출판박물관이다. 그는 70년대부터 민중박물관협회를 만들며 박물관을 준비했다. 당시 그의 행보를 알아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소장자가 그를 찾아와 〈증도가〉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며 그에게 〈증도가〉를 맡긴다. 〈증도가〉는 당초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고려 고종 26년(1239)에 목판으로 복원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 · 1377년 인쇄〉보다 최소 142년 전부터 금속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그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게 된 그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되고 삼성출판박물관을 열게 된 것이다.

출판사에서 박물관으로

박물관으로 영역을 넓힌 후 그의 문화적 유전자도 확장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박물관을 열고 난 그의 문화적 욕구와 관심은 한국 박물관 전체로 확장된다. 훗날 그의 이름을 따라 다니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박물관'일 만큼 '박물관'은 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된다.

우선, 그는 유물을 발굴하고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들을 찾아 나선다. 그는 수집가들을 수집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수집'의 반경을 넓힌다. 그는 진정한 '수집가'였고, 그것이 훗날 그의 이름 뒤에 '박물관'이란 부제를 달게 한다. 그는 한국 박물관 100년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오로지 박물관을 위해 뛰어 다닌다. 자신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박물관을 자신의 박물관으로 생각한 것이다.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수집가를 찾아다니며 박물관을 전시장을 채우는 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에서 열리는 수많은 전시회를 찾아가 일일이 축사를 전하고, 각종 전시, 출판, 학술 관련 행사 등 초청받은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

그 안에 불교가 있었다

그렇게 '박물관'은 그의 삶을 이끄는 커다란 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큰 축 속에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었다. '불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녔다. 그에게 불교는 매일 받는 밥상과 같았고, 의복과 같았다. 자연스러운 가정의 문화였던 것이다. 그는 동국대에 입학했다. 그는 백성욱 박사로부터 〈금강경〉을 들으며 막연히 대해왔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확장된 그의 문화적 영역 속에는 '불교문화재', 성보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그 후 그의 또 하나의 시선은 성보박물관으로 향한다. 1999년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여 곳의 성보박물관의 탄생에 크고 작은 역할을 한다. "천년고찰 자체가 박물관이긴 하지만 사찰 내 박물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보에 대한 보존관리 인식이 불교계에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보박물관 개관법회는 물론 특별전이 열리는 자리는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았다. 본인의 말처럼 선학의 지난날과 문화의 미래가 걸려 있는 박물관은 그가 살펴야 할 부모이고 자식이었다. "성보박물관 개관은 단순한 현상일 수 있지만, 사찰에서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확장된 불교관이 꽃을 피운 것이다.

'확장'의 회향

"우리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이야기 할 때 불교문화재를 빼면 이야



1990년 6월 29일 삼성출판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종규 이사장(사진 왼쪽 첫번째)

가업 서점서 다양한 책 보며
'출판사' 꿈꾸고 '문화' 생각 키워

삼성출판박물관 개관
'문화계 대부' '박물관' 그의 별칭

"우리문화재 70% 이상 불교"
불자들의 문화재 보존은 당연



김종규 이사장은 … 1939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목포상고를 나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가업인 삼성출판사에서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고 1990년부터는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다. 1999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직을 맡아 8년 간 활동했으며,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목단장, 일맥문화대상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등을 수상했다.

기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불교문화재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 지정된 문화재는 많지 않습니다. 인식표를 달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우리 세대가 실천에 옮겨야 할 숙제입니다."

2010년 4월 그는 문화유산국민신탁 2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그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7년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의 한국판으로, 국민(개인, 기업, 단체)의 기부, 증여 등을 통해 위탁받은 재산,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영구히 보전,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그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야말로 그 동안의 '확장'을 집약적이고 총체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 가면 괴테 하우스는 반드시 찾는 명소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설가 현진건의 집이 개발에 밀려 헐리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찾아 국민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촘촘하게 이어지는 인연을 통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 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아직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법인의 존재를 알리고 취지를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임무입니다."

그는 기자의 이름도 회원명부에 올리겠다며 명함 한 장을 더 달라고 했다. 그는 2010년 그가 이사장에 취임했을 당시 300명이었던 회원 수를 현재 4000명으로 늘려놓았다.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선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온 불교계와 불자들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의 '미래'

"방글방글 부처님 세 분이 마치 합창이나 하듯이 함께 웃고 계신다. 서산 산중턱에 동향을 하고 서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더 볼이 터져 나갈듯한 함박웃음을 짓는다. 보는 각도와 조명에 따라서 조금씩 미소의 차이는 있어도 하루 종일 웃고 지금까지 1400년을 그 자리에 서서 변치 않는 미소로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 2월, 그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충남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을 찾는다. 그날 일간지에 실린 칼럼(이배용의 우리 역사 속의 미소)을 읽고 나서다. 몇 번 쯤 가보았지만 칼럼을 읽는 순간 그는 1400년의 미소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7세기 초 백제시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절이면 백제가 기울어져 가던 때였다. 한성에서 공주로, 다시 부여로 밀려오면서도 재기의 희망을 잃지 말라는 평화의 미소, 백제의 미소다. 두꺼운 화강암을 조각해 아름다운 미소의 부처님을 세운 이름 모를 석공의 마음이 좌절하고 분노했더라면 이렇게 오늘날에도 다가서면 마음의 영원한 안식을 주는 따뜻한 미소를 전할 수가 없다. 바로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 산중턱에 서서 서해안을 건너가려는 길손에게는 잘 다녀오라는 평안의 미소로, 서해안을 건너온 손님에게는 잘 왔다는 환영의 미소로 화답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마애불 앞에 선 그는 칼럼 속의 문장들을 떠올리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의 미소에 또 한 번 매료됐다. 역사가 남긴 박물관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신념에 다시 한 번 신념을 더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박물관은 우리 문화의 '미래'라는 것을.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국사석가탑 특별전에 참석한 김종규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과 함께(사진 중앙)

전법일기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된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1

"어린이법회 교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젊은 불자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가워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어느 불교유치원의 원장이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2008년 초, 내가 처음으로 주지 소임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어린이법회였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린이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하나는 유능한 교사, 다른 하나는 재정적 뒷받침이다. 재정 문제는 내가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니 어떻게든 해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교사였다. 유능과 무능은 일단 두고, 교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신도들 중에 어린이법회 교사 경력자를 찾아보았으나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절에서는 어린이법회를 한 적이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다른 절에서 법회를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신도 가운데 젊은 현직 교사조차 없었다. 대학생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이마저 구할 수 없었다. 교사를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불교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2009년 여름이 다가왔다. 이(齒) 아니면 잇몸이라고, 나는 젊은 여성 불자 네 명을 뽑아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제주도로 연수교육을 보냈다.

제주도에는 이십 수년 동안 어린이법회를 해온 비구니 인성 스님이 방학 때마다 캠프를 하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참여하여 배워오도록 했다. 연수를 다녀온 그들은 38명이 참석한 1박 2일의 어린이 캠프를 무난히 잘 치러냈다.



그림 · 박구원

청년회 법회는 청소년 법회,

청소년 법회는 어린이 법회가 관건

나는 캠프를 계기로 매주 정기법회를 하길 원했으나 캠프를 치르느라 녹초가 된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손사래를 쳤다. 교육경력이라고는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다였던 이 평범한 가정주부들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법회를 하라고 하면 절에 나오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나는 어쩔 수없이 다음 인연을 기다려야만 했다.

젊은 불자 두 명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였다. 당시 서른 살쯤 돼 보이는 여성 불자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권미아 회장이었고, 그보다 열 살쯤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남자는 대불청 고문, 정송기 불자였다. 내가 그들에게 왜 어린이법회를 하려는지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구 사찰에 불교청년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해봤으나 이삼십대 젊은 불자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법회를 활성화시킨다면 청소년법회를 거쳐 불과 10년 후에는 청년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법회를 의욕적으로 할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오래전부터 교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좋았다. 불교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린이법회부터 하겠다는 그들의 긴 안목이 좋았다. 문제는 그들이 결코 짧지 않는 그 세월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느냐였지만, 일단 그들은 의욕이 넘쳤다. 여름 캠프를 마친 그들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들을 절로 불러들였다.

내가 보성선원에 오고 나서 3년 반만에 드디어 어린이법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절이 위치한 송현1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1,2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0명 모으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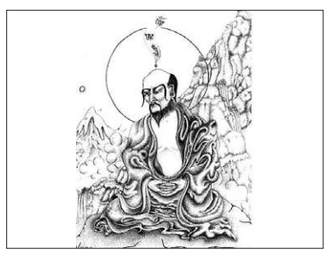
찬덕불교 www.chandu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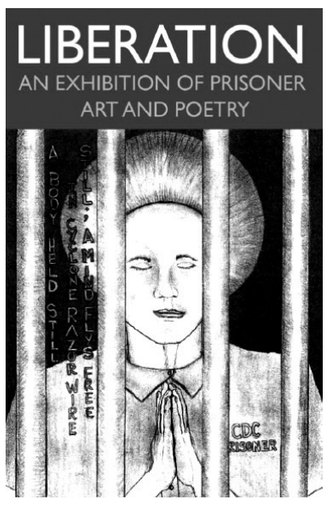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재소자들이 그린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간성을 계발시키기 위해 시작된 '교도소 해방 프로젝트'는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작품은 수감자들이 그린 부처그림과 직접 조각한 장식품(좌). 이 같은 작품 70점이 호주에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시된다. 오른쪽 사진은 전시회 포스터.

재소자들이 그린 부처님 그림 전시회 호주서 열려

수감자들의 교화 돕는 불교단체 LPP(교도소 해방 프로젝트)

지구촌 자비 위해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 작품 기부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인상 깊은 명장면이 나온다. 교도소 운동장 위로 울려 퍼지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재소자들은 낯설어하면서도 잔잔한 평화를 느낀다. 하지만 이내 음악은 교도관에 의해 중단되고 무단으로 아리아를 튼 주인공은 한 달간 독방신세를 면치 못한다. 인간이기에 지니는 본능적 감성, 이를 인정치 않고 교화대상이라는 일률적 잣대로만 수감자를 대하는 교도소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억눌렸던 재소자들의 예술적 감성이 스님들에 의해 깨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외곽에 위치한 힐즈빌 기념관에서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교도소 수감자들의 창작품이 전시되는 것. 독일, 미국,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재소자들이 그린 불교 그림, 만화 등 작품 70개가 '힐즈빌의 해방(Liberation at Healesville)'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이 전시는 대승불교보존재단인 FPMT(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가 운영하는 단체 중 하나인 '교도소 해방운동 프로젝트(Liberation Prison Project, 이하 LPP)'에서 주최한 행사다. FPMT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속해 있는 겔룩파 불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단체다. LPP라는 이름 또한 FPMT를 이끌고 있는 조파 라마가 지었다. LPP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1996년 호주에서 로비나 쿠틴(Ven. Robina Courtin) 스님이 갱스터였던 미국인 재소자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는 현재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몽골,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매달 850명 가량의 수감자들이 이곳으로 편지를 보내오고 1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스님들이 그 편지에 답장해주고 있다. 수감된 재소자는 대부분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갱 관련 폭력 문제에 개입돼 있다. 개중에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도 있다. 스님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등 자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돕고 있다.

LPP가 작년에 교도소에 보낸 불교관련 서적은 1만 2천권. 팍팍한 수감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 여 명에게 불법을 전달한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펠리칸 베이 주(州)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크리스 헬스타우스키 씨는 "LPP덕분에 언제든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신선한 꽃을 골라 부처에게 헌화 공양을 한다"고 얘기했다. 미국 앨라배마 마리온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제임스 데이비 또한 "스님들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LPP에 고마워했다.

하지만 로비나 스님은 재소자들을 불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교도소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 감정은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기 일쑤죠. 소음은 상상을 넘습니다. 재소자들은 이런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그들에게 인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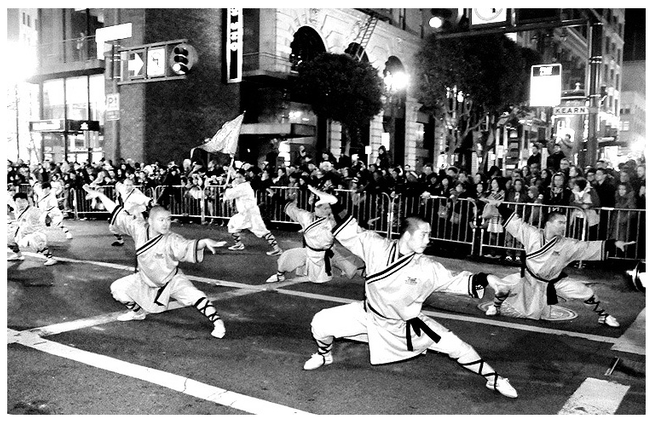
LPP는 거친 환경에 노출돼 감정 또한 삭막해지기 쉬운 재소자들의 마음 수양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의 손에 종이와 펜, 편지봉투를 들려주었다. 재소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밖에서는 흔한 물건이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연필은 자해의 우려 때문에 제한 당한다. 그래서 곧잘 재소자들은 편지 봉투를 캔버스 삼아 작품을 그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는 그렇게 탄생한 봉투 예술 작품 20점도 함께 선보인다. 수감자들이 직접 쓴 시 30편도 엄선해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로 음반에 담았다. 곧 발매될 음반의 제목은 '30명의 목소리(30 Voices)'다.

이번 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명상 지도와 함께 7월 6일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기념한 축하행사도 마련됐다.

앞서 LPP는 우리 안의 자비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자비의 필요를 그리다(Portraying the need for Compassion)'란 제목으로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전시회를 연 것. 세계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꼽히는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ao Salgado)를 비롯, 포토저널리스트 18명의 대표작이 전시됐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찍은 18점의 작품은 LPP의 취지에 동조한 사진작가들의 기증작으로 채워졌다.

예술과 종교는 사람들의 감정적 정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기 마련이다. LPP는 삶과 마음을 정돈하고 싶지만 그 기회를 제약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술'적 방편으로 잔잔히 불법을 전한다.

배현진 수습기자



소림사 스님들이 미국 거리에서 쿵푸를 시연하고 있다.

中 소림사, 美서 불교무술 선보여

10월 8~14일 LA에서 제1회 북미소림문화축제개최

중국 임제종의 대표 사찰이자 쿵푸의 태두 소림사(Shaolin Temple)가 벽안의 미국인들에게 불교의 수행과 무술의 진수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하다.

중국 국영방송 신화사(Xinhua News Agency)는 6월 20일 소림사 방장 스융신 스님(허난성 불교도협회 대표)의 말을 인용, "허난성 덩펑시 쑹산에 있는 대가람 소림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번째 북미소림문화축제(North American Shaolin Cultural Festival)를 개최한다"고 보도하고, "소림사는 지난 9년간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소림사의 날(Shaolin Temple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제1회 북미소림문화축제의 성과 역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미지역만 1만여 명의 쿵푸 애호가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제한 스융신 스님은 "이번 문화축제는 소림의 스님들과 벽안의 쿵푸 애호가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수행의 대중화를 꾀하는 자리"라며 "지난 20여 년간 세계 60여 곳을 방문해, 불교수행과 불교무술을 정수를 선보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림사는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무술음악축제(International Martial Music Festival)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스융신 스님은 "러시아에서는 '소림사 무술승들((Shaolin fighting monks)'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연무대가 마련되는 붉은 광장에 모인 모스크바 시민들이 소림사 스님들의 쿵푸공연을 보면서 보일 반응이 한껏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970년대 홍콩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소림사 쿵푸는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융신 스님은 "소림사는 수행에 철저하며 쿵푸에 능숙한 스님을 양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으며, 이는 1,500여년의 소림사의 전통을 지키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데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함께 소림사는 교육 과정을 밟은 젊은 스님들이 해외로 진출해 견문을 넓히고, 부처님의 참 뜻을 선양하길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림사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300여 곳에서 찾아와 입문한 스님들이 불법과 쿵푸를 배우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 지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40여 개의 소림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림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림의 쿵푸를 선보이기 위해 북경에 본사를 둔 3D영화 제작사와 협약을 맺고 1982년 세계의 이목을 잡았던 블록버스터 〈소림사〉의 리메이크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융신 스님은 "서양에서 불교인구가 늘어나길 희망한다"며 "소림의 무술은 영혼의 정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힐링(healing)에 주목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게 호감을 줄 것이며, 이는 불교와 서양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부 안후이(Anhui) 지방에서 태어난 스융신 스님은 1999년 소림사 주지를 맡았다. 이후 소림의 무술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쿵푸 순회공연', '쿵푸 온라인 경매' 등의 방법이 '상업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근 소림사의 세계화에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CEO 스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빨리어로 된 미얀마 石經, 세계유산 등재

현존하는 최대 상좌부경전

1868년 729개 돌에 새겨

미얀마 만달레이의 미하 로카마라자인(Maha Lawkamarazein)가 지난 6월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아이라웨디(www.irrawaddy.org) 지가 보도했다.

'쿠토도(Kuthodaw) 석비'라고도 불리는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현존하는 '가장 큰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의 고고학부에 따르면,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민돈(Mindon, 1853~1878 재임) 왕 통치시대에 상좌부 빨리어 경전 전체를 결집한 후, 1868년 729개의 돌에 새겨 조성해 만달레이 언덕에 세워진 쿠토도 탑 주변에 봉안한 석판 경전(이하 석경)이다.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쿄 오 루윈 사무총장은 "석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내·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미얀마 불교계·학계·정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미얀마 관광사업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라웨디는 "미얀마 정부는 '미하 로카마라자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3년간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마하 로카마라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고, 이번 등재는 그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세계기록유산 심사기준은 우선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물의 세계적 중요성, 국제·국가·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기록물이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가운데 '세계적 중요성'이 중요하다. 해당 기록물의 소멸·악화가 인류 유산을 빈곤하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유산으로서, 특정 문화권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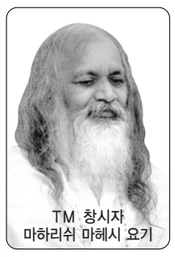


미얀마 만달레이의 미하 로카마라자인(Maha Lawkamarazein). 1868년 729개의 돌에 새긴 이 석경은 현재 쿠토도 탑 주변에 봉안되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세)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가정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상담환영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 태 철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상담환영
대불정능엄신주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이 함께 후원하실 분
쌀, 라면 보시자는 가정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가치유 비법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 효과 입증
고혈압·심장병·우울증·불면·대사증후군 해소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당뇨 비만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암사망률 감소 /
창조경영 / 마음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 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연등사
- 법 명 : 도심 (안수남)
- 승적번호 : 07-012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법인연대 통합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모기 ⊘ 파리 ⊘ 나방 ⊘ 날벌레
하루 2만마리 이상 싹쓸이!

실내 및 야외 설치와 동시에 20m 반경 모기, 파리, 나방, 해충, 날벌레 아무리 많아도 완전 박멸! 주문 쇄도!

아직도 해로운 모기향 쓰세요?

벌써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더구나 장마철이 끝나면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모기를 잡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건강에 나쁜 매트나 모기향, 살충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어린이집, 마트, 학교, 학원, PC방, 노인정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도 방역이 쉽지 않은 곳에서는 언제나 모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많이 찾는 팬션이나 콘도, 캠핑장, 수련회장 등과 군부대 등은 모기 피해의 단골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시골집, 농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인체에 무해, 하지만 효과는 강력!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면서 뛰어난 모기 및 날벌레 퇴치방법이 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국내 해충박멸 전문업체인 비티글로벌에서 출시된 초강력 모기퇴치기 '울트라 트랩' 은 자외선 램프와 은나노 촉매, 그리고 정제형 Real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최첨단 모기퇴치기이다. 설치와 동시에 주위의 모기 및 해충들을 싹쓸이 해주며 수많은 가정과 국·내외 관공서, 서비스업소,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 울트라 트랩(30평형)
- 정격전압 : 220V, 60HZ
- 소모전력 : 22W
- 규격 : 지름 220×높이 320 (mm)
- 특별판매가 : 79,000원
- 문의 : 080-800-0022
- 농협 : 302-0542-7296-11 예금주 : 전봉순



▲ 주택 및 숙박업소 ▲ 음식점 및 야외음식점

▲ 유흥업소 및 노래방 ▲ 농가 및 축사

한달 전기료가 500원! 반영구적 사용!

'울트라 트랩' 은 모기 뿐만 아니라 하루살이, 나방, 깔따구 등 모든 날벌레들을 박멸하며 하루 2만마리이상도 잡을 수 있다. 정제형 Real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경우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포집력이 증가한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울트라 트랩' 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 2012, 2013년 질병관리본부 납품완료!
- 2012년 청와대 테니스장 모기퇴치를 위해 납품완료!
- 경기, 강원 군부대 '말라리아 예방 방역 물자구매' 사업 납품완료!
- 전국보건소, 시군청, 농축협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중!

- 국·내외 특허 출원과 안전인증서 -



▲ 좌측부터 울트르트랩 안전인증서, 울트라파워 안전인증서, 울트라해머 안전인증서, 울트라트랩 디자인 특허, 울트라트랩 특허출원, 울트라해머 특허출원

특허 받은 파리유인퇴치기 (특허 제 10-0891929)

파리 퇴치를 쉽고 빠르게!
설치와 동시에 파리가 아무리 많아도 완전퇴치!

'파리단지'는 파리유인퇴치기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파리퇴치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농어촌지역, 비닐하우스, 축사, 등 파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25평에 하나씩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유인 재료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파리단지

축사, 비닐하우스, 어판장, 식당, 식품점, 병원, 경로당, 식품공장 등 위생이 필요한 곳

- 친환경 파리유인포획기 특허제품
- 전기가 필요없어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규격 : 지름 173×높이 197 (mm)
- 특별판매가 : 2세트 (파리단지2개+유인제 2개) 45,000원

(실내용)



스카이 에프 (20평형) / 파리, 날벌레 등

식당, 식품점, 병원, 급식소, 호텔, 백화점, 화장실, 학교, 학원, 경로당, 식품공장 등 위생이 필요한 곳

- 정격전압 : 220V, 60HZ
- 소모전력 : 48W
- 규격 : 가로 500×세로 230×두께 130 (mm)
- 특별판매가 : 154,000원

EVENT

3배 강한 효과!

지금 '울트라 트랩' 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포집력을 3배 올려줄 수 있는 정제형 REAL 이산화탄소 세트를 드립니다!

REAL 이산화탄소 무료증정



제조원 : (주)비티글로벌 www.ultratrap.co.kr

농협 : 302-0542-7296-11 예금주 전봉순

※ 단체구매 및 대량구매는 별도로 상담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800-0022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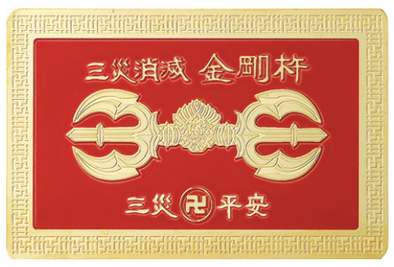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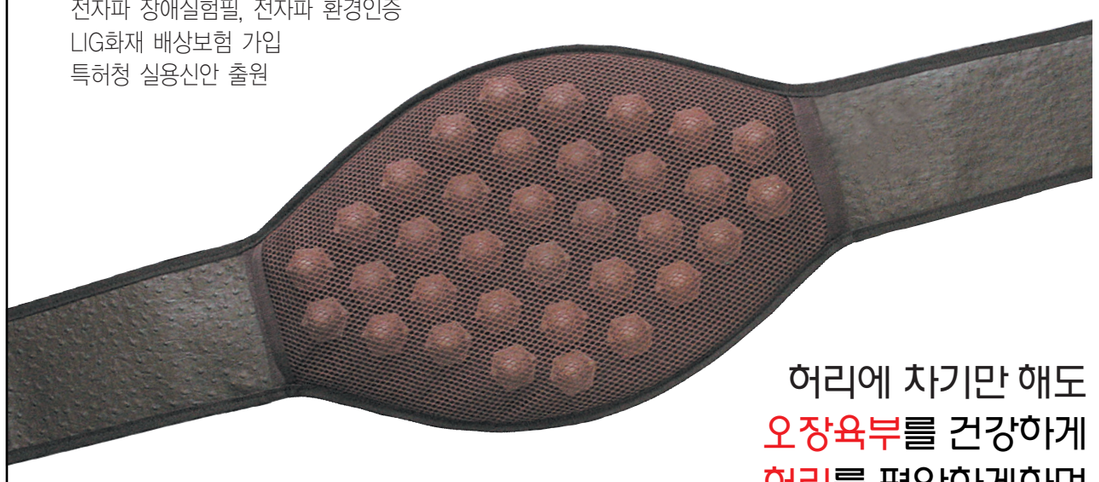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특별기고

함께 놀면서 부처님을 배우다

공연 '템스'를 보고



김태희
서울시의원

종교는 어려워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도 한국의 문화에 융화된 불교에 그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산행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산에 올라 고찰을 들르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명산고찰이다. 선과 악, 인간의 수행과 해탈을 주제로 궁극의 자비를 깨닫는 종교인 불교는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힐링 넌버벌 타악공연 템스는 권력, 식탐, 색욕 등 각각 다른 6명의 도둑들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해학을 담아 힐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다. 불교가 한국의 문화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종교의 진리는 변함없지만 종교를 전달하는 포교의 방법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어렵고 지루한 법문의 설법 보다는 템스와 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온 몸으로 울리는 공연을 통해 전달하는 포교는 잊지 못할 감동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한민족과 동고동락하며 정서적 바탕을 어루어왔던 한국 불교가 부명 스님의 용기 있는 공연 기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불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감동이 사람의 한 평생을 좌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템스가 작지만 위대한 공연으로 자리잡아 가기를 기원하며 템스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유쾌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힐링넌버벌 타악 공연 '템스'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21일 VIP시사회에서 공연을 관람한 바 있다.

죽는 순간도 '깨어 있음' 잊지 말아야

마묵 무용단 바르도 공연…7월 9일까지 성균소극장서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중유라 한다. 이는 일종의 영혼신으로 혈육으로 보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으로 성립된다는 의미다. 이 중유의 기간은 49일이라는 설에 근거, 사람이 죽은 후 그가 행복한 다음 생에 태어나도록 명복을 빌어 기도·독경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사십구재(齋)다.

마묵무용단(대표 윤민석·사진)이 7월 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공연 '바르도'를 펼친다. '바르도'는 티베트어로 중유로 해석된다. 'Bar'는 '사이'이고 Do는 '내던져짐' 또는 '허공에 걸림'이란 뜻이다. 한 장면의 '완성'과 다른 한 장면의 '시작' 사이의 과도적인 상태나 간격을 마묵이 춤으로 표현해낸다.

윤 대표는 "바르도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사이로 해석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사이의 대낮 등의 시간이나 공간 등의 사이로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허공이라는 위치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며 바르도의 의미를 해석한다.

윤 대표가 생각하는 바르도는 허공에 걸려 있는 현재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늘 불교사상에 관심이 많은데 이 바르도의 의미를 알고부터는 죽어 있는 시간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착안 공연을 만들게 되었다. 1~2초 사이의 그 공간마저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곧 바르도"라며 "움직임을 찾아내고 실행할 때 동작과 동작 사이를 인식하고 깨닫는 그 순간을 춤으로 표현했다" 설명한다.

불교사상에 심취한 윤 대표는 동양사상과 불교정신을 배경으로 한 '하얀 코끼리'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마묵은 '바르도'에 이어 11월 4일~17일까지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 소극장에서 〈능엄경〉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사이
집중의 훈련이 곧 '바르도'
11월 〈능엄경〉 공연도 준비중

윤 대표는 "이번 공연은 〈능엄경〉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엄경이 아난의 수난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라면 바르도는 어떠한 시·공간의 사이에서의 깨달음을 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한다.

이렇듯 마묵 무용단은 작품 하나하나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관객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묵(磨墨)이라는 이름처럼 벼루에 먹을 가는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윤민석 대표. 그는 "마묵무용단의 공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창작의 의도를 밝혔다.

'바르도'는 7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묵무용단이 7월 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허공 사이 스스로 깨달음'을 주제로 공연 '바르도'를 펼친다.

MBC '아빠 어디가' 현덕사 템플스테이

고무신던지기 게임 큰 웃음 안겨

강원도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에서 진행된 'MBC 일밤-아빠 어디가'가 아빠들과 스님들이 함께 한 고무신 던지기 게임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6월 23일 방송된 방송에서 성동일과 이종혁, 송종국, 김성주, 윤민수 다섯 아빠와 아이들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현덕사를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08배 몰아주기' 게임으로 고무신 던지기가 시작됐다.

심판을 보던 현종 스님도 흥미를 느끼고 고무신 게임에 참여했다. 현종 스님은 고무신을 멀리 던지기 위해 발을 뒤로 쭉 빼고 차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아빠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현종스님 역시 멋쩍게 웃으며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 출연진들이 현덕사 템플스테이에 참여 고무신 던지기를 하고 있다.

아빠 어디가 고무신 던지기 게임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빠 어디가 고무신 던지기 게임, 스님 괜찮은신가요" "하마터면 스님 큰일 날뻔 했네" "스님들의 색다른 면을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혜숙 기자

내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시간여행

극단 자유바다 '나무목 소리탁'… 주인공 깨달음의 과정 그려내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은 고(苦)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연과보의 원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 대중들을 곁을 찾아간다. 극단 자유바다(대표 강혜란)의 '나무목 소리탁' 공연이 7월 2일~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소극장에서 그 막을 올린다.

연극은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의문에서 이야기는 비롯된다. 왜 엄마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주인공 고민우는 반항아로 자란다. 그는 군대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군 교도소에 가게 되고 이후 사회로 나와 횟집요리사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탁발승, 창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과거를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가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마을의 단장나무로 목탁을 만들게 되는데...

극단 자유바다 강혜란 대표는 "주변의 사람이 이유 없이 미운 것도, 또 그냥 좋은 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우리의 업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현재는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두는 인연과보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고민우의 원인 모를 고통과 분노를 따라가며 죄와 벌, 더 나아가 업과 인연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051)441-2733

정혜숙 기자



극단 자유바다의 '나무목 소리탁'이 7월 2일~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불자가수 아웃사이더 3집 '슬피우는 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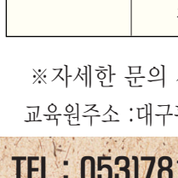


불자가수 아웃사이더〈사진〉가 3집 '슬피우는 새'를 발표 했다.

'슬피 우는 새'는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 화석이 되었다는 전설의 돌 망부석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아웃사이더의 감정이입이 돋보이는 작사와 가수 이수영의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배우 이중문이 노개런티로 출연해 화제다.

한편, 아웃사이더는 청소년을 위한 토그 아파쇼와 혜민 스님과 힐링콘서트를 함께 참여해 오면서 군종교구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300여년을 이어온 팔공산 염불송)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염불인생 50년을 수행해온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스님이나 차기후계자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 께서는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성심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교육현황) ※ 본강원에서는 일반교육은 없습니다.

초급 의식 염불과정		
속성	3개월	주 1 회 매주 : 수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초급 교육 과목: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 조석종성염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상가)시달림염불.

중급의식 과정		
속성	7개월	주 1 회 매주 :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중급 교육 과목: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탱화점안. 위패접는법. 전오리는법. 사물 지위접는법. 축원문작성. 요잡쇠. 천수북. 정근북 신중작법북. 가지게북. 화청.(회심곡)

작 법		
3개월과정		주 1 회 매주 : 토요일 오후3시~6시까지

교육 과목: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모집인원	
초급생 : 20명 중급생 : 20명 작 법 :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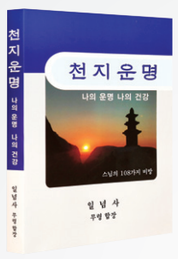
2기생 모집기간 : 수시모집
2기생 첫수강일 :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초급반. 수업시작)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우방미진하이츠)정문맞은편

TEL : 053)781-4200. 851-2666 HP : 010-3424-0108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령 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정가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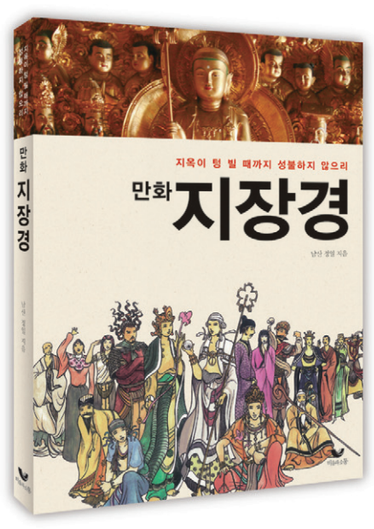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읊은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띠별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둘러 앉아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셔야 불자님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묘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었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우란분절 법보시 특별할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선사 지음
46배판 | 흑백 | 304쪽 | 12,800원

정일 선사, 지장경 300독 후 '이뭣고?' 화두 내려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대승경전. 갖가지 신통력으로 아수라, 지옥, 아귀, 육도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말씀하신 경이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사인 故 정일 스님(선학원 이사장, 보광사 조실 역임)은 생전에 〈지장경〉 300독 독송을 통해 불심과 신심, 효심을 배양하고 이를 참선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강조해 왔다. 이 만화는 정일 선사가 직접 감수한 책.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생명의 탄생 발전 과정 담은 무한한 연결 구조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



3단계의 무늬 단위 이해가 기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대생명력의 영묘(靈妙)한 기운이 만물을 탄생시키고 있어서 영기(靈氣)라 이름 짓는다. 따라서 영기가 처음에 형태를 띤 것이 추상적 영기문(靈氣文)이며, 그 영기문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것을 나는 영기화생(靈氣化生)이라 부르며 영기화생한 만물은 다시 영기를 발산한다.'

이것이 영기화생론의 가장 짧은 설명이다. 그 영기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그 무한히 다양한 영기문들을 밝혀내었으나 하나하나 이름 지을 수 없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인동당초문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체 행위의 요체이므로 아주 특별한 영기문이며 가장 중요한 영기문임을 알 수 있다.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이 '제1, 제2, 제3 영기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만물(생명)의 생성과정을 무한히 연결시켜 표현한 영기문' 임을 요약하면,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이라는 명칭으로 밖에는 더 간단히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동당초문이란 그릇된 용어를 그대로 쓰리라. 왜냐하면 인동당초문이라는 용어가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임을 설명하려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제 '인동당초문' 란 용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서양에 이어 중국의 것을 분석하여 '제3영기싹 넝쿨모영기문' 임을 증명하여 보기로 하자. 25회에서 다룬 서양의 영기문과 똑같은 원리이지만 동양에서는 점차 물 흐르는 듯한 조형을 띤다. 북위시대(기원 후 386~534) 전기의 영기문은 중앙에서 좌우대칭의 영기문을 이루며 그것이 위아래로 방향만 다르게 병렬하여 있다.(그림 ①-1, ①-2) 그 구성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영기싹이 마주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이미 붉은 색의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제3영기싹을 마주하여 복잡하게 되고 있으며 그 제3영기싹에서 노란 색의 영기싹이 움트고 있다. 그 갈래 사이에서 아주 빨간 색으로 칠한 삼각형 모양의 만물이 탄생하고 있으니 이 단위무늬야 말로 강력한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북위 후기의 영기문을 보면, 이제는 시작점이 생겨서 오른 쪽으로 전개하는 조형을 비로소 볼 수 있다.(그림 ②-1, 그림 ②-2) 한 눈에는 복잡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그림①과 같은 조형이지만 이것은 병렬이 아니고 한 쪽으로 끝없이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단순화시키면 제1영기싹이 연이어 전개하고 있는 것을 제3영기싹으로 연이어 전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 같은 표현원리이다.

중국 영기문의 표현 원리

다음 북제시대(550~577)의 영기문을 보기로 한다.(그림 ③-1, 그림 ③-2, 그림②) 선묘를 함께 싣는 것은 흥미를 느끼시는 분은 선묘한 것을 다운받아서 직접 채색하여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 눈에는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서 채색분석하며 표현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밑에 단순화시켜 그린 조형을 보면 그림②의 영기문을 더욱 복잡하게 전개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의 단위문양을 보면, 좌우의 제3영기싹 갈래 사이에서 긴 연봉모양으로 상징된 만물이 탄생한다. 그런데 좌우 제3영기싹에서 각각 두 개씩 빨간 꽃잎모양이 역시 만물의 탄생을 암시하는데, 그림②에서는 하나씩 나오고 있으므로 몇 개이든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왕비의 금제 관장식에서는 무려 7개의 꽃잎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개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제3영기싹이 팔메트가 아니고(인동문을 팔메트라 하여 혼동하고 있다.), 제3영기싹의 다양한 변형이라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중국 당나라의 영기문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마침내 10년 만에 그 증거를 밝힐 수 있는 조형을 만났기 때문이다. 원래 그림④-4가 원본인데 그림④-1부터 필자가 그 전개를 밝힌 것이다. 제3영기문 넝쿨 영기문의 첫 단계는 제1영기싹을 연이어 전개시킨 제1영기싹 넝쿨 영기문이다.(그림④) 두 번째 단계는 제2영기싹 넝쿨 영기문이다.(그림④-2) 세 째 단계가 제3영기싹 넝쿨 영기문이다. 우선 그 갈래 사이에서는 만물이 생기는 것이라 반드시 꽃잎모양이나 연봉모양이나 삼각형 모양뿐이 아니고 어떤 조형이라도 좋으므로 고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제2영기싹 갈래에서는 흥미롭게도 다시 제3영기싹 모양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긴 줄기에서 맺힌 연봉 같은 것을 보여주는 제3영기싹이나 다시 생긴 면(面)으로 된 제3영기싹은 모두 제2영기싹 갈래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 조형임을 알 수 있다.(그림④-4) 그렇게 해서 성립한 조형이 벽화나 불상 대좌에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영기문의 조형이 바로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이다. 채색분석해보면 더욱 분명히 영기문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④-5) 이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영기싹 갈래에서 제3영기싹이 생겨난다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

연재를 하며 '내가 재탄생하는 느낌' 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조형미술의 고차원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분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마침내 크게 새로이 탄생한 느낌을 가진다. 세계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무엇인지 몰랐던 인동당초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동안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여기에 실린 일부의 도면은 일본에서 출판된 〈세계문양사전〉(西上 하루오, 1994, 創元社)임을 밝혀둔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1



그림 ①-2



그림 ②-1



그림 ④-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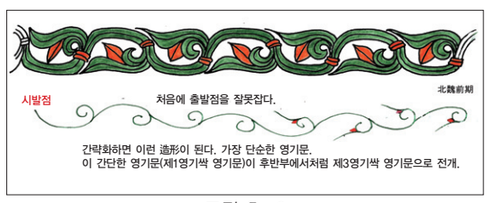


그림 ②-2



그림 ④-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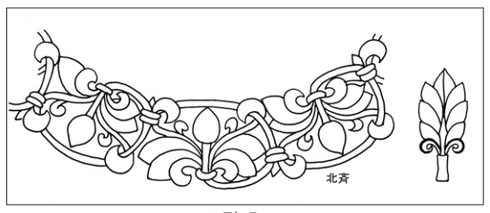


그림 ③-1



그림 ④-3



그림 ③-2



그림 ④-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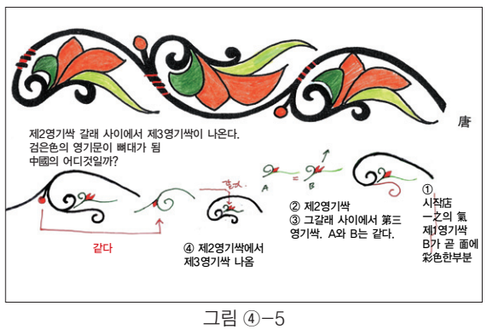


그림 ④-5

藥이 되는 사찰음식

장마철 무더위엔 따끈한 감자요리가 제격



들깨 감자옹심이

△재료(4인 기준)

○ 감자 3개, 소금, 들깨가루 7큰술, 청·홍고추, 애호박

○ 맛국물 - 물 5컵, 다시마 10g, 무 50g, 구기자 3g, 대추 2개, 표고버섯 2장, 건고추 1개, 국간장 1큰술, 된장 1큰술

△만드는 법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뺀 후 소금으로 간을 한다.

분리된 물은 가라앉힌 후 윗물을 버리고 앙금녹말은 갈은 감자에 섞어 농도를 맞추어 곱게 채댄다.

② 냄비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1시간가량 담근 뒤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인 후 간을 맞춘다.

③ 맛국물에 간을 하고 끓으면 감자옹심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넣고 한소끔 끓으면 애호박과 청·홍고추를 넣는다.

④ 전체적인 간을 맞추고 청·홍고추를 넣고 불을 끈 후 그릇에 담아낸다.

삼색전

△재료(4인 기준)

○ 애호박 1개, 돌나물, 우리밀가루, 맛기름, 소금 약간

○ 당근 1개, 구기자, 우리밀가루, 맛기름, 소금 약간



○ 감자 큰 것 1개, 느타리, 우리밀가루, 맛기름, 소금 약간

○ 맛기름 - 식용유 2컵, 건고추, 생강, 깻잎 약간씩

△만드는 법

① 애호박, 당근, 감자는 각각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짠 후 우리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춘 후 소금 간을 한 후

각각 돌나물, 구기자, 느타리버섯으로 고명을 하여 맛기름으로 전을 부친다.

② 대나무 그릇에 시원하게 담고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감자는 붓기 빼주는 좋은 식재료

장마철에 접어든 이번 주에는 따끈따끈한 음식으로 무더위와 습기로 인해 축 쳐진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감자는 기를 보충하고 비장과 위기를 다스리는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나 변비에 좋으며, 피부진정과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 장마로 인해 무거워진 우리 몸의 붓기를 빼주는 데 좋은 식재료다. 감자의 씨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을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싹이 난 부위는 도려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비위가 약하여 설사를 잘 하는 사람은 감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감자옹심이를 만들 때 갈아놓은 감자의 수분을 가라앉힌 후 앙금으로 반죽하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국물에 된장과 들깨가루를 넣어 구수한 감칠맛을 더하는 것이 맛내기의 핵심이다.



쫀득하고 구수한 옹심이에 삼색전을 곁들여보자.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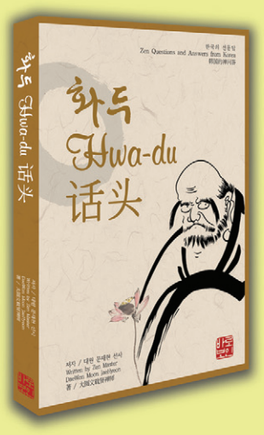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 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

통불교사상에 입각해 화쟁통교이념 전개한 논서



원효의 십문화쟁론
박태원 지음
세창출판사 펴냄
2만천원

원효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의 번역과 해설이다. 〈십문화쟁론〉은 원효가 화쟁의 통찰을 전면적으로 개진한 대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경전 내용을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붙이는 주석서 형태가 아니라 저자가 설정한 주제를 독자적 체계로 전개하는 단독 저술이라는 점, 잔간(殘簡)의 내용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광활한 불교 이해와 탁 트인 사유 지평, 정밀한 논리와 수준 높은 논의는 원효의 수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특히 〈십문화쟁론〉을 부각시키며 이에 대한 세인들의 찬탄을 전하고 있는 서당화상비문의 증언이나 후인들의 극찬을 충분히 수긍케 한다.

'십문화쟁론'이라는 서명의 의미를 '열 가지 유형의 쟁론을 화쟁하는 이론'으로 간주해 온 것이 관행이지만, 필자는 생각을 달리 한다. 원효가 그의 저술에서 즐겨 구사하고 있는 '문(門)'이라는 말은 '견해/주장의 조건적 타당성을 성립시키는 인과계열', 다시 말해 '견해 계열의 의미 맥락'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십문화쟁론〉은 '열 가지 주제에 관한 쟁론을 화쟁하는 이론'이 아니라, '견해 계열의

쟁론을 화쟁한 이론 아니라
견해계열 맥락의 화쟁 이론

열 가지 의미 맥락으로써 화쟁하는 이론'이 된다. '십문'의 '문'은 화쟁의 방식인 것이다. 〈십문화쟁론〉이라는 저서의 성격과 내용은 기존의 통념적 이해와는 다른 것이 된다. 〈십문화쟁론〉은 불교사상의 열 가지 주제에 관한 견해 다툼들을 화쟁하고 있는 논서라기보다는 상이한 관점들을 각기 성립시키는 견해 계열의 의미 맥락을 열 가지로 식별하여 불교사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들의 불화와 충돌을 치유하는 논서로 보아야 옳다.

온갖 모순과 피아의 대립, 시비의 쟁론이 모두 끊어진 절대 조화의 세계가 무쟁이라면, 피아의 대립과 모순이 있는 현실에서 모든 대립과 모순 및 다툼을 조화, 극복하여 하나의 세계로 지향하려는 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다.

십문으로 되어 있는 화쟁론의 제1문 '삼승일승화쟁론'은 화쟁의 총상(總相)에 해당한다. 삼승이 곧 일불승이요. 무량승이 모두 일승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오직 원효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통불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원효는 이러한 일승통불교사상에 입각하여 화쟁통교이념을 전개시켰으므로, 이것이 〈십문화쟁론〉의 총상이 된다.

제2문에서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대승불교철학의



원효 대사 진영

2대 조류로 되어 있던 중관파(삼론종), 유식파(법상종) 두 학파의 공(空)과 유(有)의 대립을 비판하고 과감히 공·유의 무대립론을 전개했다.

제3문에서는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어 성불할 수 있다는 설을 제시했으며, 제4문에서는 인(人)과 법(法)에 대한 불교계의 쟁점에 대해 논하고 있고, 제5문에서는 삼성(三性)에 대한 화쟁인데 그 원문이 훼손되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성실성(圓成實性)과 의타기성(依他起性)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삼성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10문에서는 각각 오성(五性)·이장(二障)·열반(涅槃)·불신(佛身)·불성(佛性)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회통시켰다.

이 책에서 저자는 원효 사상에 대한 저자의 관점과 이해를 분명히 담아내기 위해, 〈십문화쟁론〉 번역 부분을 '직역(直譯)/의역(意譯)/해의(解義)'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의역'과 '해의'를 덧붙임으로써 저자의 해석학적 관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존 잔간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에서 인용 형태로 전하고 있는 〈십문화쟁론〉 내용도 번역하여 추가했다.

원효에 관한 저자의 동기는 '지금 여기의 실존 해법' 탐구에 있다. 저자는 여전히 범람하는 배타적 주장들의 폭력적 다툼을 치유하는 해법의 일단을 원효의 화쟁 통찰에 의거하여 모색했다. 나아가 원효의 화쟁사상에 관한 저자의 궁극적 관심은 '화쟁사상의 보편성'에 있다. 불교적 쟁론들을 화쟁시켜가는 원효의 논법과 통찰에서 '모든 시·공간의 인간사 쟁론상황에도 적용시켜 유효할 수 있는 화쟁 원리'를 읽어내는 것,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쟁론의 보편적 치유 공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쟁론 치유력의 수준과 내용에 관한 것에 저자는 큰 관심을 갖는다. 〈십문화쟁론〉을 번역하고 그에 담긴 화쟁사상을 불교철학적으로 음미하는 이 책의 시선은 결국 '화쟁사상의 보편적 쟁론 치유력'의 문제로 향한다고 할 수 있다.

원효사상과 저작들에서 〈십문화쟁론〉이 차지하는 각별한 의메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번역이나 해설서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에 책은 원효의 철학과 화쟁사상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역사는 현재이고 미래, 생명과도 직결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윤명철 지음
참글세상 펴냄
2만3천원

"고구려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강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신라가 주도한 신질서에 의해 부정당한 탓에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유물과 유적은 철저히 파괴되고, 기록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이 민족사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래된 망각된 역사였다. 고구려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숨겨지고 왜곡되었던 역사의 진실이기도 하다."

책은 고구려의 주몽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화려했던 고구려를 재조명하고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중국과 일본만 생각해도 그 일의 의미는 적지 않다. 아니 충분하다.

"노련하고 현명한 중국과 약삭빠른 일본은 역사가 늘 현재이고 미래이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포착하였고, 역사학이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간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 성인들의 35%가



무용총 고분 벽화 '수렵도'.

6.25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연령은 68세(발발 당시 5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전쟁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게 된다.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전쟁'은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인식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왜곡은 그 기록을 비트는 일이다. 기억해야 할 주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는 왜곡하는 이들의 것일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전쟁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기록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명한 기록을 꺼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잊지 않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은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퇴적이 아닌 현재이고 미래이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를 억압했던 중국,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혀왔던 일본은 벅찬 상대가 되어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공정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주변국의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난관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난관은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한다고 책은 말한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역사 속에서 하필 고구려인가.

책은 "고구려는 왜곡되어 왔던 자의식과 억눌렸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주고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던 우리 역사의 진실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21세기 한민족의 통일과 국가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전략과 방식을 모델로 삼을 수 있고, 고구려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성공한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악스러운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과 신문명과의 불안한 조우가 혼란을 일으키고 동아시아에서는 국가들 간에 영토분쟁을 비롯한 충돌들이 발생하면서 파국의 조짐마저 보이는 이 때, 2000년도 더 전에 태어났고, 생을 마감한지도 1350년 가까이 된 고구려를 이 시대에 새삼 조명하려는 이유인 것이다.

책은 우선 고구려가 왜 탄생했는지, 어떤 명분을 갖고 탄생했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등에 대한 존재이유를 살피고 있다. 이어 역동감 넘치는 젊은 날의 혈기와 남다른 자의식, 다른 존재들과 벌인 경쟁과 갈등, 실존을 위협받고 나서의 비탄과 절망감, 극복한 후의 환희와 자긍심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창창한 하늘과 조상을 만나면서 그 바램들을 표현한 장군총 광개토대왕비 등의 문화유적들, 별처럼 많은 조상들의 무덤과 그 안에 신의 마음을 인간의 손길로 표현한 신비로움에 찬 벽화들, 초원을 짓쳐 달리는 기마군단과 바다를 항해하는 수군들, 알맹이처럼 목에다 설치한 성들의 이야기들, 기술력의 정제물인 온갖 무기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의 다양한 모색

깨달음의 스펙트럼

김현철 일숨 자운 지음 | 시단 펴냄 | 2만원



책은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무묘앙에오까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 인문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깨달음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책은 "깨달음은 어는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다양한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깨달음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인물들을 잘 보여주는 책을 선정하여 해설하고 있다. '깨달음'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고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해서는 금강경이 아닌 수능엄경을 실었는데, 책은 "막상 존재를 알고 나서 보면 금강경이나 수능엄경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일 뿐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설서다 넘쳐나는 〈금강경〉보다는 수능엄경을 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앎'이다. 그 앎이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배고픔을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듯이 깨달음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책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마법까지 동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그리스도가 된 예수, 오쇼 라즈니쉬, 노자, 맹자, 무묘안 에오, 하이데거, 질 들뢰즈 등 20명의 인물을 통해 '깨달음'을 이야기 한다.

불교를 통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마법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명상을 통해서도, 무술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해서 '하나'로 가는 길에 오해와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 ~ 6/2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7	명상에 답이 있다	장현갑	담앤북스
8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9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걷기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10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삼천대천 우주 깨부수고, 산 채로 황천 가리”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간다

박노자 · 에를링 키텔센 풀어 엮음
책과 함께 펴냄/1만5천원

한국과 중국, 일본 승려들의 임종게 60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임종게들을 풀이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역사학자 박노자 교수다.

한 편의 임종게를 두고 함께 대담을 나눈 사람은 노르웨이 시인 에를링 키텔센이다. 동아시아 선사들의 임종게가 한국을 비롯해 비서구권의 시 작품을 번역해온 시인과 오슬로 대학의 동아시아학 및 한국학 교수를 만나게 해준 것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간다〉(부제: 한중일 승려들의 임종게)는 두 사람이 노르웨이어로 펴낸 임종게 모음집 〈Diamantfjellene (금강산)〉의 번역본이다.

박노자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관계로 임종게들을 불교 전통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 했고, 에를링 키텔센은 스칸디나비아 신화 등 자국 문화를 이용해서 임종게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이고득락(離苦得樂)한 인간이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체질적 무의식에 어떤 이론적 근거를 대려고 하는 인간의 본원적 마음을 불교라고 폭넓게 바라본다면, 이러한 시도는 낯설지만 유의미하다.

불교적 시구를 이질적인 맥락 속에서 풀이함으로써 그 전복적 성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제자들과의 대화 일부분인 임종게들을 독백이 아닌 대화로 풀어냄으로써 상대적인 깨달음의 언어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한다.

선사들이 ‘나’와 ‘만물’을 상대화시키는 데 성공한 그 순간의 희열로 쓰는 오도송(悟道頌), 또 죽는 순간에 이해되는 ‘나’와 ‘세계’의 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임종게(臨終偈), 이 작품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종을 전제로 하는 사후 안락의 세계관이 아니라 나와 만물의 상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긍정하라는 것이다.

덧붙여 임종의 순간 발휘하는 놀라운 타자지향성이야말로 죽는 사람의 인생 전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그리하여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가 얼마나 복된 축사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선사들은 오도송(悟道頌)이나 임종게(臨終偈)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완성하고 아무런 집착 없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책은 ‘나’와 ‘만물’을 상대화하는 데 성공한 순간의 희열로 가득하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복, ‘나’와 ‘세계’의 상대화를 통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노래한다. 눈이 이마까지 덮을 정도로 내리는 가운데 참선 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혜심 스님은 죽기 직전에 쓴 시를 통해 죽음을 ‘고통이 없는 열반의 커다란 고요함’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기근과 전화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간 세우 스님은 언젠가 생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하늘에 뜬 둥근 달’로 표현했다.

이처럼 선사들의 임종게는 ‘최후의 설법’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 편의 문학작품처럼 전복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임종게들도 있다.

“이제는 모든 걸 떨쳐버려 삼천대천의 우주를 깨부수네. 어허, 이제 온몸으로 구할 것 없으니 산 채 황천에 가리라”(도원 스님) 여기서처럼 도발적이며 자극적인 글들을 통해 ‘깨침’을 더 빨리 이루게 하는 마지막 ‘사자후’

임종게, 선사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심

한중일 스님들 임종게 60편 뽑아

“나와 만물의 상대화로 죽음 긍정”

가 곧 임종게다. 또한 생의 한계를 벗어난 선사들의 임종게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한 개체의 자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준다.

“강법에 잘못과 실수가 많아, 서쪽을 가리키는데 도리어 동쪽을 향한다”(호암 체정),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거니, 임종게를 남길 이유가 없네”(원오 극근), “육십삼 년 동안 한마디 설법도 안 했었네”(경당 각원) 등에서 죽음을 앞둔 사랑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 공(空)을 직시할 용기를 주는 것보다 더한 자비심은 없을 것이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약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상》 등에 불교 관련 글을 다수 연재하기도 했다.

이 책은 승려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궁극적 진리를 전달한 임종게에서 진정한 진보적 심성, 곧 ‘자비심’을 발견하고 그 국역 및 해설 작업에 몰두한 결과물이다. 그가 선불교의 죽음관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이 '복종을 전제로 하는 사후 안락'의 세계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과 죽음의 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 수록된 57인의 선사들은,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삶의 유기적 일부분임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경지를 보여준다.

박노자 교수가 보기에 이런 경지는 선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타적인 동기를 강하게 지닌 이들이야말로 달리 보면 선불교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지는 자비심이라는 원시불교적 덕목을 더 많이 지녔다고 본다. 그래서 박노자 교수의 임종게 해설은 선사들 각각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한 편의 임종게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삶의 궤적을 하나의 작품으로 분석한다. 전란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국가의 부름에 어떤 답을 했는지, 깨달음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통해 임종게를 신비화하지 않고, 임종게 또한 전복시키는 도전적 태도를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인류가 살아갈 해법은 ‘관계와 협력’의 키워드인 여성

여성이 답이다

지원 스님 지음 | 종이와 거울 펴냄 | 1만2천원



명품놀이와 겉모습 꾸미기에 지친 대한민국 주부들이 새롭게 눈뜨고 있다. 이제 공부하는 주부(일명 공주)들은 명품이나 겉모습보다 내적인 교양을 원하는 여성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것들의 무상함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교양 쌓는 첫 번째 일로 공주들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의 힘, 그것이 삶의 근본이다.

인생, 삶의 성패는 결국 생각에 달렸다. 사람은 ‘생각의 힘’을 갖췄을 때, 능력이 발휘되고 사람이 돋보인다. 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의 핵심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공부하는 주부들이 등장하여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우리 사회는 매우 바람직할 뿐 아니라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선진국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여성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출가수행자가 여성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이해와 다소 왜곡된 시각이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 출가수행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남성중심의 매카니즘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인간적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남녀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걸 말한다.

여성성을 답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여성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 즉 도덕성, 분배, 이념 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와 협력’은 존재의 실상(實相)이고, 인간과 우주의 근본이라는 등식에서다. ‘관계’는 ‘협력’이고, ‘협력’은 ‘관계’라는 단순한 이 등식에서 인간사회의 ‘관계와 협력’을 이루는 최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에서조차 남성은 여성을 모르고, 자식은 어머니를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모른다. 더욱 여성들이 여성성을 모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성’을 바로 알아 삶에 활용할 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

‘관계와 협력’…여성 자신의 존재가치

‘여성성(女性性)이 답이다.’ 도는 여성성과 닮아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위기에 둘러싸인 우리 사회와 현대 인류가 살아갈 방법이, 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관계와 협력’의 존재원형으로 돌아가는 키워드가 여성성이라는 말을 한다.

여성성의 모든 것, 덕성들의 총합은 ‘관계와 협력’의 산물이다. 아니 ‘관계와 협력’에서 인간의 덕성들이 태어난다. 그럼으로 ‘관계와 협력’은 여성의 덕성을, 인간의 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여성들의 이 덕성들은 여성자신의 존재가치다. 나아가 인간의 존재가치가 되어야 한다. 여성성을 알아보는 남성이 있을 때나, 여성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여성성은 한층 빛난다.

‘관계와 협력’은 존재의 실상

‘무상과 무아’, 내재돼 있어

관계에서 ‘협력’을, ‘협력’에서는 ‘관계’를.

마음을 찾는 것은 곧 참된 ‘나’를 찾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를 찾는 것이다. 바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다.

‘관계’와 ‘협력’은 분명 두 단어이되 한 곳을 지향하고 있다.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분명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不二). 그렇다고 ‘하나’라고 못 박아서도 안 된다. 두 가지 제각각이 갖는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제한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둘은 자신 속에서 서로를 보고 필요로 할 뿐이다.

‘관계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협력이 갖는 본질은 ‘무상(無常)·무아(無我)’이다. 흐르는 시간과 텅 빈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무상·무아’는 철저하게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이런 태도만이 ‘관계와 협력’의 인간존재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시대와 종교 초월한 백행의 근본 ‘효’

온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이야기

엮은이 박영재 | 본북 펴냄 | 9천원



효란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근원적인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부모님이 자식을 자기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절대적인 성품인 것이다. 이에 지구촌 구석구석 편재해 있으며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동양과 서양의 진솔한 ‘효’ 이야기들을 골라 뽑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하였다. 시대와 종교를 초월한 ‘지구촌 효 이야기’를 담다

1부 1장 ‘한국의 효’에서는 서산대사와 진묵대사의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효심을 잘 엿볼 수 있으며, 서포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밤을 새워 쓴 소설 〈구운몽〉 이야기, 연암 박지원의 ‘봉산학자전’을 지은 이유를 통해서는 학식은 별로 없어도 효를 포함해 배운 바를 꾸밈없이 실천하면 거짓 군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점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다.

2장 ‘동양의 효’에서는 삼보정재(三寶淨財)를 축내지 않고도 지혜롭게 어머니를 잘 봉양했던 목주 선사의 일화와 참 본성을 깨닫기를 염원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유언장을 남긴 일휴 선사 어머니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2부는 주로 재가의 선 수행자들의 효와 불효에 관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다루었으며, 3부에서는 종달 선사께서 1970년대 초에 월간 〈법시〉에 제창하셨던 〈부모은중경〉을 통해 구구절절이 부모님의 한량없는 고마움과 그에 대해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老정신과 전문의의 재밌게 인생 사는법

나는 죽을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 지음 | 갤리온 펴냄 | 1만4천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011년 76세의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자 수석으로 졸업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가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협착, 담석 등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사는 한마디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점이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느냐고 물으면 그저 재미있어서라고 말한다. 그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2년, 학술단원으로 처음 네팔을 방문했다. 그때부터 시작한 네팔 의료 봉사를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계속 해 오고 있다. 또 군의관 시절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 역시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는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 원장으로 청소년 성 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을 펼치고 있고, 시낭송 모임과 영화 동아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청탁 원고를 쓴다.

그에게 인생을 사는 비결을 물었더니, 무엇이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누구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인생이란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효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불교와 유교 윤리관 통합… 새 인간형 제시



경주 불국사. 김대성은 고용살이로 받은 밭을 점개(漸開)법사의 흥륜사 육륜(六輪)법회에 보시하였고 그 공덕으로 재상집에 태어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

유교 효와 불교 선의 갈등 해소
자비사상은 대효(大孝)사상 승화
불국사 창건 김대성 등 일화 다뤄

1. 효와 선의 두 아름다움[孝善雙美]

〈삼국유사〉 전 5권 중 「왕력」과 「기이1」은 제1권, 「기이2」는 제2권, 「흥법」은 제3권, 「탑상」과 「의해」 2편은 제4권, 그리고 「신주」, 「감통」, 「피은」, 「효선」 4편은 제5권에 편재돼 있다. 7조목에 지나지 않는 「흥법」은 〈삼국유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편목답게 독립 권차로 편재되어 있다. 반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4편은 가장 많은 편명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권에 배속돼 있다. 이 중 유교의 효행과 불교의 선행이 융합된 「효선」편은 제5권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진정사 효선쌍미', '대성 효 이세부모 신문대', '향득사지 할고공친 경덕왕대', '손순매아 흥덕왕대', '빈녀양모'의 5조목이 실린 이 편 속에는 찬자 일연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은 불교 윤리의 실천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적 인간과 유교 윤리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유교적 인간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진정사 효선쌍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상의 제자 진정이 보여준 어머니에 대한 효와 부처님에 대한 선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타적 삶의 길인 출가였다. 일연은 이것을 '효와 선의 두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붙였다.

유교의 효행과 불교의 선행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심해 왔던 일연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효와 선의 융합'에서 찾았던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세속적 의미에서의 '효'라면, 부모와 자식과의 개인적 인연을 끊고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 불교적 의미에서의 '선'이다. 여기에서 효와 선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난다. 가난한 백성들의 보시[善]와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孝] 이들 사이의 접점과 통로는 무엇일까?

일연은 「효선」을 통해 유교적 효와 불교적 선의 갈등을 '작은 나'에서 '큰 나'를 넘어 '더 큰 나'의 차원으로 나아가 해소하고 조화의 통로를 열었다. 불교적 충과 효는 일국(一國)에 대한 충과 일부모(一父母)에 대한 효를 넘어서서 만국에 대한 충[萬忠]과 모든 부모 및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을 섬기고[孝] 따르는[順] 마음을 지니는 대효(大孝) 혹은 만효(萬孝)로 확장된다. 때문에 만효(萬孝)와 만선(萬善)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無我] 출발하고 있기에 내 한 집[一家] 부모를 향한 '한 집의 효'[一孝]만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난[出家] 보다 큰 집[萬家]의 효로 확장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붓다에 대한 선행(善行)과 이타행(利他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세에서 삼세로, 일가에서 만가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주관적 지평을 껴안고 넘어서 객관적 지평의 표면적을 늘리는 무아윤회(無我輪廻)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의 범주 역시 시간적으로 현재(現在)의 일세 지향에서 과현미(過現未)의 삼세지향으로 확장된다.

이 같은 확장은 무아로 표현되는 주관적 지평을 기어서 껴안고 넘어가면서 객관적 지평의 표면적을 넓히는 자비사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던 일효(一孝)는 내가 없고[無我] 나의 것[我所]도 없음을 자각하는 인식의 전회를 거쳐 대아(大我)로 나아가는 대효(大孝)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각[知恩]과 보답[報恩]에 입각한 부모의 봉양과 그 부모의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행은 곧 모든 존재의 속성인 무상, 고, 무아에 대한 명료한 통찰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때 불교의 효는 일세 지향이 아니라 삼세 지향이 되고, 일가 지향이 아니라 만가 지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곧 붓다를 향한 선행과 이타행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해서 불교의 효학은 효행과 선행이 곧 이타행임을 역설하고 있다.

2. 효행과 선행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의 효란 살아있을 때 자식이 베푸는 풍성한 음식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출가하여 성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식의 안녕이 곧 부모의 안녕이며, 자식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진정은 장가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여 군대에서 부역하는 여가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안에는 전 재산인 다리 부러진 솥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승려가 문간에 와서 절을 하며 시주를 청하였다. 진정이 그 승려를 보니 얼굴빛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진정이 말하였다. "제가 가난하여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 몸을 시주하고 싶으니 대사께서 저를 위해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승려가 말하였다. "나는 악성 종기가 나서 의원이 말하기를 '갓 태어난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시주를 청하는 것이다." 진정이 칼을 뽑아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주었다. 그 승려가 가고 나서 진정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 승려는 관세음보살이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관세음보살은 하늘에 올라 진정의 몸이 다시 완전해지도록 하였다.

일찍이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강설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효도를 다한 뒤에 꼭 의상(義湘)법사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불도를 배우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몹시도 빠르단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효도를 마친 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겠느냐? 어찌 내 생전에 불도를 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만 하겠느냐? 삼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자 그의 어머니가 즉시 일어나 마련해 둔 자루를 거꾸로 터니 쌀 일곱 되가 나왔다. 그 쌀로 밥을 짓고 말하였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면 길이 더딜까 두렵다. 마땅히 내 보는 앞에서 한 되의 밥은 먹고 나머지 여섯 되 밥은 싸서 어서 떠나거라." 진정이 눈물을 삼키고 세 번을 굳이 사양하자 어머니는 세 번을 권했다.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어기기 어려움을 알고 밤낮으로 길을 가서 3일 만에 태백산에 도착했다. 의상법사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진정(眞定)이라 하였다.

가난했던 김대성은 고용살이로 받은 얼마의 밭을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점개(漸開)법사의 흥륜사 육륜(六輪)법회에 보시하였다. 그 보시의 공덕으로 대성은 뒷날 재상의 집에 태어나 전세의 부모를 위해 토함산 중턱에 석불사를 세웠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 토함산 자락에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웅천주에 사지(舍知)의 벼슬에 있던 향득(向得)이 흉년으로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 어머니도 종기가 나서 거의 죽게 되자 향덕이 밤낮으로 옷깃을 풀지 않고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내어 평안하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자세히 전해드리자 경덕왕은 벼 500석을 하사하였다.

손순(孫順)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처와 함께 품을 팔아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의 어린 아들이 언제나 어머니가 잡숫는 것을 빼앗아 먹었다. 아내와 상의하였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모시기 어려우니 이 아이를 묻어서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 드립시다." 그는 아이를 업고 모량리 취산 북쪽 들로 가서 땅을 파다가 난데없이 돌로 된 종을 얻어 매우 신기해하였다. 부부는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잠시 나무 위에 걸고 두드려 보았더니 그 소리가 은은하여 들을 만 하였다.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업고 그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대들보에 매달고 쳤더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다. 흥덕왕이 이 소리를 듣고 조사하게 하여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메벼 50석을 주어 지극한 효를 숭상하게 하였다. 손순은 살던 옛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고 이름을 홍효사(弘孝寺)라 하였으며 석종을 모셔두었다.

3. 불교윤리와 유교윤리의 공존

가난한 여인[貧女]이 흉년이 들어 문전걸식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팔고 곡식 30석을 얻어 주인집에 맡겨놓고 일을 해왔다. 날이 저물면 자루에 쌀을 넣어 집으로 와서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리고 어머니와 잠을 잔 뒤 새벽이면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말하였다. "지난날에는 거친 음식도 마음이 편안하더니 요사이는 좋은 쌀밥을 먹어도 마음속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어찌된 일이냐?"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자 그의 모친은 통곡하였다. 여인은 자신은 다만 먹는 것만 봉양할 줄 알았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서로 껴안고 울었다. 뒤늦게 달려온 문객들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효종랑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 100곡을 보냈다. 효종랑의 부모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벼 1,000곡을 거두어 보내 주었다. 이 일이 대궐에 알려지자 진성왕도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병사들을 보내어 그 집을 지켜 약탈당하는 것을 막게 했다.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리(孝養里)라 하였고 뒤에 그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고 양존사라 하였다.

불교의 윤리와 유교의 윤리가 만나는 접점은 효와 선이다. 『삼국유사』「효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윤리적 효와 불교적 선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에 대한 효와 붓다에 대한 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세간적 효와 출세간적인 선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유교의 효와 불교의 선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불교신앙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는 통로는 '하나뿐인 재산인 솥'을 보시함으로써 '늙은 홀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출가하여 정진하고', '생활의 터전인 밭'을 보시함으로써 재상의 집에 환생한 뒤 석불사와 불국사를 창건하며, 효를 위해 자식을 묻으려다 종을 얻어 포상을 받고 옛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고, 몸을 팔아 효를 다하다가 불교에 귀의하여 그 집을 사찰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불교적 추선을 실천한 시주(施主) 추선(追善)형 이야기와 유교적 효행을 매개한 은원(恩怨) 희사(喜捨)형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이다. 왕족과 귀족층은 사후 추선과 불사 희사를 하는 반면, 평민층은 생전의 봉양, 출가의 여부, 사후의 추선, 불사의 희사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연은 종래의 여러 편목에서 왕족과 귀족층의 불사 희사와 사후 추선 등에 대해 서술해 왔기에 이 「효선」에서는 평민층의 봉양, 출가, 추선, 희사 등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효선」이 본사로서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른 편에 대해 이중의 유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전체 맥락에서 「효선」편이 가지고 있는 편차의 불가피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일연은 신라시대의 현실에서 유교의 비판에 대한 불교의 대응과 자신을 포함한 고려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편목을 편재했을 것이다. 일연은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으나 유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고려 후기의 상황은 불교의 사찰이 도교의 칠성과 무속의 산신과 불교의 독성을 삼성각 안에 아울렀듯이 불교와 유교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그가 효성이 지극했던 북송의 선사 진존숙(陳尊宿)을 사모해서 그의 아호를 '목암'(睦庵)이라고 했듯이, 그리고 국사(국존)의 자리에 있던 78세 때에 96세로 하세(下世)했다는 기별이 닿자 스스럼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했던 역정을 통해서도 그의 효선 인식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효선」에 실린 효선 관련 조목들 대부분이 불교와 유교의 공존 내지는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리상호,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이범교 역해,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불교의 효학의 이론과 실제」, 『불교와 생명』(불교춘추사, 2008).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신라인들은 효와 선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신라문화선양회,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추명사 를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더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의 고리가 되어 더욱 더 얽히고 깊어진다.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부산청암달마원

불교의학 장생법회

(사대천왕 항마법)
1. 수행자는 공부의 장애를 다스리고
2. 신도에겐 질병의 고통을 다스린다.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강 주 : 유리광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50-1(201호)
연락처 : 010-7387-2833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 및 작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북, 태징, 법고, 홍고, 작법)
02)532-0529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사에 필요한 그림 보시함

목단꽃, 잉어, 말, 용,
소나무, 달마도 등
어떤 크기 어떤
그림이라도 원하시는
작품을 직접 그려드립니다
010-8718-6262
국전수상경력 혜인 합장

최면 / 역학

최면 전생, 빙의퇴마, 우울, 각종심리 치료 (6회완성)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 명리학 속성완성 작명, 궁합, 사주
010-9342-9794
051-517-9793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전법을 위한 생활불교 강좌

대 상 : 스님, 법사,
불교에 관심있는 분
기 간 : 6개월
월회비 : 5만원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010-2493-2560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최 선 생 실전사주 수 업 공 개

–기초는 배울만큼 배웠지만 실전에서 헤매는 분들을 위한 고급 과정임
–매주 화,목요일 오후 5:30~7:20
–명리철학연구실 (종로6가 신신시장 건너편)
010-2382-3788
*신설 기초반은 7월초 개강예정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향기도의 비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시금 130만원,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010-6789-4952

사찰 관리하고 기도할 비구, 비구니 찾습니다

불자 부부 및
출가행자 환영
(강원도)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계룡산 근처, 조실 스님 도량
010-8776-126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관악구 약수사)
02)877-7514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7.5(금)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옆

신심있는 공양주, 법당 보살님, 함께 사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1-774-4099

불심과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도심속 청정기도도량–
(부산, 60 ~ 65세)
010-6582-313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달마일장금(경) 강의 (스님만 / 공양.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4일(1일 8시간 /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철학원 원장 011-838-1134
■ 장소 :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339번지 (여여암) ☎ 055)744-5300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 안 손으로 짚어 1분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첫날 오후 2시~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관 상 • 손 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알수있다.(산소,조상,가족문제)
•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 전국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스님 특별개인지도
010-4014-8822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947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 평수 30평, 공원 시장 입구 명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40만원
• 시설비 절충
010-3572-8426

암자(절터)급안내
• 위치 : 강화 마니산 경관 최고
• 임야 4100평
• 건축허가 200평
• 전기, 수도 완비
• 평당 10만원
010-7390-8575

기도처(토굴)안내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713-11번지
• 대지 : 상기 번지외 1필지 286평방미터(약 87평)
• 건물 : 149평방미터(약 45평)
• 시설 : 법당 : 삼존불 신중, 산시탱화. 영가단
• 요사 : 방 3개 부엌(현대식) 화장실 겸 욕실.별도 화장실 2개 있음
그 외 법당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졌음
• 가액 : 6,200만원
010 - 6312 -1178

선원(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부지 : 922평(대지 195평포함)
• 건물: 본채 45평, 부속채 18평
(나머지는 유기농 녹차밭)
• 특징: 정남향, 조망권 탁월, 청청환경
• 가액: 4억 8천(꼭 필요한분 방문환영)
016-565-4022

포교원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40-574번지
• 성심약국4층 반송큰시장 옆 포교원
• 40평 시설최고 방2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신중, 칠성 약사 후불탱화
• 산신, 용신, 장군, 원불, 법당 옆 정원 10평
• 욕실 2개, 비품일체 몸만 오시면 법회함
• 지하철 3분거리 버스 3분거리
051)527-5688
011-9501-5188

좋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평수 : 640평(대지 363평 기타 277평)
• 건물 : 법당 약 30평 요사채 2동 (각 28평)
• 미륵불 , 조경/시설완비 ,주차장 ,
• 양도 : 49,000만원
010 - 6422 - 12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진주에서 15분거리)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목조) 요사채 25평 산신각 3평
• 조용하고 전망좋고 옆 작은개울 흐름
• 가액: 3억 (보시고 절충가능함)
011-586-86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가격 답사후 절충) 시설완벽
010-4747-8796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다섯가지가 있다. 받을어 봉양함에
모자람이 없게 하며, 자기의 할 일을 먼저 부모에게 여쭈며, 부모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말며, 부모가 하시는 바른 직업을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선생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낙동강변 예쁜 토굴

- 총 대지: 약 200평 (반월리)
- 요사채 40평, 아자형 황토방 10평
- 마금산온천, 부곡온천 10분거리내
- 주남저수지와 낙동강변의 전망 최고
- 사찰형답장, 앞마당 잔디, 소나무 다수 식재
- 왕대밭과 솔향이 어울러진 토굴
- 양도가 2억 7천만원

토굴안내 (경주)

- 총부지 : 80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주변경관 수려함, 텃밭 200평
- 양도가 :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토지거래 해제 및 개발완화로 문화관련 시설 및 신축도 가능합니다
- 가액: 20억

011-372-774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 대지 약 90평, 건평 57평
- 법당 2층 27평, 스님 접견실
- 요사채 : 1층 접견실, 거실방
- 비구니 스님 적격임
- 가액: 2억 6천만원
- 현재 운영중

011-9625-1400

포교원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시내(중앙동)
- 4층 건물에 3층. 80평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아미타, 대세지, 지장, 관음
- 2013년 3월 점안
- 전세 250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절충불가함

010-3750-5424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답)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 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시 재궁동
- 평수 : 100평, 상가건물
- 법당, 공양실, 접견실, 방2개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60만원
- 불교대학운영, 다도반, 참선수행
- 전철역세권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3777-94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3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전세가능
- 전세 1,000만원 /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사찰 및 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 3층건물 3층, 100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차고, 심야전기, 인테리어 최고시설
- 법당 60평, 큰방2, 작은방1, 큰주방
- 욕실, 화장실 3층 내 스님 요사채
- 거실, 욕실, 주방, 방큰방 2개
- 전세 5000만원, 집기시설보시고 결정
- 옥상사용, 방수공사, 창고 방2개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010-4912-5007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읍 건천 IC 7분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3억 5천만원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84-3630

토굴터 된장효소 할수 있는 집

- 위치 : 영천시내에서 10분 내
- 대형 차 진입가능
- 전망 좋은 곳
- 505평, 9천만원

010-3505-650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 평수 : 약 78평
- 슬라브 2채, 화장실 2, 방3 , 현대식주방
- 모든시설완비, 2층 기초 공사 완료
- 가액: 절충가능
- 산밑 조용함

010-3477-663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시내 10분거리)
- 평수 : 72평
- 법당,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9천만원(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41)841-577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부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 삼존불, 산신,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방 2칸, 상담실, 살림가능 (108불 인연불)
- 총 2천 5백만원 (보 300만원, 월35만) 포함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경관 좋은 명당 길지
- 동산 내 6부 능선, 가옥 20평
-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상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임
- 가액: 2천 3백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덕 가흥2동 472번지 금 명 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월세 :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임 법 당

- 대구시 동구 방촌동 861-98번지
- 평수 44평
- 주택 1, 2층 방 7개 , 도시가스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꼭 하실분만
- 가액: 1억 5천만원

053-983-3920
010-9367-8184(보살)
010-5485-3920(스님)

아담한가옥(암자터)

- 위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경관 좋은 명당 길지
- 동산 내 6부 능선, 가옥 20평
-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상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임
- 가액: 2천 3백만원

010-2878-3380

신축 사찰(급)안내

- 남양주시 청학동,별내신도시 인근 (서울상계동에서 차로15분거리)
- 종교용지,전,도로 합500평
- 건평:147평(대웅전,지장전,사무동)
- 2013.5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
- 2011년 신축 (주차장 있음)
- 양도가격 : 18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구청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 108불, 산신, 칠성
- 방2, 상담실
- 보증금 1천 7백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2)394-7488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부암동 최요지
- 법당: (미타, 약사, 관음, 지장) 호신불 150 공양실 1, 스님방 1, 텃밭, 소대
- 시설완벽 주변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버스정류장 3분거리
- 100平정도(개인) 보증금 1천8백만원, 월 33만원
- 비품 시설비 절충

051)803-1580

안 면 도

- 전원주택 및 사찰,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 명상센터, 체험학습장 등
- 건물 2동(48평, 30평)
- 대지, 전, 잡종지 : 5246㎡
- 국유지 : 990㎡
- 가액: 6억 5천만원
- 건물 1동 (48평)
- 대지 전 4555㎡ (가액 5억)

010-9253-2527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2층
- 60평, 방3개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완비

070-8784-2010
010-5011-4096

포교원(급)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226-4호
- 법당 1, 방2개, 거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 법당 일체, 붙박이장, 에어컨 A급시설
- 보증금 1500만원 / 월75만원
- 일체 시설비 보증금 포함 2,500만원
- 최고시설 5층 건물에 4층
- 전체 : 약 40평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1억 7천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전세가능

010-8993-359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5630-12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수행도량, 조용, 530고지)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임법당 조립식판넬 19평 기타 9평
- 대지 180평 조립식판넬 요사채 3동
- 창고 1동 외부화장실 과수원 2700평 8년생,3년생
- 가액 : 5억5천만원
- 답사후 절충가능

010-4726-649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43평 (법당 3존불, 방2)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관리비포함)
- 시설비 1700만원

011-710-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암 자 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0-4130-0606

산 세 수 려 사 찰

- 위치: 경북 영덕
- 칠보산 아래 산세수려한 사찰
- 해수욕장과도 10분거리
- 인법당 창고 2동 대지 324평
- 요사는 현대식시설
- 산신각과 노천지장보살입불
- 가액: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상담 후 조정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 90평, 방 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245-2 (북삼오거리 대구은행 맞은편)
- 3층 건물에 2층, 70평(탁 트인 전망)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7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최상의 시설 모든 시설 완벽)
- 법당, 상담실, 스님방, 공양간
- 주변은 상가 지역, 구미와도 인접, 유동인구 많음
- 차량 주차장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 법회 가능
-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소리통 010-3850-717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사찰
- 면적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양도 : 1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지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1칸 (종무소겸)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183-06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경찰서 뒤
- 3층 중 1층 포교원
- 총평수 40평, 법당 약 20평
- 전세 8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800만원(조절가능)
- 주차 2대 가능

010-9376-7242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토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 찰 부 지

- 가평군 상면 율길리
- 금계포란형 2만평, 평당 16만원
- 이메일 주시면 토지주가 직접 번지를 공개하겠습니다
- 원로(큰스님) 모시고 좋은 일
- 하실분 현장답사 후 연락 주세요

soonlee2010@hanmail.net

지금 이순간을 관찰 잘 살기위한 수행 도량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2〉 위빠사나수행전문센터 천안호두마을


6월 24일 지도법사 중 한명인 빤디짜 스님이 중앙승가대 팔정도 스터디 멤버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수행지도 이어져
마음도 훈련…좋은 마음 쌓으면 행복
보시 · 재행사 없어 재정난 심각

무더운 여름이 오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간다. 이번 여름 세속의 일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마음의 피서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전문수행센터다. 국내 유수의 위빠사나 전문가들이 수행을 지도하는 이곳은 '지금 이 순간 잘 살기 위한 훈련' 을 위한 수행 공간이다.

6월 24일 충남 천안 광덕산 호두마을을 찾았다. 호두마을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손병옥 씨가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평균 20~30명의 수행자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법사 스님으로는 서현 스님, 김열권 법사, 아신 빤디짜 스님, 우또다나 스님, 도경 스님 등이 있다.

주지 무문 스님은 "평균 1주일 단위로 법사 스님들이 바뀌어 가며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 지도법사별로 수행지도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정은 좌선-경행-법문-개별인터뷰 순으로 이루어진다. 꼭 수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6월 24일은 아신빤디짜 스님의 법문과 개별인터뷰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빤디짜 스님은 "사마타는 선정에서 범천으로, 위빠사나는 청정에서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며 "위빠사나를 통해 몸과 마음이 바로 이 순간 있는 그대로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김정숙 보살은 9년전 호두마을 근처로 이사를 올만큼 수행을 생활화 하고 있다. "살면서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인간관계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심 등 부정적인 마음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수행을 위해 여러 시설들을 다녀봤지만 호두마을 만큼 수행하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이번 빤디짜 스님 수행 지도 시간에는 특별한 수행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바로 중앙승가대학인스님들로 구성된 위빠사나 수행모임 팔정도 스터디 멤버 14명의 스님들이 그 주인공이다.

팔정도 회장 선재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용적이라고 전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실생활에 용이성 접근성이 좋습니다. 현대생활에 적합해서 좌선과 경행을 나눠서 하다보면 신체리듬을 지켜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화선이 매우 추상적이라면 위빠사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수행의 효과를 빨리 체득할 수 있으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故 고익진 교수를 은사로 오랜 시간 대승불교를 공부했던 정진숙 보살은 호두마을을 통해서 수행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그리고 현재 빤디짜 스님을 은사로 모시며 위빠사나를 공부하고 있다. 정씨는 위빠사나와 간화선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호두마을에서 9번의 집중 수행을 하고 빤디짜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하고 있던 좌선이 위빠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간화선의 화두도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결합한 형태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의 기쁨을 안겨주는 곳이 호두마을이지만 이곳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주지 무문 스님은 "한 개인의 원력으로 조성된 곳이 호두마을이다. 하지만 보시나 제사가 있는 일반 사찰과는 개념이 다르다 보니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이 늘 부족하다. 특히 호두마을이 성립된지 15년이 되어가다보니 건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원력을 가진 후원자가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


천안 호두마을 전경

무더운 여름 마음의 힐링을 하고 싶다면 호두마을로 떠나보자. 그곳에서 나의 내면을 닦아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041)567-2841 정혜숙 기자

대중이 생각하는 행복은 음식에 빠진 '똥' 과 같아

위빠사나 수행지도자 빤디짜 스님



"대부분의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맛있는 음식에 빠진 똥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똥이 빠져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그 행복은 한계가 있는 행복이죠."

아신 빤디짜 스님〈사진〉은 인간들이 쫓는 행복의 허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아신 빤디짜 스님은 현재 부산 담야선원을 설립, 근본불교교리와 위빠사나수행 법문을 지도하고 있으며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님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호두마을에 머물며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자애 명상을 통해 매일 매일 좋은 마음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마음도 훈련입니다.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훈련을 통해서 쌓아 나갈 때 행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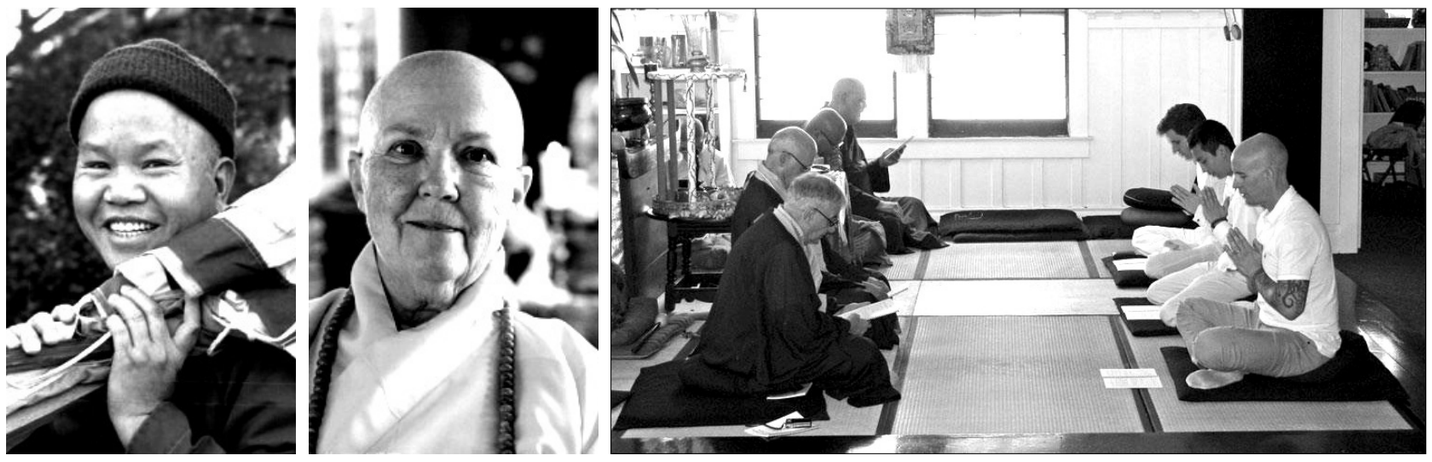
스님은 모든 수행을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나뉠 수 있다고 전한다. "염불 등을 통해 집중 · 몰입을 강조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본성을 보는 것이 위빠사나입니다. 사마타 수행이 마음 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위빠사나는 지혜를 증장시키죠"

스님은 이렇게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아상이 깨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0〉 미국 국제불교명상센터(IBMC)

상좌부 · 대승 · 정토 · 선종 등 합동 수계…계사 비구니


국제불교명상센터(IBMC)를 설립한 틱 티엔 안 스님(좌)과 법계승자인 카루나 다르마 스님(우). IBMC는 베트남 전통불교를 따르지만 각국의 불교가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를 풍기는 명상센터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 학자 틱 티엔 안 선승 설립
각국 불교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
미국 최초 비구니 카루나 다르마 활약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불교명상센터(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Center, IBMC)는 베트남 불교를 비롯해 상좌부, 정토종, 선종 등 다양한 불교 종파를 흡수해 미국에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IBMC 설립자인 틱 티엔 안(Thich Thien-an, 1926~1980) 스님은 베트남 학자이자 선(禪) 마스터로, 미국에 베트남 불교를 알린 주요 인물이다.

1966년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동양철학과 방문교수로 처음 미국에 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이듬해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불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명상과 불교교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틱 티엔 안 스님은 1970년 로스앤젤레스 버몬트 거리에 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해 IBMC를 세웠고,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방문객이 늘어 자리를 옮길 정도로 서구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센터는 현재 뉴햄프셔 애비뉴에 위치해 있다.

비구니가 계사로 구족계 내리는 곳

국제불교명상센터는 베트남 전통불교를 따르지만 각국의 불교가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를 풍기는 명상센터로 자리 잡았다.

틱 티엔 안 스님이 1980년 간암으로 입적 하면서 가장 가까운 법계승자인 카루나 다르마(Karuna Dharma) 비구니 스님이 센터를 운영했다.

국제불교명상센터는 미국에서 최초로 비구계를, 1976년에는 비구니계를 주었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계를 받은 인물이었다.

기독교신자였던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18세가 되던 해 교회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고 UCLA에서 틱 티엔 안 스님의 '불교와 선' 강좌를 듣게 됐다.

그는 틱 티엔 안 스님에게서 온화한 미소와 함께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곧 그의 학생이 됐다.

IBMC는 대수계식을 갖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4년 IBMC는 각기 다른 전통의 계사와 스승들을 30명 모셔놓고 대수계식을 가졌는데,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금강승, 정토종, 선종 등 다양한 종파의 비구 · 비구니 스님이 함께 수계 책임을 맡았다. 여성계사(카루나 다르마)가 남녀 모두에게 구족계를 내린 것은 미국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계식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27명의 수계자는 자신의 전통에 맞는 승복을 입고 수계를 받았다. 이후 1997년에 제2차 대 수계식이, 2002년에 제3차 대수계식이 봉행됐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1994년 뇌졸중을 겪은 이후로 불편한 몸이 됐지만 불교승가협회(Buddhist Sangha Council) 부회장직과 샤카디타(세계불자여성대회) 창립 회장으로서 활약했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이 2012년 11월 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뒤 스리랑카 출신의 하반폴라 샨티(Havanpola Shanti) 스님이 IBCM을 이끌고 있다.

직장인위한 명상수업, 저가 임대주택 제공

IBMC는 매주 일요일 오전 일요법회를 열어 30여 분간 법문을 펼치고 15분 동안 명상수련을 진행한다. 수 · 금 · 일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명상수업도 열고 있으며, 교리수업도 마련됐다. 쿠살라(Kusala) 스님이 매일 오후 7시 IBMC의 설립자인 틱 티엔 스님의 저서 〈Zen Philosophy, Zen Practice(선 철학, 선 수행)〉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IBMC는 수행 뿐 아니라 사회참여활동도 하고 있다. 공동부엌과 욕실을 사용하는 저가의 주택을 제공해 불자 · 비불자 모두에게 임대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감자들과 편지를 통해 명상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급학생들 중에는 한 사람이 60명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노숙자들과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매해 핼러윈 파티와 야외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어머니 살해한 죄 참회…아라한과 증득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7)

부수보살의 교화

한 남자가 나무 아래서 괴로워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내가 죽이다니…. 나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그를 지켜보던 부수보살은 그가 율행을 닦아 현세에 제도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부수보살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신통으로 자신의 부모 모습을 만들어 어머니를 해친 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남자가 보이는 길에서 부수보살 부모는 변신한 부수보살에게 말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러자 변신한 부수보살이 말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마침내 변신한 부수보살이 화를 내면서 부모를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는 몹시 슬피 울면서 그 남자 곁에 다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부모님을 죽였으니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걱정을 늘어놓았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생각했다.

'지금 이 사람은 양친을 모두 살해했지만 나는 어머니만을 살해했다.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중대한 죄를 지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저지른 죄는 그 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것이리라. 그가 죄를 받는 것을 알고 나니, 내 죄가 오히려 가볍다는 것을 알겠구나.'

변신한 부수보살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로 가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도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를 받들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변신한 부수보살은 슬피 울면서 길을 떠났다. 그러자 어머니를 죽인 그 남자도 변신한 부수보살의 뒤를 따랐다.

"이 사람이 허물을 뉘우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나의 죄가 좀 더 가벼우니 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면 나 역시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신한 부수보살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양친을 살해하는 중죄 중의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신한 부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비록 부모를 죽이는 중죄를 저질렀으나, 속이는 바 없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구나. 참회의 마음이 지성스럽고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니, 마땅히 스스로가 관심(觀心)의 법을 살펴라. 무슨 마음으로 양친을 살해했는가? 과거의 마음으로써 한 것인가? 그것이 과거의 마음이라면 이미 사라졌으며, 현재의 마음이라면 이별하여 떠났도다. 그 마음은 처소가 없고 방향도 없으니, 어디에 있는 줄 알 수가 없다. 또 그것이 만약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니, 모인 곳이 없어서 아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간다든가 온다든가 하는 것이 애초에 있을 수 없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밖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둘 사이에 처한 것도 아니며,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변신한 부수보살이 말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여래께서는 가장 바르게 깨달으신 이라 법계는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또 의지할 것도 없음을 훤히 아십니다. 원하건대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존의 가르침을 받는 사문이 되어 구족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야."

그러자 변신한 부수보살은 그 앞에서 바로 사문이 되어 이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통으로 이제 멸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으로 변신한 부수보살은 허공으로 멸도 했는데, 그의 몸 안에서 불이 나더니 그 몸을 다 태웠다.

변신한 부수보살을 뛰 따라온 남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생각했다.

'저 사람도 사문이 되어서는 이내 멸도 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한 대로 하리라.'

그리고 그 남자도 바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이며 말씀드렸다.

"저 역시 모친을 죽이는 중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역시 너의 죄가 중한 것을 알고, 스스로 참회하는구나."

그때 그 남자의 모든 털구멍에서 지옥의 불이 솟아 나왔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데도 구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 몸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금빛 팔을 내밀어 그 남자의 머리 위에 다 놓으시니 불이 바로 꺼졌다. 여래 몸의 여러 가지 상호를 보게 되자 몸의 고통이 없어지면서 편안해졌으므로, 또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문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내 허락하시어 그 남자 역시 출가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4제법을 말씀하시자, 그



삽화 · 강병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제거하여 깨끗한 법안을 얻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수행하여 불환(不還)을 얻게 되고, 아라한을 증득한 다음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열반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여라."

이 때 비구는 땅에서 네 길 아홉 자 떨어진 허공으로 솟아오르더니 몸에서 저절로 불이 뿜어 나와서 제 몸을 태웠다. 수많은 천인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했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래의 은혜로 베푸신 설법과 계율이 중죄를 지은 자를 제도했습니다. 여래 같으신 큰 보살만이 온갖 중생의 근원과 싹을 보고서 그에 맞추어 제도하실 수 있으니 이것은 성문과 연각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심본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㉗



모든 것이 법문

가족

가족이라면 무조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생명도 가족임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기르고 있는 열대어가 있는데, 그 중 '구피' 라는 작은 물고기를 누가 주어서 작년부터 키워왔다.

나는 옛날 내가 처녀 적에도 집에서 키워본 일이 있어서 그동안 잘 키워왔다.

그런데 몇 차례 새끼를 가진 어미배가 불룩 한 것은 보았는데, 정작 새끼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새끼를 낳자마자 다른 물고기들이 어린 새끼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미고기를 작은 어항에 옮겨 따로 있게 해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작은 어항엔 새끼 고기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같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나는 너무나 반갑고 흥분되어 혹시나 엄마고기가 새끼를 잡아 먹을까봐 얼른 어미고기를 빼내어

'가족' 의 범위… 생각하기 나름
자라는 아이 보고 늙는 '나' 보게 돼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놓았다.

작은 어항에서는 새끼고기들이 부지런히 작은 어항을 맴돌고 있었다. 어미고기에겐 당장 어항을 더 큰 것으로 바꿔주고 편히 쉬고 또 활동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틈만 나면 나는 새끼 물고기들과 놀아주었다. 생명이란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다. 그냥 많은 큰 고기들 속에 있었다면 다 잡아먹힐 뻔 한 일이었다.

언젠가 우리 손주 녀석이 세 살 쯤 되었을 적에 길 위에서 죽어있는 여치를 보고 불쌍하다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고 곁에서 바라보던 우리 모두가 마음이 찡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기도 했다.

다른 집에선 귀한 물고기들을 크고 예쁜 어항에 담아 키운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는 비록 볼품없는 싸구려 어항에 값비싼 고기도 아니지만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이쯤 되면 '가족' 이 아닐까 싶다. '가족이냐, 아니냐' 의 기준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인 것 같다. 가족으로 '생각' 한다면 어항 속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족일 수 있다.

'가족' 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족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죽순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우리 단지에서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한 동안 못 보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커 있었다. 그야말로 비온 뒤에 자라는 죽순처럼 쑥쑥 자라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이 저토록 컸다는 것은 내가 많이 늙었음이리라.

얼마 전만 해도 젖병을 물고 있던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고 걷더니 어느새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닌다. 볼 때마다 쑥쑥 죽순처럼 키가 커서 이제는 올려다보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시간은 내가 모르는 새 흘러만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쉽고 서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흘러 간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운 나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는지.

게다가 요즘은 나이 탓인지 조금 전의 일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아이쿠 큰일 났다. 이제 정말 내가 얼마 안 남았나보다'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진다. 너무나 해 놓은 일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영부영하지 않고 잘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때마다 마음을 다시 고쳐 먹는다.

가끔은 나를 보기 위해 주변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싶다. 그날 나는 나보다 더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아이들이 나를 알게 해준 것이다. 나를 돌아보게 해준 것이다. 아무 말 없이 나를 일깨워준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아이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 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많고 많을 것이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 말씀도 그런 것일 것이리라.

이제 얼마 안 있어 벗어야 할 몸뚱이 하나에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것을 보니 나의 공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동네의 아이들을 보고나니 서울 사는 손주가 생각났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는 어느 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랬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세월에 맞춰 변해 가고 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변해가는 것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을 열면 모든 것이 법문인 것임을 새삼 느꼈다. '나' 를 보기 위해선 주변을 보아야 함을 깨달은 하루였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지금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막힌지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좀 늦게까지 자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푹 자 버려요. 요렇게 마음이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먹는 데 따라서 모두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천치 바보처럼 봐라. 거기에 속지 말라. 바깥에서 보는 거 듣는 것에 속지 말고, 안에서 나와서는 화나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는 놈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양면에 다 속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겠죠? 그래서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혀가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남한테 해롭게 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늦도록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식구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할 테죠. 또 아내가 남편, 애들 밥도 안 해 주고 저녁 늦도록 있다가 들어가면 식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양쪽이 다 좋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악업이다 이거야. 선업은 못 돼. 남의 마음을 그렇게 언짢고 괴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선해지겠소?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냥 저절로 선지식이요, 저절로 훤히 밝아질 것이요, 그대로 거기에서 중용을 하니, 중용! 죽은 세상 산 세상을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하니까, 요리를 하니까 이 속에 들어 있는 마음들도 전부 그 한마음에 따라 줄 뿐더러 바깥에 있는 마음도 다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다 거기 지배인의 말을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장자 아닌 주장자요 몽둥이 아닌 몽둥이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꼭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한 번 남한테 맞은 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업보를 다 벗어나게끔 하려는 부처님의 한 방망이는 맞으면 아주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울 거라고. 물질을 가진 것은 다 고통스러울 거라고. 지렁이도 가다가 누구한테 밟히면 그냥 고통스러운 거라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에서 좀더 벗어나고 노예생활에서 좀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한마음의 공부를 해 나가면서 모두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나 아님이 없고 가르침 아님이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어, 모두가 가르치는 거니까. 어느 것 하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거든. 그런데 그것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좋게 생각을 해서 배우라구요.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탁 할퀴는 걸 봤을 때, 그럼 그 고양이처럼 할퀴고 살겠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주인이야.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거는 하고,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그대로 선지식이요, 그대로 부처가 될 거 아니겠소!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죽으나 사나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예 살아서 죽으라구, 응? 살아서 죽지 않으면 열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근접도 못 해.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이거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고 모두가 이름이니까 그 이름 아닌 그 속의 이름, 그, 그 속의 이름…, 그런데 더군다나 부처라는 소리, 보살이라는 소리, 그것도 이름인데 그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왜 안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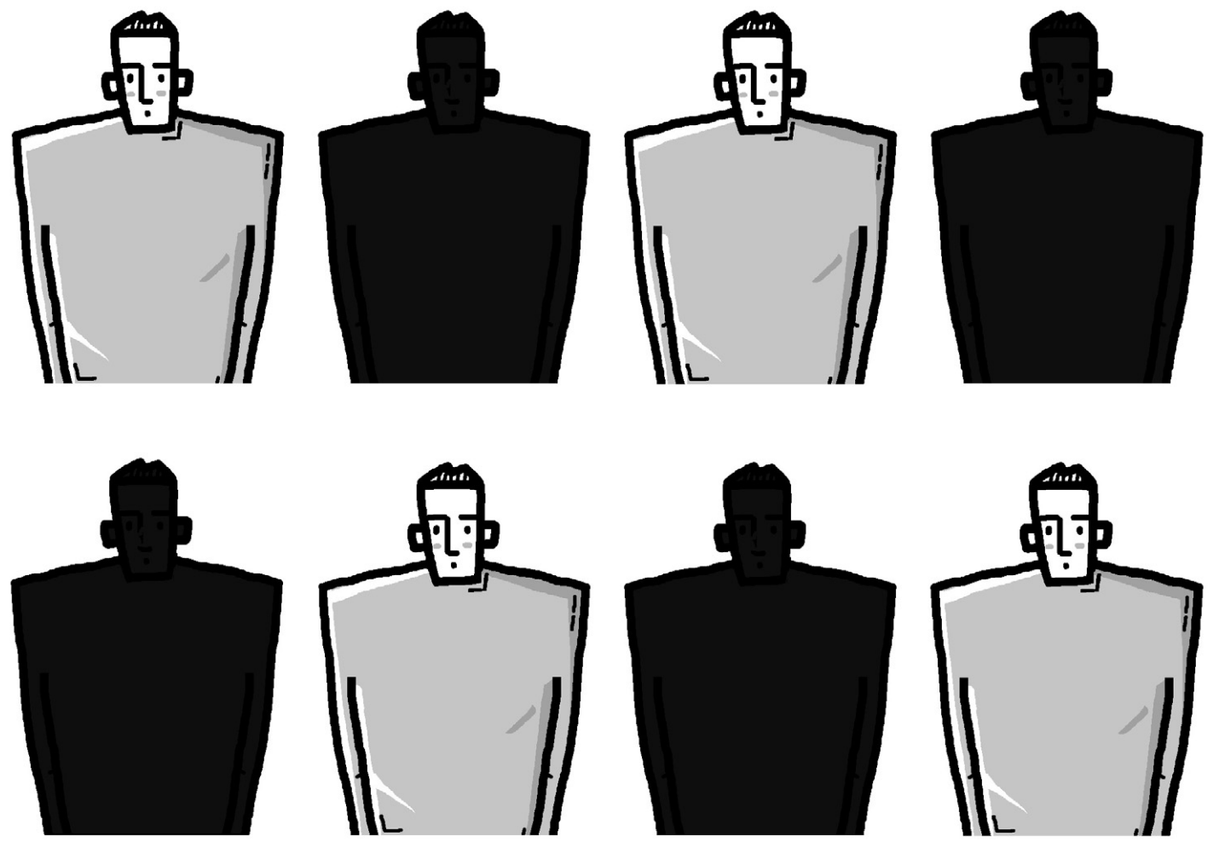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하신 질문의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은 지가 3일이 됐고 본 지가 3일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 옛날의 선지식 같으면 벌써 죽비가 들어갔을 거야. 하하하….

질문자2(남) :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좀 때려 주십시오. 큰스님 법문 중에서 로케트 발사 때, 또는 우주 정거장을 세울 때 우주의 인가가 없으면 실패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큰스님 : 그랬지.

질문자2(남) :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대 과학에서의 업적은 우주와 상응할 수 있는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큰스님 :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놈의 마음이나 물질이 없는 놈의 마음이나, 또는 저런 한 잎새의 마음이나 물의 마음, 불의 마음, 바람의 마음, 그 모든 것의 마음에 작으면 작은 대로 응해 주고 크면 큰 대로 응해 줘서 전부 한마음이니 무슨, 누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어딨어? 그대로 그대로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마음의 공부를 해서, 그 마음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주 정거장을 저 허공에 못 세운다 이 소리야.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분께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다면 한마음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전체가 잘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발되는 걸 좋아하고 그러죠?

예전에 서산 대사가 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짐승을 괜히, 그것도 내 생명이나 똑같고 그것도 나 아님이 없는데 괜히 떨어뜨리겠소? 괜히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법이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허공에 정거장을 세우고 그럴 시기가 못 돼.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한마음이 안 됐기 때문이지. 부처님 도량에서 천체가 한마음으로 묶어 봤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회의를 했다고. 하하하…. 그래 회의를 하는데, 나도 여러분도 다 참석을 했지만 귀가 먹었으면 못 들었을 거고,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못 봤을 거고, 또 뜨인 사람은 들었을 테고 봤을 거라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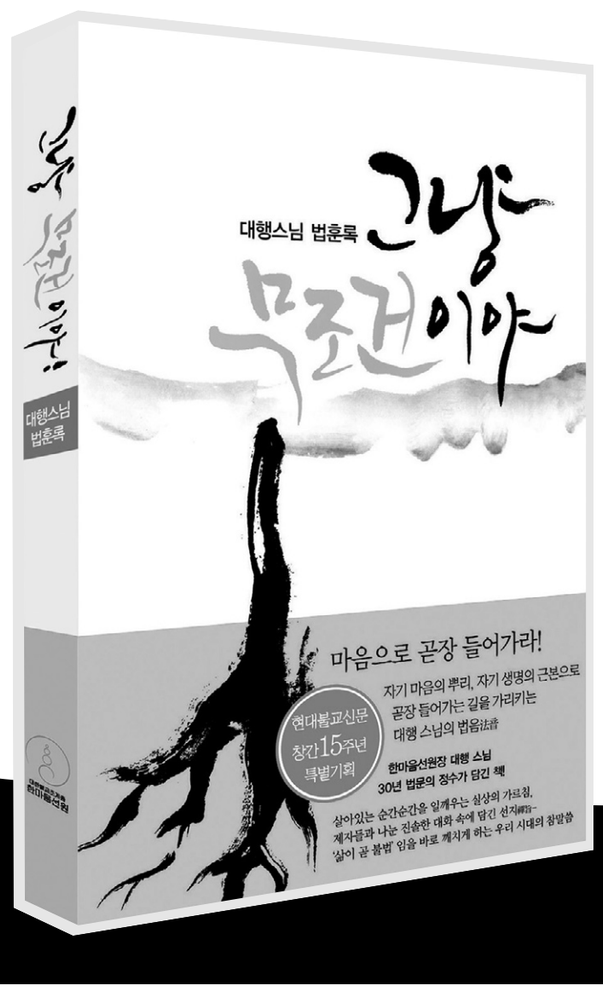
질문자2(남) : 최근에 우주인과 만난 독일 농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지구의 조상은 우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초부터 인간의 씨로 만들어졌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진화론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멸망 운운하는 종교도 있고 하니, 큰스님께서 지구의 생성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 하하하…. 이거 봐요.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고, 물 · 불 · 흙 · 바람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불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죽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건 이름이야. 안 그럴까? 그런데 우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도 바로 우주인이 있잖아? 주인 아냐? 우주의 주인. 여러분들 다네. 아니, 이 세상에 우주인 아닌 사람이 어딨어? 진드기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하하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 한마음 공부를 하면서 모두를 얕잡아 보지마세요

☞ 29면에서 계속

그러니 딴 데서 찾지 말고 최초에 나온 것은 어떤 놈이며, 앞으로 미래에 갈 놈이 어떤 놈인지 그거를 잘 보라고. 지금 어떤 놈인가 보라고. 우리가 만날 색경을 보고, 나는 머리 깎을 때만 보지만. 허허허…. 머리 깎을 때 색경을 보니까 못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 닳은 대갈마치처럼 홀랑 그냥, 예전 같으면 삭두로다가 그냥 쩍쩍 했는데…, 그 참 묘해, 그놈이 말이야. 그놈이 한 놈이 아니더라고. 그놈이 한 놈이 아냐. 아, 색경을 보니까 말이야, 그놈이 모습은 한 놈인데 아니, 한 놈으로 보이지만 말이야, 그놈이 한 놈도 아니요, 그놈 자체도, 색경으로 보이는 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놈이 아니더라고. (잠시 멈추시고) 그러니 우주인은 바로 지금 이걸 쥐고 있는 그놈이 바로 우주인이거든.

질문자2(남) : 큰스님의 말씀을 제가 다 먹었다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큰스님 : 하하하…, 이거 봐. 자네가 공했는데 먹을 것이 어딨나? 응?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뱉을 것은 뭐 있나, 또? 먹었다면 먹은 걸 좀 내놔 보지.

질문자2(남) : 내놓으라면 저는 노래를 한 번 부르겠습니다.

큰스님 : 하하하…. 그래 그 말도 옳아. 옳고 말고….

옛날에 이랬지. 지금 여기 여러분 중에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에이그, 이 대답은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 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 먹었다, 부처님께서는 다 잡순 바가 없고 생각한 바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겠소? 왜냐? 잘 생각해 봐, 내 여직껏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이것으로 저걸 보면 저것으로, 부처님이 그릇대로 맞춰서 응해 줬다고, 응? 그릇대로 맞춰서 응해 줬어, 다. 일체 만물만생 천체를 무정물까지, 생각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전부. 야, 집어 먹었으면 토할 줄을 알아야지. 집어 먹기만 하고 토할 줄 모르면 죽어. 콧구멍에 숨쉬고선, 후루루 들이쉬고선 내쉴 수 없으면 죽지. 하하하….

질문자2(남) : 그걸 도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받으십시오.

큰스님 : 그래, 하하하….

질문자3(남) :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 보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질량이 이제 거의 없고 수명이 지극히 짧은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은 유(有)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無)의 세계를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는지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음의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분만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단군할아버지도 그 사는 법을 가르쳤고, 또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쳤어요, 부처님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3(남) : 유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서 무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는지?

큰스님 : 그거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내가 말하듯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교차로에 있으니까.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와 같은, 그 교차로에 죽음과 삶이 있다.' 이렇듯이, 우리 지금 세상이 이게 물질세계로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교차로를 넘어서야 된다, 정신세계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차로를 넘어서야 하는 것과 같죠. 그것도 들이고 내는 그 교차로, 거기 한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물질세계로 지금 팽창될 수 있다면, 정신세계로 진화돼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한마당 한식구가 되죠. 세계평화가 온다 이 소리죠. 그러한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뭐 걱정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고도 못 믿죠?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내서 지켜보라고, 어떤가? 의심하지 말아요.

지금 물어보듯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성사가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다면 되겠소? 네? 내가 목말라서 죽겠는데 물을 들고, '이 물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다면 그 목마른 게 다 없어지오? 물을 먹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목마를 땐 그냥 무조건 먹는 것이 장땡이지, 장땡이라고. 그리고 물이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놓는 게 또 장땡이거든. 그러니까 어줍잖게 내가 조금 알아 가지고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고 막 생각 내지 말고,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한생각을 내라 이거야.

모든 것을 망상이라고 끊어야 한다고 할 게 아니죠. 생각나고 생각나고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순리적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소. 이 생각 하고 저 생각 하고 또 딴 생각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자꾸 자꾸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게 망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 몸, 나온 거 들어간 거, 사는 거, 보고 듣는 거, 몽땅 그놈이 하는 거다.' 고 맡겨.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놈, 자기 주인공한테다 모든 것을 맡겨.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맡겨 놓고 그놈이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방황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금방 죽는대도 방황할 게 없어. 그게 바로 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야! 조금 늘려 놓으려면 늘려 놓고 줄이려면 줄이지, 뭐 걱정이냐 이거야.

이 무심도리(無心道理)가 지금 시쳇말로 정신세계의 한마당에, 그 한자리에, 그 만봉(萬峰)에, 만봉! 만봉 봉(峰)에 연꽃이 피어서 이 세상을 두루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멋진 도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한마당이 있는데 왜,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 안 그런감요?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허이, 참 내. 올려놓는 것도 법, 내려놓는 것도 법인데 자유스럽게 삽시다. 자유스럽게, 이 자유스럽게 사는 방법을 배우려면 마음공부밖에는 없어요.

사회자 : 저희 욕심 같아서는 큰스님을 모시고 한마음 도리를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거, 무궁무진한 거, 이날이 다 가도록 여쭤보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고 좀 쉬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 아니, 글쎄 이거 보세요. 이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귀를 맞춰서 질문하려고 그러고, 또 무엇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질문했으면 해요. 여러분이 뭘 맞춰서 '아이구, 이 대답을 하면 틀릴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틀리면 어떻고 안 틀리면 어때요? 안 틀리는 것도 법, 틀리는 것도 법인데, 예? 이 세상에 하나라도 쓸모없는 게 어딨어요? 다 쓸모가 있지. 아, 산에 올라가 봐요. 벌레 먹은 고목도 있어야 조화를 이룬다고.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이라니까.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예 비뚤어져, 벌써.

> 모든 거 하나하나 전부 나 아님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습니다.
> 어느 것 하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좋게 생각을 해서 배워야 합니다.
>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하고
>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 그대로 선지식이요, 부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어린애면서 장래의 어른인 그 애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고도로 발전이 돼서, 아주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어떡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걸로만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지요. 지금 정말 우주 정거장을 세울 때에 허가도 줄 수 있고 또 무허가로 지은 거 그냥 부술 수도 있고, 이럭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거든요.

그것뿐인가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에 역대 조사들이 그렇게 다녀서 가셨는데 왜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별도 겁껍데기만 싹 벗고선 그대로 또 밝아지는데…. 네? 인간도 겁껍데기 벗겨지는 거는 진리를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거든, 그것도. 괜히 옷 벗는 게 아니에요. 새 옷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도 지구라는 집 한 덩어리를 놓고는 진드기처럼 지금 붙어서 살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문제가 생기면 지구 집이 헐어진다, 부서지고 망한다, 팽창되면 팽창되는 대로 나빠지고 또 타 버리면 타 버리는 대로 나빠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태양보다 더 밝고 크고, 영원하다는 거를 아셔야, 태양도 달도 이게 다 방편이지마는, 지구도 지탱할 수 있고, 우리 몸도 영원히 지탱할 수 있고, 영원히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앞으로 부모 조상들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급제하면 왜, 어른들도 함께 격상하고, 그 집 살림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는 거와 똑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 봐요. 그 식구들도 다 그냥 대우받죠. 안 그래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면서 아래로는 햇빛을 주면서 빛이 되게끔 하고 그 뿌리가 썩지 않고 영원하도록 하게 할 수 있죠. 이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도 없어요. 금이라는 게 변함이 있나요? 금은 금이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은 땅속 깊이도 한정이 없고, 물속 깊이도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자 한 치도 안 틀리고, 그렇게 한정이 없기 때문에 고기들도 다 살고 있잖아요? 태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태양이 좋다 하더라도 물밑에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그 바다의 왕은 바로 자가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법계(法界)의 소용돌이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밝게…, 캄캄해도 마음이 밝으면 그대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밝게 볼 수 있어. 갈빗대가 몇 개고 또 소나무 하나하나의 가지가 몇 개고 이런 거까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봐 보세요, 그게 보이나?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 자가발전소 마음으로 보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용 룡(龍)' 자를 쓰게 돼 있고 그렇죠?

사회자 : 오늘 큰스님의 큰 가르치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91년 7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비취목걸이 (흰녹 · 진녹) 가액 ₩180,000원

비 취 팔 찌 (흰녹)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원적외선의 효능 및 효과 >

- 항균, 공기정화에 도움
- 신진대사 촉진기능
- 숙면,방균,곰팡이 번식 방지 효과
-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노폐물 및 유해중금속 배출에 도움
- 발한작용, 통증완화에 도움

불만 밝히는 기존양초와 몸에 좋은 원적외선 에너지를 펑펑 쏟아내는 양초 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존양초와 가격은 동일!!!

초를 켜는 순간부터 유익한 원적외선 에너지가 실내에 가득~~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머리가 맑아져 심신수양에 도움을 주고, 탈취, 항균효과까지!!!

개미, 바퀴벌레 퇴치에도 효과적 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대명" 원적외선 양초입니다.

원적외선은 적외선중 파장이 가장 긴것으로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되지만 파장이 길면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침투력이 강해 일반 열과 다르게 진피속을 투과 생체내로 침투되어 자기발열을 일으켜 온열효과를 일으키며 세포 조직의 활성화로 몸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 특허출원 제 10-2013-0041564
- 한국원적외선 협회 시험성적완료
- 한국원적외선 협회 품질보증 마크FI 획득

신비의 원적외선



대명산업

양초에 붙어있는 품질보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 문 의 >
문 의 : 02) 502-9977
팩 스 : 02) 503-5233
핸드폰 : 010-8881-0474

불자 세상보기

6. 25의 아픔을 모르다니…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거두었노라
대한의 혼이 소리처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 숲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원수의 하늘까지
나는 새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이 글은 모윤숙(毛允淑 1910-1990) 선생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의 중간 중간 몇 줄을 따낸 대목이다. 오늘날 70대 이상의 6·25체험 세대들은 이 시를 학교에서 배우거나 방송에서 듣거나, 책에서 보거나 하여 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이 시처럼 한 병사의 주검을 통해서 조국 수호의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게 하는 애국심, 꽃잎처럼 사라져간 한 젊은 생명의 애절함 속에서 눈물을 참을 수없게 하는 말 또는 노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는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언제나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6·25 북한의 남침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60년, 어언 두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이 총뿌리를 맞댄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 김일성 집단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침략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3년 1개월동안 남북간에 벌어진 군사적 싸움이다. 공산권에서는 북한, 소련, 중공, 자유진영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이 참전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전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한국군 전사자 14만 7천명을 포함하여 UN군이 18만명 이상 전사했고,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90만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8만 5천명에 달하는 남한의 인사들을 납치해 갔고,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인구의 4부의 1에 해당하는 3백만명의 민간인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 왔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모든 참전국들의 희생자를 전부 합치면 2백만명이 넘는다. 실로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참혹한 살상의 비극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와 학생들은 이런 6·25를 잘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해도 잘못 알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교육의 부재고, 다음 둘째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6·25에 관한 서술은 3-6페이지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수업도 넉넉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재도 수업도 모두 부실한 것이다.

그나마 내용이나 교사들의 가르침 역시 거의 모두가 6·25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에 따르고 있다. 한마대로 북한의 남침을 '남한의 북침'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6.25에 대한 수정주의란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남한을 침략 한것"이란 학계의 정설(정통주의)을 부인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1)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2)38선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런 수정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한국전쟁의 기원」을 쓴(1981) 시카고대 부루스 커밍스다. 80년대 이후 한국의 일부지식인과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이런 수정주의를 받아들여 6.25는 마치 남한의 북침인 것처럼 왜곡하여 일반이나 학생들에게 선동하고 교재에 까지도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6·25에 대한 현주소다. 1991년 6·25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전쟁이란 구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부루스 커밍스는 여러차례,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도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며, 나는 수정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수정주의적 견해를 다시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수정주의자들도 다시 자기들의 견해를 수정하여 올바른 6·25의 사관을 가져야 할것이다.

6·25에 대한 바른 교육과 바른 인식만이 한국자유민주주의 굳건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한다.

발언대

잇달은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계를 공분하게 했던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이 친불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벌써 4건의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의 공격적 선교 논란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SNS에 나타난 대중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불자들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강대 교수

인천공항청사 특정종교시설물 설치부터 시작해 미래과학창조과학부 내 기독교선교회의 활동,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보병 50사단 식사 기도문의 특정종교 지칭 등 최근 공직자종교편향 사례(본지 946호 게재)가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분노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사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종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동료 부하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부서는 국민에게 편향적 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첫째로는 불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노출 시켜야 한다.

공직자들은 동선 자체가 권력의 행사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종교는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종교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종교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될 일이다. 또한 국민들은 선거 등을 통해 이런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로 끝날 것인가 이후의 유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가는 불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불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조치 혹은 결과를 자료화해 종교 편향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연기의 법칙은 얽혀 있은 잊지 말자.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미래 '창조' 과학부라는게 나왔을때 사람들이 창조과학 냄새난다고 씹을때만 해도 농담에 가까웠는데 정말 그 부서에서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선교운동을 하자는 등…. 질나쁜 농담이 현실이 되는 시대.

〈트위터 milln @lain2pm 〉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한 기독선교회의 공격적 선교활동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세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치유는 사법정의부터 실천하는 것인데 선교회라니? 〈트위터 바닷속 @2badasok〉

미래창조과학부의 선교단이.모든정부기관에 개신교전도단설치를 기획 이명박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박근혜정부는 종교편향이 없을줄알았는게 바보다 신천지등 요상한 괴물들이 설친다. 창조과학이라는 괴물도 개신교 광신단체가 기획한 것이라면 박통정부 무너진다. 〈트위터 윤소암 @kunkang108〉

대놓고 미래부의 '복음화'가 목적이라는데 종교에 중립적이어야할 정부기관을 개신교가 손아귀에 넣겠다는 건가. 개신교를 국교로 하자고 덤빌거 같다. 〈트위터 에스텔 @toestel77〉

미래창조과학부. 도대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적으로 과학을 부인하는 '창조과학'과 관련 되는데. 거기에다가 창조과학과 교수를 부서장관으로 둔다는 소리야? 이 나라 종교에는 개신교만 있냐? 〈트위터 김영민 @ncb00 〉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의 공격적 선교활동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교회 측은 설립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상일@dorasanhyunsoo〉

교과서에 창조론을 끼워 넣으려는 개신교의 꼼수.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군요. 4년짜리 신이라….

〈문 토토로 @_Jmy 〉

社說

반성할 점이 많은 194차 중앙종회

장단점이 있지만, 조계종의 행정 체계는 정부 시스템과 흡사하다. 이유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총무원을 비롯한 삼원은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이고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역할은 중앙종회가 담당한다.

세간의 국회도 그렇지만 조계종의 중앙종회도 지탄을 받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6월 25~ 26일 열린 194차 중앙종회가 딱 그런 사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팔공?쌍계?금정총림 방장 추대와 청소년?단기출가 특별법 제정 등의 일부 성과를 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퇴장과 종헌 부결, 쟁점 빠진 총림법 제개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을 넘기가 어렵게 됐다.

25일 다뤄진 종헌 개정안에서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해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자는 종헌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이를 항의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전원 퇴장해 종회 불참을 결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종헌 개정 부결과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불참으로 일부승가 회의가 된 이번 종회는 회의 운영에도 오점을 남겼다. 의사정족수인 41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 진행이 번번이 중단됐으며 급기야는 종회 사무처 직원과 일부 의원 스님들이 의결을 위해 의원 스님을 찾아다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종회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비구 스님의 폄하 발언에 비구니 스님들의 퇴장으로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도를 대표하는 입법기구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졌다. 종회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임시회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입법기구를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붓다로 살며 인류에게 희망 주자

불자들의 가장 큰 발전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불성을 마음수행을 통해 계속 증득하면서 부처님 같이 살면 된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붓다로 살자는 움직임이 대중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인 사부대중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가 지금 여기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결사의 생활화 대중화를 선언하는 출범식을 6월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었다. '붓다로 살자'는 사부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승가와 재가의 차별이 없고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이 오직 붓다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전국적인 모임이다. 슬로건이자 단체명인 '붓다로 살자'도 의미심장하다. 과거 신행의 구호였던 '부처가 되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부처가 되자'는 나는 중생이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고 수행해야 하는 미래형의 외침이었다면, '붓다로 살자'는 내가 이미 본래 부처임을 알고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부처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현재형의 의미가 담겨있다. 또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이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 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도법스님은 지금 바로 여기서 붓다로 살아야 21세기 한국불교와 인류문명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전북불교대학장도 "부처로 살기 위해 깨달아야 한다는 갈망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부처로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은 △매일 1백원 이상 보시 △남의 말 경청하기 △소박한 밥상 차리기 △매주 하루 자가용 없이 다니기 △매주 동네 한바퀴를 돌며 공동체 살피기 등 생활속에서 붓다로 살기운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여기서 제시한 실천덕목이외에도 부처님이 사신 그 발자취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닮도록 노력해 간다면 우리 모두 성불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社團法人 세계불교법왕청 정식 출범

임시 중앙 정부 첫 국외 활동으로 미얀마 연방 승가회 교류 방문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일정)

종정 닥터 우 꾸마라, 바고 총리, 부서 장관 등 면담

부처님 성발사리, 치아사리 임시 법왕청사로 이운



▶ 6월 14일 : 부처님 치아사리
(우 미인 아웅 전 종교성 장관 / 종교성)

(사) 세계불교법왕청 임시 중앙정부 출범

세계불교법왕청의 세계 법왕추대 위원장 목탁스님은 법왕청 정식출범의 첫 행보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닥터 우 꾸마라 종정) 친견 및 바고 총리를 비롯하여 6개부서 장관들과의 양국 불교의 상호교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세계불교법왕청의 행보와 교류에 대해 많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종정 닥터 우 꾸마라) 큰스님 친견 때에는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주시며 더욱더 분발하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사바세계에 나투시기 조차 어려운 성스러운 성보 부처님의 성발과 중국 불교회 주관으로 중국전역에서의 친견법회와 미얀마 정부의 주관 하에 2번에 걸쳐 전국 친견법회를 봉행하였던 부처님 치아사리를 목탁스님에게 내려 주셨다. 2500여년이 넘어 우리에게 오신 성스러운 부처님 성발과 치아사리는 前 미얀마 종교성 장관의 배려로 감당하기 힘든 희열과 감격속에 여법히 한국으로 이운하여 임시 법왕청사에 봉안하였다.



▶ 6월 14일 : 2500여년 만에 나투신
성스러운 부처님 성발사리



▶ 6월 14일 : 부처님 성발사리 이운
(종정 우 꾸마라)



▶ 6월 11일 : 네피도 종교성 청사에서
장관 (U SANN SINT)미팅



▶ 6월 13일 : 바고 종교성 총리 면담 (총리실)



▶ 6월 11일 : 네피도 문화부 청사
장관 (U AYE MYINT KYU)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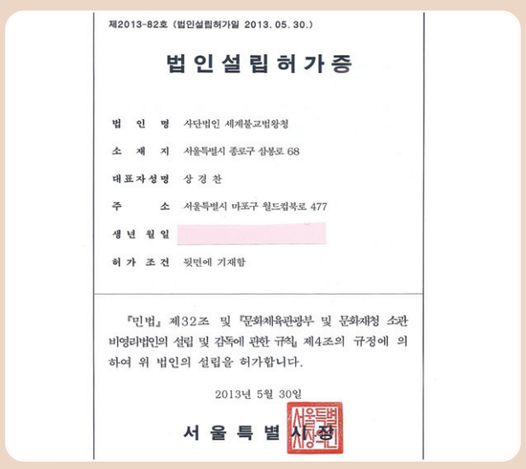
▶ 6월 12일 : 네피도 관광부청사에서 장관
(U HTAY AUNG)미팅



▶ 6월 13일 : 미얀마불교수호협회회장 (U KHINSHWE)
미팅(전경련회장및 현국회의원)



▶ 6월 13일 : 쉐모도 파고다 접견실



▶ 세계불교법왕청 설립허가증

(사)세계불교법왕청은 법왕청 정식 출범 이후 최초의 내각 구성을 일부 완료한 후 올해 10월 9일 대내외 공식 선포식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